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조선후기 신중탱과 신중신앙 연구

指導教授 姜素妍

中央僧伽大學校 大學院  
佛敎學科 佛敎文化財學 專攻  
金兌垠(慧敏)

2016年 12月

조선후기 신증탱과 신증신앙 연구

指導教授 姜 素 妍

金兌垠(慧敏)의 學術 碩士學位

請求論文을 認准함

2016年 12月

中央僧伽大學校 大學院

佛敎學科 佛敎文化財學 專攻

金 兌 垠(慧敏)

金兌垠(慧敏)의 學術 碩士學位  
請求論文을 認准함

2016年 12月

學位論文審查委員會

審查委員長 陳永裕 印 

審查委員 崔兌先 印 

審查委員 姜素妍 印 

中央僧伽大學校 大學院

# 목 차

국문초록 .....	vi
<b>I. 서론</b> .....	1
1. 연구의 목적 .....	1
2. 기존연구 검토 .....	2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6
<b>II. 신중신앙의 유래와 신중구성(神衆構成)</b> .....	8
1. 신중신앙의 이론적 배경 .....	8
1) 신중신앙의 기원과 성립 .....	8
2) 신중의 형성배경 .....	17
2. 신중의 구성 .....	21
1) 80 『화엄경』의 신중 .....	22
2) 『석문의범』 .....	37
<b>III. 조선후기 신중탱의 형식 분류</b> .....	51
1. 1형식-제석천을 중심으로 .....	52
2. 제2형식-천부·천룡을 중심으로 .....	57
1) 제석·범천(천부)을 중심으로 .....	57
2) 제석·천룡을 중심으로 .....	64
3) 제석·범천·천룡탱을 중심으로 .....	68
3. 제3형식-예적금강을 중심으로 .....	79
1) 금강탱 .....	79
2) 39위 신중 .....	83
4. 4형식-諸位 신중탱: 104위 신중 .....	90

IV. 조선후기 신증탱의 도상적 특징과 의의 .....	96
1. 도상적 전개 과정 .....	96
2. 도상적 특성 .....	105
3. 역사적 의의 .....	110
V. 결론 .....	113
參考文獻 .....	115
ABSTRACT .....	120

## < 표 > 목 차

<표 1> 39位 신중과 104位신중의 분류 .....	47
<표 2> 104位 에 포함된 신중 .....	48
<표 3> 104位 포함되지 않는 신중 .....	49
<표 4> 39位 신중과 104位 신중의 異名 .....	50
<표 5> 능가사 신중탱 도상구조 .....	53
<표 6> 흥국사 제석탱 도상구조 .....	55
<표 7> 청곡사 신중탱 도상구조 .....	63
<표 8> 佛陀八部衆과 四天王八部衆 .....	66
<표 9> 제석·천룡탱 .....	67
<표 10> 선암사 나한전 신중탱 도상구조 .....	67
<표 11> 제Ⅰ형식 .....	69
<표 12> 제Ⅱ형식 .....	71
<표 13> 제Ⅲ형식 .....	72
<표 14> 제Ⅳ형식 .....	73
<표 15> 제Ⅴ형식 .....	77
<표 16> 김룡사 신중탱의 도상 구조 .....	80
<표 17> 석남사 신중탱의 도상 구조 .....	81
<표 18> 신중탱의 화면구조 .....	84
<표 19> 용문사 신중탱의 도상 구조 .....	84
<표 20> 해인사 104위 신중탱의 도해 .....	93

## < 그림 > 목 차

<그림 1> 능가사 제석탱 .....	54
<그림 2> 홍국사 제석탱 .....	55
<그림 2-1> 홍국사 제석탱 상단부분 .....	55
<그림 3> 통도사 대광명전 .....	57
<그림 4> 길상암 신중탱 .....	57
<그림 5> 원각경변상도 .....	58
<그림 5-1> 제석천, <그림 5>의 왼쪽 하단부분 .....	59
<그림 5-2> 대범천, <그림 5>의 오른쪽 하단 부분 .....	59
<그림 6> 대둔사 신중탱 (大菴寺 大陽門 帝釋幀) .....	60
<그림 7> 대둔사 신중탱(大菴寺 大陽門 大梵王幀) .....	60
<그림 6-1> 大菴寺 帝釋幀 왼쪽 상단 부분 .....	61
<그림 6-2> 大菴寺 帝釋幀 왼쪽 하단 부분 .....	61
<그림 7-1> 大菴寺 大梵王幀 오른쪽 상단 부분 .....	62
<그림 7-2> 大菴寺 大梵王幀 오른쪽 하단부분 .....	62
<그림 8> 청곡사 신중탱 .....	63
<그림 9> 선암사 나한전 신중탱 .....	68
<그림 10> 선암사 수도암 신중탱 .....	68
<그림 11> 국일암 신중탱 .....	69
<그림 12> 경국사 신중탱 .....	71
<그림 13> 용문사 신중탱 .....	72
<그림 14> 송광사 대지전 신중탱 .....	73
<그림 15> 천은사 수도암 신중탱 .....	75
<그림 16> 극락암 신중탱 .....	77
<그림 17> 김룡사 신중탱 .....	80
<그림 18> 김룡사 신중탱 .....	80
<그림 19> 석남사 신중탱 .....	81
<그림 20> 용문사 신중탱 .....	84

<그림 20-1> 천부, 용문사 신중탱 왼쪽 부분 .....	85
<그림 20-2> 천룡부, 용문사 신중탱 오른쪽 부분 .....	85
<그림 20-3> 명왕부, 용문사 신중탱 중간 부분 .....	87
<그림 21> 용문사 신중탱 .....	88
<그림 22> 송광사 대웅전 신중탱 .....	89
<그림 23> 해인사 신중탱 .....	92
<그림 24> 범주사 신중탱 .....	94
<그림 25> 표충사 신중탱 .....	95
<그림 26> 대방광불화엄경 변상도 .....	97
<그림 27> 圓覺經變相圖 하단부분 .....	98
<그림 28> 관경서분변상도 .....	99
<그림 28-1> 관경서분변상도 왼쪽 상단 부분 .....	99
<그림 29> 관경서분변상도 .....	99
<그림 29-1> 관경서분변상도 상단부분 .....	99
<그림 30> 미륵하생경변상도 .....	100
<그림 31> 지장보살도 .....	101
<그림 32> 지장보살도 .....	101
<그림 33> 오백나한도 .....	102
<그림 34> 묘법연화경 제1권 변상도 .....	103
<그림 35> 묘법연화경 제2권 변상도 .....	104

# 국문초록

## 조선후기 신중탱과 신중신앙 연구

김 태 은(혜민)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 불교학과

불교문화재학전공

(지도교수 강 소 연)

불교에서 신중은 불보살을 수호하는 존재로 80『화엄경』에 나타난 39위 신중과『석문의범』에서 나열하는 104위 신중의 명호를 확인 할 수 있다. 신중은 불보살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신들로서 우리나라에서는 통일신라시대부터 화엄신앙을 바탕으로 시작되었으며,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에 정착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신중신앙이 어떻게 형성되어 사찰에 존재하게 되었는가를 살펴보고, 기존에 미술사학적인 방법으로 작품 분석만을 주심으로 한 논문과는 다른 차원에서 조선후기 신중탱의 형식 분류와 그 신앙적, 의례적 의미를 밝혀 불교에서의 신중의 의미를 고찰해보았다.

이에 먼저 제Ⅱ장에서는 신중신앙의 이론적 배경과 신중 구성을 고찰하였다. 제Ⅲ장에서는 조선후기 신중탱의 도상 분류를 제석탱·천부천룡탱·금강탱·104위 신중탱의 4형식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신중탱은 조선시대의 불화 가운데서도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

을 알게되었다. 그 특성은 호법과 신앙이 함께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다. 신중탱이 가지는 가람 내의 청정, 정법의 수호를 하는 호법적 기능과 더불어 현세구복, 소재강복의 현실적 신앙이 어우러진 중단탱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IV장에서는 이상의 고찰과 분석을 바탕으로 전반적인 조선후기 신중탱의 전개와 흐름, 나아가 역사적 의의를 고찰하였다.

이전까지는 거국적 차원에서 호국의 역할을 담당했던 신중신앙은 조선시대에 이르러서 가람의 수호와 내호적인 성격으로 바뀌었으며, 토속신앙을 불교에 융합함으로써 일반 서민층에 크게 유행하였다. 이와 같이 이전시대보다 불화는 쇠퇴국면을 보인다. 하지만, 신중탱은 조선후기에 또 다른 창의적인 발전을 보임으로써 한국불교 사상과 미술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

주제어 : 화엄경, 신중신앙, 신중탱, 제석, 천룡, 금강탱, 도상

# I. 서론

## 1. 연구의 목적

인도로부터 기원된 불화는 서역과 중국을 거쳐 한국에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 동안 전파되고 토착화되는 과정에서 신앙 형태와 의거하는 경전에 따라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조성되고 변천되었다. 이러한 불화 가운데 사찰의 신중탱<sup>1)</sup>은 불법을 호지하는 호법신들을 묘사하거나 경전을 수호하는 신중들로 구성된다. 신중은 부처님의 정법과 그의 가르침을 수호하기 위해 불교에 귀의한 선신들을 말하며, 신중들은 불법 그 자체를, 혹은 불법을 신앙하는 중생들을 여러 가지 환란으로부터 보호해주는 호법신으로서 수용된다.

대표적인 호법선신중으로는 제석천·범천·마혜수라천·위태천·사천왕·팔부중·16선신·12신장·25부중 등이 있다. 이 모든 신들은 원래 고대인도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이지만 불교에 습합되면서 그 역할 및 성격 또한 변화되었다.

한국의 사찰에서는 전각에 모셔놓은 주불에 따라 대웅전·대적광전·극락전·관음전외 다수의 전각이 있다. 신중탱은 각 전각의 주불을 모셔놓은 중앙을 중심으로 왼쪽 또는 오른쪽 벽에 봉안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논고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신중탱의 신중으로는 80『화엄경』<sup>2)</sup>에 나오는 39위 화엄신중과『석문의범』<sup>3)</sup>에 나오는 104위 신중이 있다. 80『화엄

---

1) 도(圖)가 가지는 의미가 넓고 일반적인데 비해 탱(幀)은 의미가 좁고 정확하다. 벽에 그려진 그림을 圖라하고 걸수 있도록 액자나 족자 형태로 만들어진 그림을 幀이라 하기 때문이다.

탱은 불교 미술 중 걸 수 있도록 제작된 그림을 가리킨다. 탱은 티베트의 tangka를 어원으로 하고 있다. 이것을 소리나는 대로 한자로 옮겨 幀이 된 것이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신중탱화’라는 용어를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고 ‘신중도, 또는 신중탱’ 용어를 사용하면서 논리를 전개하고자 하는데 그것은 근래에 ‘신중탱화’ 대신에 이렇게 사용하자는 경향에 따른 것임을 밝혀둔다.

2) 원명은『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이며, 현재 한역본(漢譯本)으로는 권수에 따라 불타발타라(佛陀跋陀羅)가 번역한 60화엄과 실차난타(實叉難陀)가 번역한 80화엄, 반야(般若)가『입법계품』만 번역한 40화엄 등 세 가지가 있으며, 이들은 모두 우리나라에서 널리 유통되었다.

경』『세주묘엄품』에 나오는 39위<sup>4)</sup> 화엄신중들은 부처님께서 범보리 도량에서 정각을 이루시자 보현보살을 위시한 보살대중과 집금강신을 비롯한 대자재천왕까지 부처님 회상에 모여와서 부처님의 세계를 장엄하고 있다. 이처럼 39위 화엄신중이 경전에 근거하고 있는데 비해서, 『석문의범』의 104위 신중은 경전에서 근거를 찾기 힘들다.<sup>5)</sup> 104위 신중은 먼저 『범음집』 중권에서 팔금강·사보살만 언급되고, 『작법귀감』상권과 『석문의범』상권에서 104위 전체의 명호가 정확히 확인되고 있다.

이들 39위 화엄신중과 104위 신중의 신중탱은 현존하는 제석탱·천부천룡탱·금강탱 등의 작품에 비해 그 형식이 많지 않다. 기존의 연구서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소략하게 다루고 있지만 본 논고에서는 이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신중신앙의 형성배경과 화엄 신중신앙의 성립을 알아보려고 한다.

먼저 두 형식의 근거인 경전과 의식집을 통해 그 구성이 어떻게 되며, 실존 작품에서 그 의례가 적용되고 있는 지 정리해 본 후, 조선후기의 신중탱의 대표작들을 중심으로 신중의 형식과 도상적 특징을 밝혀내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 의의를 고찰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기존연구 검토

기존의 신중에 대한 연구는 불교 신앙의 대상으로서 ‘신중’에 접근하여 연구하는 것이다.

먼저 ‘신중’에 대한 관심은 홍윤식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홍윤식은 첫째로, 『석문의범』의 ‘신중작법’을 통해서 신중의 명칭에 대

3) 1931년 안진호스님이 석문의범을 편찬했다. 이 석문의범이 곧 현행 한국불교의 ‘의식(儀式)’인 것이다. 석문의범은 상하2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상편은 예경(禮敬)·축원(祝願)·송주(誦呪)·재공(齋供)·각소(各疏) 5장이고, 하편은 각청(各請)·시식(施食)·배송(拜送)·점안(點眼)·이운(移運)·수계(受戒)·다비(茶毘)·제반(諸般)·방생(放生)·지송(持誦)·간례(簡禮)·가곡(歌曲)·신비(神祕)등 13장으로 편성되어 있다.

4) 39위 화엄신중은 80『화엄경』에 의한 것이다.

5) 김정희, 「조선시대 신중탱화의 연구(I)」, 223쪽에서는 이는 경전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있다.

해 고찰하였다<sup>6)</sup>.

둘째, 39위 신중이 원형적인 것이며 차차 불교가 민간신앙과 더욱 강한 결합을 하게 되면서 104위 신중탱이 도설된 것이라 하였다.

셋째, 불교와 무속의 연관성은 의례에 있다고 보았다.

넷째, 신중탱을 밀교의 만다라로 보았다. 이에 대한 예로 신중탱이 무질서하게 도설화하지 않고 상·중·하단 구조에 의하여 도설되거나 제석·범천 등을 중심으로 하는 제천신 등이 질서정연하게 도설되고 있는 양상을 들었다.

한정섭은 39위 신중은 인도의 汎神思想에서 유출된 신들이 불교로 포섭된 것으로 보았다<sup>7)</sup>. 그리고 104위 신중은 중국으로 불교가 유입된 이후 동남아시아의 민속신들이 보태진 것으로 보았다.

문명대도 신중을 인도와 중국, 우리나라에서 불교의 토착화 과정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았다.<sup>8)</sup> 특히 하단의 신들은 전래신으로 중국의 시왕신·칠성·우리나라 부역신·산신 등도 포함되어 있는 것에 주목하였다. 이와 같은 신앙은 신비적이고 토속적인 것이어서 밀교신앙으로 결합된 형태로 분석하였다.

문진열도 신중을 불교의례가 삼단분단법으로 불교 속에 정착되는 과정에서 모든 토속신앙을 불교적으로 수용한 전형 가운데 하나로 보았다<sup>9)</sup>.

다음으로 신중탱을 통한 신중에 대한 접근 양상을 살펴보겠다.

신중탱은 신중신앙의 표현방법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신중탱에 대한 연구는 신중에 대한 고찰부터 시작된다. 신중탱에 대한 관심은 정병국에 의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정병국도 신중의 유래를 살펴보고 신중탱의 종류 및 전개양상을 통해서 조선후기 신중탱의 성격을 분석하였다.<sup>10)</sup>

6) 홍윤식, 「불교의식에 나타난 제신의 성격-신중작법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1, (한국민속학연구회, 1969).

7) 한정섭, 『佛敎土着信仰考』, (한국불교학회, 1975).

8) 문명대, 『한국의 불화』(설화당, 1977).

9) 문진열, 「불교와 민속신앙에 관한 고찰」,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10) 정병국, 「朝鮮後期 神衆幀畫의 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_\_\_\_\_, 「朝鮮後期 神衆幀畫의 研究」, (한국문화사학회, 1994).

그는 신중을 불법수호의 기능을 갖고 있는 신앙의 대상자로 사찰의 전각 안에 봉안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신중은 신라시대부터 석조상과 각 경전의 변상도로 존재하였으며 조선시대에도 화엄 신중신앙을 바탕으로 탱으로 도설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신중에는 명왕 및 토속신이 다수 포함 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것은 불교의 밀교적 수용과 명왕신앙의 전개, 토속신의 불교 수화신화에 의한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즉 신중탱은 화엄사상에서 비롯된 호법신신과 토속적인 신앙신의 두 가지 성격을 함께 가지며 신앙되었다고 분석한 것이다.

다음으로 조선후기 신중탱의 특징을 다섯 가지로 나누었다.

첫째, 주존상을 고정시키지 않았다.

둘째, 도면의 등장인물 및 숫자에 상관없이 신앙의 대상에 따라 주존(제석, 범천, 위태천)의 위치가 바뀐다고 하였다.

셋째, 주존을 중심으로 좌우협시를 배치시킨 전통적 대조적 도상을 탈피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넷째, 색상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등장인물의 역할에 따라 표정과 형상들의 포즈를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작자의 개성을 살릴 수 있고 신앙자가 신중탱과의 친밀감을 더해주는 것으로 조선후기에 다양한 형태로 신중탱이 도상되었다고 보았다.

이후의 연구는 정병국의 분석을 바탕으로 현전하는 신중탱에 대해서 활발하게 진행된다.

김정희는 신중탱의 도상배경을 화엄 신중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았다.<sup>11)</sup> 그는 고려시대까지는 신중신앙의 성행과 함께 모든 분야에 걸쳐 신중상이 조성되었으나, 조선시대에 이르면 신중상의 조성은 급격히 줄어들고 대신 신중탱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고 보았다.

이승희는 현재 신중신앙 속의 신중탱을 주목하여 연구하였다.<sup>12)</sup> 그는

---

11) 김정희, 「조선시대 신중탱화의 연구」, 『한국의 불화』 5, (성보문화재연구원, 1997).  
\_\_\_\_\_, 「韓國의 神將信仰과 神衆像 研究」, 『선무학술논집』 5, (국제선무학회, 1995).

조선시대에 형성된 한국불교의 특징으로 화엄 신중을 들었다. 즉 ‘신중’을 19세기 전반부터 다양한 의식문에 흠어져 있던 여러 신들을 결합하여 성립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민간신앙과 결합하면서 신중탱에 산신과 조왕신이 주요 도상으로 나오게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당시 사회 변화에 따른 서민들의 신앙경향이 반영된 것이라 분석하였다.

이러한 신앙경향의 변화양상은 권지은의 논문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권지은은 현전하는 다수의 신중탱이 19세기에서 20세기의 제작된 점을 주목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sup>13)</sup>

이 시기의 신중탱은 군상을 이루는 작품이 많으며 개인의 후원으로 제작된 불화가 많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고려시대의 호국적이고 외호적인 성격의 신중탱과는 달리 조선시대 신중탱에서는 내호적이고 현세의 안위와 이익을 반영한 것이라 분석하였다.

그리고 억불정책으로 인해 민중불교로 변화되면서 토속적인 신중들까지도 포용하는 회화로 변천한 것으로 보았다.

끝으로 김덕혜는 선운사의 신중탱을 중심으로 신중탱의 특징을 살펴보았다.<sup>14)</sup> 그는 신중탱이 신성감과 신앙적인 감성작용을 우리나라에 하는 특징이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신중탱을 통해서 민중에게도 신중과 같이 불법을 향한 신앙심이 우리나라에 수 있게 하는 동기를 부여한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신중탱은 화엄사상을 신앙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의의가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신중탱은 경전사상을 집약·상징하는 성격이 있으며 토착화과정에서 수용된 신들이 포함된 104위 신중탱으로 변천한 것으로 보았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는 신중탱을 연구하기 위한 신중에 대한 고찰이 주를 이루었다. 불화는 경전과 의궤를 바탕으로 그려진다는 점에서 신중에

---

12) 이승희, 「조선시대 신중탱화의 도상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_\_\_\_\_, 「朝鮮後期 神衆頓畫 圖像의 研究」, 『美術史學研究』 228-229, (한국미술사학회, 2001).

13) 권지은, 「19세기 신중탱화의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14) 김덕혜, 「19세기 華嚴神衆圖 研究 : 兜率山 禪雲寺 神衆圖를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대한 검토는 미술사에서 선행되어야 할 과정이었다.

그러나 신중에 대한 연구는 선행연구사의 주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다음으로 신중의 독립된 신들에 대한 연구는 불교 속에 민속에 대한 연구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 논문은 우선 불교신앙 속에 보이는 신중의 모습을 살펴보고, 39위 신중과 104위 신중을 비교하고 104위 신중탱으로 귀결되는 조선후기 39위 신중탱을 살펴본 후, 신중탱의 대표작들을 중심으로 신중탱의 형식와 도상적 특성을 밝혀내고, 역사적 의의를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신중신앙의 성립배경과 조선후기 신중탱을 중심으로 고찰한 논문이다.

이와 같은 연구를 바탕으로 80『화엄경』, 『세주묘엄품』의 신중과 『석문의범』에 보이는 神衆作法의 신중을 비교하여 현재 우리들이 하고 있는 신중의식에 보이는 신중 이름이 어느 정도 경전과 일치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논문의 연구를 위하여 『대방광불화엄경』권1 『세주묘엄품』, 『화엄경청량소』권1, 『석문의범』, 『한국의 불화』, 기존에 발표된 신중탱 관련 학위논문들과 단행본들, 그리고 전문 학술지에 발표된 글들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제Ⅱ장에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신중의 이론적 배경을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신중이란 무엇을 말하며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살펴보고 신중은 어떠한 존재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제Ⅲ장에서는 신중탱은 조선후기 특히 18세기, 19세기에 집중적으로 조성되었다. 신중탱의 형식과 유형은 일반적으로 분류하면 크게 제석탱·천룡탱·제석 범천탱·제석 천룡탱·제석 범천 천룡탱·39위신중탱·104위신중탱·

금강탕 등 8형식으로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본 논고에서는 제석탕·천부  
천룡탕·금강탕·104위 신중탕등 4형식으로 나누어 각각 살펴보고자 한다.

제Ⅳ장에서는 조선후기 신중탕의 도상적 특징과 의의에 대해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 이 논문의 결론을 정리하였다.

## II. 신중신앙의 유래와 신중구성(神衆構成)

### 1. 신중신앙의 이론적 배경

#### 1) 신중신앙의 기원과 성립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신중이란 고대 인도신화 속에 등장하는 신들로서,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감화되어 호법신신의 기능을 맡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불교가 신앙으로서 인정받았을 당시부터 신중들은 불교에 융합되어 왔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神衆이란 말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신중은 단독신이 아닌 복수개념의 호법신으로서 각각 독립적인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각종 불화에서 권속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묘법연화경』을 도상화 한 영상회상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부처님이 처음으로 설법하신 영축산에서의 설법 장면에서도 수많은 신중들과 함께 나타나 불법을 수호하는 역할로 등장한 호법신신중(護法善神衆)들은『법화경』에 등장하는 신중들이며 그것으로 보아 불교의 탄생과 더불어 신중신앙도 탄생했다고 생각이 된다. 또 약사여래도에서도 신중의 무리를 찾아 볼 수 있는데 약사여래도에 등장하는 약사 12신장상은『약사경』에 등장하는 호법신신중이므로 독립적인 예배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화엄신중을 그린 신중탱은 그 신앙적인 배경이『화엄경』에 근본을 두고 있는 독립적인 예배 대상이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신중은 『화엄경』에 바탕을 한 화엄신중에 대한, 신중단에 봉안되어 있는 신중탱을 근거로 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들 신중들은 각 경전에 근거한 호법신중 일뿐 독립된 신앙의 대상은 아니다. 이에 비해서 조선시대 후기에 등장한 신중탱들은 모두『화엄경』에 근거한 華嚴神衆들로서 그 신앙적 배경이 다르다.

우리나라에『화엄경』이 전래된 시기는 진흥왕 26년(565)9월에 眞文帝가 수교사(修交使)인 유사(劉思)와 月觀大師 편에 경전 1700여권을 보내 왔을 때 처음으로 유입된 것으로 알려지는데, 이때 전해진『화엄경』은 불타

발타라(佛陀跋陀羅)가 418년에서 420년에 걸쳐 양주(楊州) 식사공사(識司空寺)에서 번역한 60권본이었다. 그 후 의상대사가 661년에 입당하여 종남산(終南山) 지상사(至相寺)의 智儼으로부터 화엄경을 배우고 671년에 귀국한 뒤 얼마 후에는 698년 실차난타(實叉難陀)가 불수기사(佛授記寺)에서 완성한 80권이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sup>15)</sup>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신증신앙이 시작되었다고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삼국초기 불교의 전래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추측된다. 그러나 현존하는 유물들의 예로는 삼국통일을 전후한 시기부터 나타나고 있다.

『삼국유사』를 비롯한 고대의 기록에는 신증신앙에 대한 단편적인 기록들이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보아 우리나라에서의 신증 신앙의 기원은 불교의 전래와 함께 시작되었다는 추측이 틀리지만은 않을 것이다.

삼국 중에서 가장 먼저 불교를 수용한 고구려는 일찍부터 사찰이 건립되고 불상이 제작되었으므로 이와 함께 신장상이 조성되었으리라 짐작되지만, 현재는 유물이나 기록상으로는 신증신앙에 대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신라의 경우, 진평왕(579~632)은 제석천을 호국, 호법의 선신으로 신앙하여 內帝釋宮을 세웠고 선덕여왕(632~647년) 때에는 당나라에 갔던 자장법사가 태화지(太和池)을 지나다가 선인에게 梵王의 명을 받고 황룡사를 수호한다는 호법용(護法龍)의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 이 기록들에서 이미 범천과 제석천에 관한 신앙이 전해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그 신들에서 호국·호법의 신증으로서의 역할이 주어져 있었음을 짐작 할 수 있다.<sup>16)17)</sup>

이외에도 선덕여왕 때 조성된 분황사 석탑의 일층 탑신 4면에 부조로

15) 이지관, 「한국불교에 있어 화엄경의 立置-刻板流通을 중심으로」, (『불교학보』, 20. 1983), p.12.

16) 일연, 김원중역, 『삼국유사』, (을유문화사, 2002), pp.313-316.

17) 일연, 김영수역, 『삼국유사』, 卷3 塔像 皇龍寺九層塔조  
(전략)藏 知是大聖變化 泣血而退 經由中國太和池邊 忽有神人 出問 胡爲至此 藏答曰 求菩提故 神人禮拜 又問 汝國 有何留難 藏曰 我國 北連靺鞨 南接倭人 麗濟二國 迭犯封陲 隣寇縱橫 是爲民梗 神人云 今汝國 以女爲王 有德而無威故 隣國謀之 宜速歸本國 藏問 歸鄉 將何爲利益乎 神曰 皇龍寺護法龍 是吾長子 受梵王之命 來護是寺 歸本國 成九層塔於寺中 隣國降伏 九韓來貢 王祚永安矣.(후략), (일신서적출판사, 1986), p. 270.

조성된 8구의 인왕상과, 그 당시 활약 했던 양지(良志)스님이 영묘사의 천왕상을 비롯하여 천왕사 탑 밑의 8부신장, 범림사 좌우 금강신 등을 만들었다고 하는 기록<sup>18)19)</sup>은 다양한 종류의 신중상에 대한 신앙과 조상(造像) 활동이 활발했음을 말해 준다.<sup>20)</sup>

그러나 신중신앙의 본격화는 문무왕(661~681)때 사천왕사가 건립(679)된 사실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것은 당나라 군사가 쳐들어옴에 대처하기 위해 사천왕사를 세우고 ‘문두루비법<sup>21)</sup>(文豆婁秘法)’을 행하여 물리쳤다는 내용<sup>22)</sup>으로 당시 사천왕사를 세워 문두루비법을 행하였다는 것은 곧 외호신중들의 가피(加被)<sup>23)</sup>에 의하여 국난을 극복하려 했던 의도<sup>24)</sup>라고 생각된다.

백제의 신중신앙 역시 단편적인 기록에 의해서만 알 수 있다.

무왕(600~641)때 제석사<sup>25)</sup>(帝釋寺)를 세웠다는 기록이라든지, 의자왕 20년(660) 5월에 충우로 천왕사(天王寺)와 도호사(道護寺)의 탑이 진동했다는 기록<sup>26)</sup>은 일찍이 제석, 사천왕 등 신장에 대한 신앙이 있었음을 전해 주는 것이지만, 그 이상의 내용이 전해지지 않아 자세한 것은 알 수가 없다.

18) 일연, 김원중역, 『삼국유사』, (을유문화사, 2002), pp.437-438.

19) 일연, 김영수역, 『삼국유사』, 卷4 義解 良志使錫조 (전략)其神異莫測 皆類此 旁通雜譽 神妙絕比 又善筆札 靈廟 丈六三尊 天王像 并殿塔之瓦 天王寺塔下 八部神將 法林寺 主佛三尊 左右金剛神等 皆所塑也.(후략), (일신서적출판사, 1986), p 343.

20) 김정희, 『신장상』, (대원사, 1985), pp.11-12.

21) 문두루비법이란 제석천, 사천왕, 여러 귀신, 왕, 신하들이 모여 부처님에게 의문 나는 것을 묻고 대답하는 형식의 의식이다.

22) 일연, 김원중역, 『삼국유사』, (을유문화사, 2002), pp. 141-151

23) 가피(加被): 부처나 보살들이 중생들에게 힘을 줌.

24) 일연, 김영수역, 『삼국유사』, 卷2 紀異 文虎王法敏조 (전략)乃以彩帛營寺. 草搆五方神像.以瑜珈明僧十二員. 明朗爲上首. 作文豆婁秘密之法. 時唐羅兵未交接. 風濤怒起. 唐缸皆沒於水. 後改耑寺. 名四天王寺. 至今不墜塔席.(후략) (일신서적출판사, 1986), p 153.

25) 제석사는 백제 무왕이 도읍을 익산으로 옮길 계획을 추진하면서 왕궁 부근에 창건한 절로, 『관세음응험기(觀世音應驗記)』에서 정관(貞觀)13년(639년)벼락으로 인하여 불당과 칠층탑, 회랑과 승방이 모두 불탔다는 기록이 있어 7층 목탑, 불당, 회랑, 승방 등을 갖춘 왕실사찰이었을 것으로 추정.(문화재청)

26) 일연, 김원중역, 『삼국유사』(을유문화사, 2002), pp. 213-215. 김정희, 『신장상』, (대원사), pp. 13-14

또 고구려에도 신장신앙이 있었다고는 추측되나, 현재의 기록상으로는 확인 할 만한 것이 없다.

삼국시대의 신중신앙은 삼국통일을 전후로 하여 더욱 더 본격화되고, 다양화되기 시작하였음은 현존하는 유물과 많은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 또 통일신라시대에는 호국불교의 성향이 깊었으므로, 신중상의 조성이 활발했다. 9C 탑의 특징인 일층 탑신부에 신중상을 조각하는 것<sup>27)</sup>만을 보아도 그 당시 신중 신앙의 정도가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있다<sup>28)</sup>

감은사 사리기(682년)의 사천왕상, 8부중 상을 비롯하여 석탑과 부도에 인왕·사천왕·8부중·12지 등이 부조된 예가 많이 남아 있으며, 750년경에는 석굴암 내부에 여러 신장상이 조각되고 있는 것을 보아 당시의 신중 신앙의 유행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삼국시대의 신중에 대한 기록은『삼국유사』에서 찾을 수 있다. 이중 보천의 일화, 화엄사상과 관련된 승려들의 일화, 진평왕의 일화를 살펴보겠다.

첫째, 보천과 화엄신중과 관련된 일화이다. 이 일화는『삼국유사』권3 탑상 제4 대산오만진신(臺山五萬眞身)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천(寶川)은 임종할 때 후일에 산 속에서 할 일 중에 국가를 도울 행사를 기록하였다. 그는 국가를 도울 일로 부처의 진신(眞身)에 따라 오대산 다섯 곳에 도량을 지었다. 그것은 동대(東臺)에 관세음보살 중심의 원통사(圓通寺), 서대(西臺)에 아미타불 중심의 수정사(水精寺), 남대(南臺)에 지장보살 중심의 금강사(金剛寺), 북대(北臺)에 나한과 석가모니 중심으로 한 백련사(白蓮寺), 중대(中臺)에 비로자나를 중심으로 한 진여원이다. 이 중 진여원은 화엄신중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곳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7) 신라의 석탑은 기본적으로 方形의 平面을 기본으로 하였기 때문에 각 면의 사방에는 이에 맞는 부조상을 등장시켰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 방편으로 仁王이나 사천왕, 팔부중, 사방불 십지어는 十二支神像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조형을 등장시켰다. 이들은 신앙적 기능을 강조하는 조형도 있지만 한결같이 佛舍利의 神聖에 대한 守護의 그 첫 번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신라 석탑과 그 부조상의 관계는 불탑의 신성과 수호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장충식, 『통일신라시대 석탑의 부조상의 연구』, 『고고미술』 154·155, 1982, p.97).

28) 홍유식, 『한국의 불교미술』, (대원정사, 1986), pp.95-97.

“황색처(黃色處)인 중대의 진여원 가운데는 이상문수부동(泥像文殊不動)을 모시고 뒤쪽 벽에는 비로자나(毗盧遮那)를 수반하는 36화형(三十六化形)을 그려 봉안(奉安)하였다. 그리고 복전(福田) 5명을 두어 낮에는 『화엄경』과 『육백반야(六百般若)』를 읽게 하고 밤에는 문수에참(文殊禮懺)을 엄불하게 하였다. 또 이곳을 화장사(華藏寺)로 개창하고 원상비로자나삼존(圓像毗盧遮那三尊)과 대장경(大藏經)을 봉안하고 복전 5명을 두어 낮에는 장문장경(長門藏經)을 읽게 하고, 밤에는 화엄신중(華嚴神衆)을 엄불하게 했다. 그리고 매년 백일 동안 화엄회(華嚴會)를 열게 하고 이곳을 법륜사(法輪寺)라 불렀다. 이중 화장사를 오대사(五臺寺)의 본寺로 삼아 보호하고 기도하면 국왕은 장수하고 백성은 안태(安泰)하고 나라가 평화로우며 풍농이 될 것이다. 또 하원문수갑사(下院文殊岬寺)를 더해 오대사의 도회(都會)로 삼고 7인의 복전(福田)이 밤낮으로 화엄신중예참(華嚴神衆禮懺)을 하고, 재에 필요한 자금은 하서부도(河西府道)안의 8개 주의 세금으로 충당케 하라. 이것을 계속해서 지키면 많은 복이 따를 것이다.”<sup>29)</sup>

이처럼 보전은 705년에 오대산에 ‘화엄신중’을 중심으로 한 화엄도량을 개창하고, 왕의 장수와 국가의 안녕 및 풍농을 기원하였다.

둘째, 화엄사상과 관련된 승려들의 일화이다. 이것은 화엄종의 개조(開祖)인 의상대사(義湘大師, 625~702)와 도선율사에 관한 이야기와 자장율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예로 들고자 한다.

먼저 의상대사와 도선율사와 관련된 이야기이다. 의상대사가 당으로 건너가 종남산(終南山) 지상사(至相寺)에서 지엄(智嚴)율사와 함께 지낼 때의 일이다. 의상대사가 재를 지낼 때면 항상 하늘에서 음식물이 내려왔다. 어느 날 도선율사가 의상대사에게 부탁하여 재를 지냈는데, 그때는 음식

29) 일연, 김영수역, 『삼국유사』 권3 탑상 臺山五萬眞身조.

黃處中臺,眞如院,中安泥像文殊不動,後壁安黃地畫毗盧遮那爲首三十六化形,福田五員,畫華嚴經六百般若,夜念文殊禮懺,稱華嚴社,寶川庵改創華嚴寺,安圓像毗盧遮那三尊及大藏經,福田五員,場門藏經,夜念華嚴神衆,每年設華嚴會一百日,稱名法法輪社. 以此華嚴寺爲五臺社之本寺,堅固護持,命稱行福田,鎮長香火,則國王千秋,人民安泰,文虎和平,百穀穰豐矣. 又加排下院文殊岬寺爲社之都會,福田七員,晝夜常行華嚴神衆禮懺. 件三十七員齋料衣費,以河西府道內八州之稅,充爲四事之資,代代君王,不忘遵行辛矣. (일신서적출판사, 1986), p. 289.

이 내려오지 않았다. 이 때 도선율사가 천사에게 물어보니, 동내(洞內)에 신병(神兵)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이에 율사는 의상대사가 신의 호위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그 도(道)의 우월함에 탄복하였다. 또 의상대사가 도선율사에게 “제석궁(帝釋宮)에는 부처의 40개의 치아 가운데 어금니 한 개가 있다하니, 우리들을 위해서 천제에게 청하여 그것을 인간에 내려 보내어 복 받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도선율사는 뒤에 천사(天使)와 함께 그 뜻을 상제(上帝)에게 진하게 하였고, 상제는 7일을 기한으로 하여 부처님의 어금니를 보내주었다. 이에 의상대사는 예를 올리고 부처의 치아를 궁 안에 모셨다고 한다.<sup>30)</sup>

다음으로 자장율사(慈藏律師, 590~658)와 관련된 이야기이다. 자장율사가 종남산을 떠나 운제사로 내려왔을 때 귀신들이 그를 가마에 태워가려 하자 다른 큰 신장들이 나타나 그 귀신들과 싸우며 자장을 만류했다는 일화가 있다.<sup>31)</sup>

끝으로 신중 중의 하나로 왕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제석과 신라 진평왕에 대한 이야기이다. 신라 진평왕(眞平王, ?~632)은 제석과 왕을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자신을 석가가(釋迦家)라고 지칭하였다. 그리고 제석을 중심으로 한 기도도량인 제석도량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기도를 올렸다. 이것은 왕과 제석의 밀접한 관계를 사람들에게 보이게 위함이었다.<sup>32)</sup>

이처럼 신라시대의 신중은 화엄사상을 바탕으로 신앙되었으며 화엄조사들을 수호하는 성격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제석은 왕권과의 밀접한 연관성으로 인해 왕실에서 신앙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고려 시대에 이르러서는 불교가 국가와 사회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30) 일연, 김영수역, 『삼국유사』 권3 탑상(塔像) 전후 소장사리(前後 所將舍利) (전략)相傳云. 昔義湘法師入唐, 到終南山至相寺智儼尊者處, 隣有宣律師, 常受千供, 每齋時天廚送食. 一日律師請湘公齋. 湘至坐定既久, 天供過時不至. 湘乃空鉢而歸, 天使乃至. 律師問, 今日何故遲. 天使曰. 滿洞有神兵遮擁, 不能得入. 於是, 律師知湘公有神衛, 乃服其道勝, 仍留其供具, 翌日又邀儼湘二師齋, 具陳其由, 湘公從容謂宣曰, 師既被天帝所敬, 嘗聞帝釋宮有佛四十齒之一牙, 爲我等輩, 請下人間, 爲福如何. 律師後與天使傳其意於上帝, 帝限七日送與湘公. 致敬訖, 遡安大內.(후략). (일신서적출판사, 1986), p 276~277.

31) 전해주, 「삼국유사에 보이는 신중에 대한 고찰」, 『불교학보』39집, (동국대학교출판부, 2002), pp. 70-74

32) 『삼국유사』 권2 기이편, 天玉帶. 안지원, 「신라 진평왕대 제석신앙과 왕권」, 『역사교육』 63, (역사교육위원회, 1997).

신앙으로 수용됨에 따라 불·보살의 공덕과 여러 호국 신중들의 무력에 의해 국난을 극복하려는 법회와 도량이 크게 유행하였다. 특히 강화도읍기(江華都邑期)였던 고려 무인 집권 2기에는 전체 불교 행사 165 설행기록회의 중에 인왕도량(仁王道場), 소재도량(消災道場), 신중도량(神衆道場) 등 진호국가행사(鎮護國家行事)와 소재강복행사(消災降福行事)가 95회에 이르고 있다.<sup>33)</sup> 기양<sup>34)</sup>적(祈禳的) 불교 행사가 많이 열리게 된 것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한 종교적 대응이었다.

특히 高宗 36년부터 43년 사이에는 신중도량과 인왕도량의 두 행사가 일 년에도 몇 차례 씩 동시에 열리고 있어 오로지 佛力에 의지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화엄신중도량, 천진신중도량, 화엄천진신중도량 등 신중도량은 고려 전시기에 모두 39회가 개설된 것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그 중 35회가 강화도읍기에 집중되어 있다.<sup>35)</sup> 이것은 위기 상황이 화엄신중의 옹호가 없음에서 기인된 것이라는 신앙이 성행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큰 의미가 있다. 화엄 신중은 불국토(佛國土) 옹호의 기능을 가진 聖衆들로서 이들 신중들을 위하고 섬김으로서 국토의 고난을 면할 수 있으리라 믿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들 법회나 도량을 개설할 때에는 반드시 그 목적에 맞는 그림이나 조각들을 모아 놓고 의식을 해야 했음으로, 다수의 탕화의 조각이 조성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기록으로만 남아 있다.

33) 김형우, 「고려시대 국가적 불교행사에 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pp.65

34) 재앙은 가고 복은 오라고 빌.

35) 『고려사』 세가22 高宗 四年 乙酉 辛王輪寺設神衆道場.

十年, 春正月己巳, 設帝釋道場于修文殿. 甲午, 親設消災道場於宣慶殿. 丁酉 親設消災道場于宣慶殿丙午辛法雲寺設仁王道場. 戊申, 辛外帝釋院. 壬子, 設八關會辛法王寺. 戊辰, 親設消災道場于修文殿.

三十六年, 春正月戊申北界兵馬使馳報蒙古皇帝崩是爲定宗. 甲子崔沆享王. 二月丙戌燃燈王如奉恩寺. 閏月, 癸丑移御龍岳宮. 丁巳辛賢聖寺. 辛酉新安公佺還自蒙古. 丙寅辛乾聖福靈二寺還御本闕設消災道場. 三月己卯移御龍岳宮. 乙酉辛王輪寺. 丁酉辛九曜堂. 夏四月朔日食. 庚戌遣郎將金子珍校書郎沈秀之如蒙古. 丙辰, 還御本闕饗監役宮僚及役徒賜工匠銀二十斤布二百匹. 六月壬寅, 王如奉恩寺. 癸丑遣侍郎安戩郎將崔公柱如蒙古. 秋七月, 癸酉親設消災道場. 八月壬子, 親設千兵神衆道場. 庚甲, 親設仁王道場. 戊辰, 親設華嚴神衆道場. 七月己巳, 朔東眞兵入東州境遣別抄兵禦之. 壬申, 辛賢聖寺. 辛卯, 指諭朴天府率別抄兵與東眞戰于高城杆城皆破之. 甲午, 辛乾聖福靈二寺. 丁酉, 辛妙通寺移御麗正宮. 冬十月己亥, 親設百座道場. 丙午, 王輪寺移御龍岳宮. 十一月, 壬申崔沆死以崔沆爲樞密院副使吏部尙書御史大夫.

회화에서는 조선시대 신중탱처럼 독립된 불화는 보이지 않고, 지장보살도(地藏菩薩圖), 관경변상도(觀經變相圖), 외적의 침입을 불력으로 막고자 조성되었던 경판서(經板書), 사경변상도(寫經變相圖) 등에서 신중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각종 불교 공예품이나 일부의 탑, 부도, 벽화 등에서 신중들이 표현되고 있어 고려 시대의 신중 신앙의 유행 정도를 추측 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고려 시대의 崇佛정책과는 달리 성리학이 새로운 사회적·정치적 이념으로 등장함에 따라서 신장은 나라를 수호하고 국난으로부터 막아 준다는 外護的 신중신앙이 가람의 수호 또는 護法이라고 하는 신장 본연의 기능에 의한 신앙의 대상으로서 믿어져 왔다.

그러나 국가적으로는 억불정책을 시행하였으나 오랜 불교 숭상의 유풍은 사라지지 않고 조선시대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사대부들은 여전히 승려를 초대하여 장례를 지냈고, 억불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군주들도 왕실을 중심으로 한 개인적인 崇佛사례가 많았다고 한다.<sup>36)</sup>

또 이전의 시대와는 달리 일반 서민 대중들에게도 불교는 확장되어 뿌리를 내렸다. 이 몇 가지 예만 보아서도 조선초기에도 여전히 불교는 왕실과 귀족층 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들에게도 확고히 뿌리를 내린 국가적 종교였던 것이다.

한편 통일신라시대부터 보이기 시작했던 탑이나 부도의 신장상 대신 연화문(蓮花文)이나 운룡문(雲龍文), 화문(花紋), 등이 장엄되었다. 대신에 신장상은 天王門이나 명부전 등에 배치되는 仁王·四天王을 비롯해서 전각안의 신중단(神衆壇)의 신중탱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전 시대에 각종 불화에서 권속으로만 표현되었던 신중들의 표현이 조선시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현존하는 군상의 신중탱으로의 형태가 갖춰

36) 『태조실록』권3, 2년. 命宿衛士卒,通神衆經消災呪于殿庭. ‘태조가 1392년에 군사들에게 신중경을 읽게 한 기록.’

『태종실록』권6, 3년. 乙亥,設帝釋齋於乾聖寺. 乞命也. ‘1403년에 제석재(帝釋齋)를 베풀어 왕의 장수를 빌었다.’

『세종실록』권19, 5년. 禮曹啓金海帝釋堂,羅州錦城堂,三陟太白堂及其他外方各宮神堂,並令推刷,分屬東西活人院,歸厚所,其祀神退物,令所在宮收之,納于所屬處,從之.

졌다. 특히 조선후기에 이르면서 수많은 신중탱이 조성되어 현재에도 많은 작품들이 전해지고 있다.<sup>37)</sup>

당시 신중신앙은 주로 제석·범천을 중심으로 하여 벽사(辟邪)나 강복소재(降福消災), 곧 복을 내리고 재앙을 없애는 기능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崇儒抑佛을 國是로 하였던 조선 사회에서는 신장이 갖고 있던 국가의 안녕과 평안을 담당하였던 외호적 기능이 불전(佛殿) 안의 불보살의 수호라고 하는 내호적 신앙으로 탈바꿈하면서 신중탱이 크게 유행하였다.

조선초기에는 고려시대 때에 유행하였던 국가가 주관하였던 신중 관계 불교 행사가 수차례 열리고 있어 조선 초기까지는 그 명맥을 유지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38)</sup>

조선전기에는 천재지괴(天災地怪)나 무병장수 등과 같은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문제에 관한 한 재래의 불교의 불·보살과 신중들의 가호력에 의지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다.<sup>39)</sup>

결과적으로 신중 관계 불사는 신중의 힘을 빌어 天變과 地變과 같은 재앙을 피해 보고자 하는 성격과, 병을 치유하고자 하는 구병(救病)의 성격, 강복(康福)의 성격이 강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와 다른 점은 주로 외환(外患)의 극복보다는 내우(內憂)의 극복에 주안점을 두었다는 점이 다르다.

양대 전란 이후 17세기부터 조선은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변화는 불교 전반에도 해당하며 신중 신앙이 변모해 가는 계기가 되었다.

성종 때부터 국가 주관 불교 행사가 점차 축소·폐지 되어가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불교 행사나 간경사업 등이 중단되었다. 모든 불교신앙 의례와 간경사업 등은 사찰을 중심으로 행해지기 시작하였고 불교신앙의 주체는 왕실이나 사대부 같은 상류 사회에서 점차 일반 대중으로 바뀌었다.<sup>40)</sup>

37) 김정희, 『신장상』, pp. 17-20.

38) 『태조실록』권3, 2년. 命宿衛士卒,通神衆經消災呪于殿庭.

39) 『태종실록』권6, 3년. 乙亥,設帝釋齋於乾聖寺. 乞命也.

40) 김영태, 『한국불교사개설』, (경서원, 1986), p. 181

일반 대중들은 불교의 철학적이고 심오한 교리나 成佛을 구하는 禪보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기복적인 신앙에 경도되는 성향이 있었다.

불교도들도 이에 맞추어 나가기 시작하였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어 피폐한 생활을 했던 일반 대중들에게 현실적인 불안한 심리에서 타출하기 위한 주술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이 더욱 성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일반 대중들의 심리를 잘 수용할 수 있는 불교의 신앙이 신중 신앙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신중 신앙은 국가옹호에서 개인의 이익과 기복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민간신앙으로서 성행하였던 것이다.

## 2) 신중의 형성배경

신중이 어떠한 배경으로 형성되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신중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즉 신중은 불교의 호법신이며 불교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수용된 것, 그리고 한국의 신중은 화엄신앙과 함께 한다는 것이다.

첫번째로 호법신을 초점에 두고 형성배경을 알아보려고 한다. 신중은 불교가 발생한 인도에서 그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 제석과 범천 등의 천신은 인도의 민속신에서 유래했다고 보았다.<sup>41)</sup> 그러나 인도의 민속신으로서 천신이 개별적인 신에 대한 설명만 있을 뿐 호법이라는 특성을 지닌 신으로써 구분하고 있지 않다.

반면 신중의 ‘호법’적 특성은 중국 불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중국은 대승불교가 완성된 곳이며 많은 경전이 한역(漢譯)된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대승불교 경전에는 ‘호법신(護法神)’이란 이름으로 신중이 존재한다.

그 구체적인 호법신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41) 이 부분은 홍윤식, 『불교의식에 나타난 제신의 성격-신중작법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1, (한국민속학연구회, 1969), 홍윤식, 『불교민속학의 세계』, (집문당, 1996), 한정섭, 『佛敎土着信仰考』, (한국불교학회, 1975), 한정섭·안태희, 『화엄신장』, (불교통신대학, 1994), 문명대, 『한국의 불화』, (설화당, 1977), 고명석·고광영, 『100문100답-불·보살·신중편』하, (대원정사, 1998) 참조.

우선 이십제천(二十諸天)으로 신중의 왕이라 할 수 있는 대범천왕(大梵天王), 제석천왕(帝釋天王)이 있다. 다음으로 4대 천왕인 다문천왕(多聞天王), 지국천왕(持國天王), 증장천왕(增長天王), 광목천왕(廣目天王)이 있다. 그리고 금강밀적(金剛密跡), 마혜수라(摩醯首羅)가 있다. 여기서 마혜수라는 대자재천과 같은 인물이다. 끝으로 산지대장(散脂大將), 대변재천(大辯才天), 대공덕천(大功德天), 위태천신(韋駄天神), 견뢰지신(堅牢地神), 보제수신(菩提樹神), 귀자모신(鬼子母神), 마리지천(摩利支天)이 있으며 일궁천자(日宮天子), 월궁천자(月宮天子), 사가라용(娑伽羅龍), 염마나왕(閻魔羅王)도 포함된다.<sup>42)</sup>

앞에서 살펴본 이십제천 이외에도 많은 신들이 호법신으로 신앙되고 있다. 우선 탁탑리천왕(托塔李天王)은 비사문천왕(毘沙門天王)의 분신(分身)이라 한다. 도교에서 탁탑천왕(托塔天王)이라 하고 전쟁의 신으로 등장한다. 다음으로 나타(哪咤)가 있다. 나타는 비사문천왕의 다섯 번째 아들로 『서유기』에서 손오공과 싸웠던 무장으로 등장한다. 또한 도교에서 중단원수(中壇元帥)로 불린다.<sup>43)</sup>

그리고 사후세계와 관련된 신으로 우두(牛頭), 마면(馬面), 흑무상(黑無常), 백무상(白無常), 지두부인(池頭夫人), 혈하대장군(血河大將軍), 맹파신(孟婆神)등이 있다. 그리고 형합이장(哼哈二將)은 사찰의 입구에서 있는 두 명의 금강역사를 지칭한다.

천계를 대표하는 여덟 명의 신을 말하는 천룡팔부(天龍八部)가 있다. 천룡팔부에는 천신, 즉 범천과 제석천이 이에 속한다. 그리고 용(龍), 야차(夜叉), 건달바(乾闥婆), 아수라(阿修羅), 가루라(伽樓羅), 긴나라(緊那羅), 마후라가(摩喉羅伽)와 나찰(羅刹)이 포함된다.

불교 내에서 재물과 관련된 신들을 모은 불국재신(佛國財神)이 있다. 여기에는 다옥천(多玉天)과 여재신(女財神)이 있다. 다옥천은 다문천왕(多聞天王) 또는 비사문천(毘沙門天)으로 사대천왕 중 북방의 천왕을 가리킨다. 그리고 여재신은 밀교에서 우옥불모(雨玉佛母)라고도 한다. 이 신들에는 재물을 중요하게 여기는 중국의 신앙이 담겨있다.

42) 馬書田, 『中國佛教諸神』, (園結出版社, 1994). pp. 299-301

43) 眞野隆也, 이만옥 번역, 『도교의 신들』, (들녘, 2001), pp. 104-111.

마지막으로 승려를 위한 신으로 계신(戒神)이 있다.<sup>44)</sup>

신중 중 천신은 당대에 번역된 『금강명경』 「귀신품」 근거하여 성립되었다고 한다.<sup>45)</sup> 이 경전은 사천왕신앙의 중심 경전으로, 불교의 가르침과 더불어 천신들이 국가를 수호하고 재앙을 쫓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리고 호법신들은 송대에 자기(仔夔)가 편찬한 『수륙제의문(水陸祭儀文)』(1150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sup>46)</sup>

다음으로 불교의 정착과정 속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위에서 열거한 호법신들이 불교에 수용된 시기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위에서 살펴본 중국의 호법신 중에도 중국의 민속신이 다수 확인되며, 중국의 민간 신앙의 모습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신중의 하단을 형성하고 있는 수많은 신들은 중국의 민간신이며 도교의 신이기도 하다. 이렇듯 불교 속에 도교와 민간신이 공존하는 것은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사상적 배경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에서는 불교와 유교·도교 사이에 끊임없는 대립이 지속되었고 이 대립은 삼교론(三教論)이 형성되면서 화합의 분위기로 바뀌게 된다.<sup>47)</sup>

불교가 민중불교로 자리 잡게 되면서 각 종교의 신들은 불교 내에서도 인정받게 된다. 즉 불교 속에 유교의 사상과 도교의 신들이 수용하게 된 것이다. 이는 수·당시대를 거쳐 송대(宋代) 까지 지속된 중국불교의 흐름이다. 이러한 흐름은 한국불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삼국시대에 최치원(崔致遠, 857~?)에 의해서 삼교론이 제기되었지만 반영되지 못했다.<sup>48)</sup> 이후 고려시대에 보우국사(普愚, 1301~1382)에 의해 삼교론이 다시 거론 되었다.

조선시대에 기화(己和, 1376~1433)와 서산대사(西山休靜, 1520~1604)에 의해 확산되었다.<sup>49)</sup>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고려시대에 『금강명경』·『

44) 馬書田, 『中國佛教諸神』, (園結出版社, 1994).

45) 김정옥, 「조선후기 104위 신중도 도상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46) 오출세, 『한국불교민속문학연구』, (김문당, 2008), p. 120.

47) 석정심, 「中國에 있어서의 儒·佛·道 三教의 交涉」, 『원불교사상』 20, (원광대학교원불교사상연구원, 1996).

48) 광만연, 「최치원의 유·불·도 삼교관 연구」, 『불교연구』24, (한국불교연구원, 2005).

49) 박해당, 「己和의 삼교론」, 『泰東古典研究』 12, (한림대학교부설태동고전연구소, 1995).

송석구, 「西山의 三教會通研究」, 『한국종교』18, (원광대학교종교문제연구소, 1993) 참조.

인왕경』을 비롯한 많은 경전이 중국에서 전래되어 번역이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조선시대에도 계속되었음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1724년에 성능(聖能)이 중국의『수륙제의문』을 수정·보충하여『자기문절차조례(仔夔文節次條例)』를 간행하였다. 이『자기문절차조례』에는 옹호단의 배치와 자기문 목규(目規), 재의 절차가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옹호단에는 제석단, 범천단, 시왕명왕단을 비롯하여 토지가람단, 당산용왕제신단, 당산국사단, 재대산신단 등 10여개의 단이 있다.<sup>50)</sup> 또한 1827년에 정리된 『작법귀감(作法龜鑑)』에는 신중략례, 신중대례, 신중조참작법 등 신중의례가 있어 이제까지와는 달리 여러 신들을 함께 모시는 신중의례가 정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51)</sup> 이러한 불교의 성향은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으며 조선시대에 정례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화엄신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현재 신중신앙의 형성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화엄신앙은 화엄경신앙(華嚴經信仰), 보살주처신앙(菩薩住處信仰), 역대조사승배신앙(歷代祖師崇拜信仰), 화엄신중신앙(華嚴神衆信仰)으로 나눌 수 있다.<sup>52)</sup>

신중신앙이 화엄신앙의 분류에 포함된다는 사실을『화엄경』에 신중의 구체적인 모습이 서술되고 있다는 점과 신중기도 때『화엄경약찬게』를 읊는다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화엄경』은 세 종류가 있다. 우선 불타발타라(佛跋陀羅)가 418년부터 2년에 걸쳐 번역한 60권의『화엄경』이 있고, 다음으로 실차난다(實叉難陀)가 698년에 불수기사(佛授記寺)에서 완성한 80권의『화엄경』이 있다. 끝으로 반야(般若)가 798년에 『화엄경』 입법계품을 번역한 40권의 『화엄경』이 있다.『화엄경』은 565년부터 신라시대에 입당한

50) 오출세, 『한국불교민속문화연구』, (집문당, 2008), p120.

51) 이승희, 「조선후기 신중탱화 도상의 연구」, 『미술사학연구』, (미술사학회, 2001), pp119-120.

52) 화엄경신앙은 『화엄경』을 신앙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다. 그리고 보살주처신앙은 각 방위에 보살이 상주하는 곳이 있다고 믿는 신앙이다. 이것은 오대산에 다섯 개의 방위에 각 보살과 사찰을 지은 것에서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역대조사승배신앙은 화엄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고승들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사찰에 승려의 영정을 모시는 형태로 나타난다.

조남두, 「화엄경을 통해 본 화엄사찰의 배치형식 연구-화엄십찰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승려에 의해서 신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로 나뉘어 전해졌다.

이렇게 전승된 화엄사상은 통일신라시대가 되면 원효(元曉, 617-686)와 의상(義湘, 625-702)에 의해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특히 의상은 화엄교학의 교조로 화엄종을 개종하고 전국에 화엄십찰(華嚴十刹)을 창건하였다. 이후 통일신라말에 가야산에서 화엄학을 대표하는 두 명의 승려가 등장한다.

한 명은 남악파의 관혜(觀慧)로 견훤을 도왔고, 다른 한 명은 북악파의 희랑(希朗)으로 왕건을 도왔다. 이중 희랑은 화엄삼매(華嚴三昧)에 들어가 왕건에게 신병(神兵)을 보내 고려 건국을 도왔다고 전해진다. 이것을 계기로 화엄사상이 왕실 불교계로 전승되었다. 한편 화엄종 북악파는 ‘화엄의 교리와 조직 및 신앙을 강화하여 종단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화엄신중경을 만들고 해인사를 중심으로 신중신앙을 유포하였다’고 한다.<sup>53)</sup> 이렇게 성립된 화엄신중은 왕실 불교 속에서 자리 잡게 되었고, 이후 화엄신중과 관련된 많은 도량이 개설되었다.

또한 균여(均如)는 화엄사상을 근간으로 하여 민간의 신앙을 수용하여 불법을 대중화시켰다. 그리고 균여의 제자인 창운(昶雲)은 “신중경주주(神衆經注主)”라고 할 정도로 화엄신중경을 중요시했던 인물이라 전해온다.<sup>54)</sup>

## 2. 신중의 구성

앞에서 신중은 『화엄경』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신중은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에서 39위의 명호가 기술되어 있다. 그리고 불교의례서인 『작법귀감(作法龜鑑)』(1826)과 『석문의범(釋門儀範)』(1931)에서 104위 신중의 명칭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는 『화엄경』과 『석문의범』에서 볼 수 있는 신중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53) 남동신, 「나말여초 화엄종단의 대응과 화엄신중경의 성립」, (『외대사학』5, 1993)

54) 이승희, 「朝鮮後記 神衆頓畫 圖像研究」,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pp11-13.

## 1) 80 『화엄경』의 신중

『화엄경』 「세주묘엄품(世主妙嚴品)」은 초회의 범보리장회의 서품으로 부처님께서 범보리 도량에서 정각을 이루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여기서 세주(世主)란 보현보살을 비롯한 각종 보살대중과 집금강신을 비롯한 39류 화엄신중 등 총 40종의 권속들을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세주들이 각기 성취한 해탈문의 경계에서 본 부처님 세계를 계승으로 찬탄하여 불세계를 장엄한 것을 「세주묘엄」이라 한다.<sup>55)</sup>

이 품 중 신중에 대해 “신통한 힘을 얻어서 여래를 따라 머물며, 능히 생각하며 의논치 못할 해탈 경계에 들어가며, 여러 회중에 처하여 위엄 빛이 특별히 사무치며, 모든 중생의 응접할 바를 따라 몸을 나투어서 조복 받음을 보이며, 일체 모든 부처님 화현이 계시는 바에 다 교화를 따라가며, 일체 여래의 머무시는 바에 항상 부지런히 수호하였다.”고 하였다. 이처럼 신중은 신통하며 신비로운 힘으로 불법·불보살을 수호하는 존재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39위 신중을 설명<sup>56)</sup>하고 있다.

먼저 집금강신(執金剛神), 신중신(神衆神), 족행신(足行神), 도량신(道場神), 주성신(主城神), 주지신(主地神), 주산신(主山神), 주림신(主林神), 주약신(主藥神), 주가신(주가신), 주하신(主河神), 주해신(主海神), 주수신(主水神), 주화신(主火神), 주풍신(主風神), 주공신(주공신), 주방신(主方神), 주야신(主夜神), 주주신(主晝神)등을 거론하고 있다. 이들은 각기 권속을 거느리고 있으며 불법을 따르고 바른 마음과 지혜를 내며 정진하여 도량을 꾸민다. 다음으로 아수라왕, 가루라왕, 긴나라왕, 마후라가왕, 야차왕, 용왕, 구반다왕, 건달바왕, 월천자, 일천자, 삼십삼천왕, 수야마천왕, 도술

55) 해주스님, 『화엄의 세계』, (민족사, 1998), pp.39-40

56) 60권본(晉本) 『大方廣佛華嚴經』 권제1, 世間淨眼品 제1-1에서는 33위의 화엄신중을 언급하는 것에 비해, 80권본(周本) 『大方廣佛華嚴經』 권제1, 「世主妙嚴品」 제1-1에서는 39위로 늘어난다. 80권본 『화엄경』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그때 그 대중 가운데는 10세계 티끌 수와 같은 보살들이 모여 있었고, 또 거기에는 집금강신을 중심으로 한 신중신, 족행신, 도량신, 성신, 지신, 산신, 임신, 약신, 가신, 하신, 해신, 수신, 화신, 풍신, 공신, 방신, 야신, 주신, 아수라, 가루라, 마후라가, 야차, 용, 구반다, 건달바, 월천자, 일천자, 삼십삼천, 야마천, 도술천(도술타천), 화낙천, 타화자재천, 대법천, 광음천, 변정천, 광과천, 대자재천 등 39위 신장들이 그의 권속들과 함께 모여 와 있었다.”

타천왕, 화락천왕, 타화자재천왕, 대범천왕, 광음천왕, 변정천왕, 광과천왕, 대자재천왕 등은 법을 관찰하고 행하는바가 평등하였다고 한다.

또 신중을 민간의 신으로 ‘세간왕’ 또는 ‘세간군주’라고 지칭하고 있다.

다음은 세간왕에 대한 설명이다.

“이 모든 세간왕이 일일이 다 여러 가지 공양구름을 나타내 여래의 도량 증행에 비추시되 두루 변만치 아니함이 없었다. 이와 같은 세계 가운데에 일일이 세간왕들이 환희심을 내어 이와 같이 공양하되 그 화장 장엄 세계 바다 가운데에 건립된 일체 세계에 있는바, 세간군주들이 다 이와 같이 공양하며 그 일체 세계에 각각 정성을 다하여 신해하며 각각 반연하는 바 생각을 살피며 각각 삼매 방편문이 구축하며 각각 닦아 익히는 조도법이며 각각 성취하는 것이며 각각 환희하는 것이며 각각 들어 지위대로 가는 것이며 각각 모든 범문을 깨쳐서 아는 것이며 각각 여래의 신통경계에 들어가는 것이며 각각 여래의 대비심과 대지력 경계에 들어가는 것이며 각각 여래의 해탈경계에 들어가는 것이 균일하여 가니 각기 법에 이익을 얻어서 마음과 경계가 자재하였다. 이 화장세계 바다와 같아서 시방 진법계와 허공계 일체 세계 바다 가운데에 다 또한 이와 같았다.”<sup>57)</sup>

여기서 신중은 각기 갖고 있는 능력을 발휘하여 여래가 있는 곳을 꾸미고, 불법 수호와 수행을 병행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 80권본 『화엄경』의 목판화(해인사 소장)에는 40신중이라 방기된 경우는 39위 신중으로 고려된다.<sup>58)</sup> 그런데 『화엄경』에서 104위 신중을 들고 있다고 하였으나 이는 39위임을 언급해 둔다.<sup>59)</sup>

또한 고려시대 기록인 『동문선』에서는 1325년 강화도 禪源寺 毘盧殿 동·서벽에 40신중상을 그렸다는 사실을 「禪源寺毘盧殿丹青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sup>60)</sup> 이는 아마도 39위 신중을 대략 40신중이라 한 것으로 보

57) 백용성 번역, 『우리말 대방광불화엄경 上』, (홍법원, 1985). pp. 56-57

58) 장충식, 『고려 화엄판화의 세계』, (아세아 문화사, 1982), p. 25,

59) 장충식, 「불화의 기원과 전개」, 『한국의 불화』1, 통도사 본사편(상), (성보문화재연구원, 1996), p. 262.

60) 『동문선』권65, 記 釋息影庵의 ‘선원사비로전단청기’.

며, 화엄신중은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에도 신중신앙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sup>61)</sup>

해인사에 소장되어 있는 고려대장경 판본 중 화엄 신중을 그린 散板이 전해지고 있고,<sup>62)</sup> 1350년 『대방광불화엄경』 「세주묘엄품」 사경변상도에도 마후라가, 야차왕, 대용왕 등 화엄 신중이 표현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고려 선종 4년(1087)에 宋板에서 찍어내었던 淨源法師의 화엄경주석서 『大方廣佛華嚴經疏 卷41』<sup>63)</sup>이 있다. 그러나 송나라에서 가져온 경 판에는 변상도가 없어 공민왕 21년(1372)에 五冠山 靈通寺에서 새긴 것으로, 이 변상도에도 39위 중 25위의 신중이 표현되어 있다.

이렇듯 『화엄경』에서 화엄신장으로 언급된 (33)39위 신중은 고려시대의 기록과 작품을 통하여 그 존재가 신앙화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104위에 대한 인식은 고려시대에는 아직 싹트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세주묘엄품」에서 볼 수 있는바와 같이 39位신중이 각기 10여명씩 열거하여 390位신중을 穢跡金剛神에서부터 大自在天王까지 그 역할을 설명하면서 나열하고 있다. 「세주묘엄품」에서는 39위 화엄신중의 위계를 분류하고 있지 않지만, 『석문의범』에서는 39위 화엄신중의 위계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① 집금강신(執金剛神)<sup>64)</sup>- 절에 들어가는 문이나 전각의 입구 좌우에서 불법을 수호 하는 신이다.

61) 김정희, 「조선시대 신중탱화의 연구(1)」, 『한국의 불화』4, 해인사 본말사편(상), (성보 문화재연구원, 1997), pp 215-221

62) 박상국, 『전국사찰소장목판집』, (문화재관리국), p,420, 도판 100.

63) 1087년(선종4) 송나라 상인 서전이 가져온 송판(宋板)에서 찍어낸 『화엄경소』120권 중 일부. 『대방광불화엄경』120권은 서역(西域) 우전국 출신의 역경승(譯經僧) 실차난타가 7세기 말, 8세기 초에 번역한 『화엄경』80권본에 대하여, 당의 승려 정관(澄觀, 738~839)이 그 소(疏)를 저술하고, 송의 승려 정원이 다시 이 소에 대하여 상세하게 주해(註解)한 것이다. 『대방광불화엄경소』권41은 120권본 전체 목판에서 14세기에 인출(印出)한 것을 절첩장(折帖裝)의 형태로 제본한 절첩본(折帖本)중에서 그 잔권(殘卷)인 권41만을 절첩본으로 만든 '1권 1축(軸)'의 책이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64) 한정섭·안태희, 『화엄신장』 (화엄통신교육원, 1994), pp.64 -258.

이왕, 이천왕, 금강역사, 밀적금강, 금강수, 지금강, 나라연천, 금강신, 불가월, 상향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부르고 있다.

경에 이르기를 “모두 지나간 옛적 한량없는 겁 동안에 큰 소원을 세우고 여러 부처님을 친근하여 공양하기를 원하였으므로, 그 소원대로 수행함이 원만하여서 이미 저 언덕에 이르렀으며, 끝없이 깨끗한 복을 쌓았고, 모든 삼매로 행할 경계를 모두 통달하였고,神通한 힘을 얻어 여래를 따라 머물며, 부사의한 해탈의 경계에 들어갔고, 여럿이 모인 곳에 있을 적에 위엄과 광명이 우뚝하며, 중생에 따라 마땅한 대로 몸을 나타내어 조복함을 보이며 모든 부처님의 화신이 잇는 곳마다 따라가서 화생하며, 온갖 여래의 머무는 곳에서 항상 부지런히 수호하고 있었다.”<sup>65)</sup>라고 하였다.

② 신중신(身衆神)- 신중신은 10주중 수행주 가운데 제2 인바라밀에 해당된다. 法忍을 성취하여 생사 가운데서 중생을 마음대로 이익 하게 하는 신이다.

경에 이르기를 “모두 지나간 옛적에 큰 소원을 성취하여 온갖 부처님을 공양하고 섬기는 이들이었다.”<sup>66)</sup>라고 하였다.

③ 족행신(足行神)- 족행신은 10주위 중 생귀주 가운데 제4 정진바라밀에 해당한다. 한량없는 세월을 두고 法性眞如를 체로 삼아 여래를 친근 정진함으로서 運身에 자유를 얻은 신이다.

경에 이르기를 “모두 지난 세상 한량없는 겁 동안에 여래를 친근하여 따라 모시고 떠나지 아니한 이었다.”<sup>67)</sup>라고 하였다.

65) 실차난타역, 80『華嚴經』권1『世主妙嚴品』(『大正藏』10, pp.2b13-26). “復有佛世界微塵數執金剛神 所謂妙色那羅延執金剛神 日輪速疾幢執金剛神 須彌華光執金剛神 清淨雲音執金剛神 諸根美妙執金剛神 可愛樂光明執金剛神 大樹雷音執金剛神 師子王光明執金剛神 密焰勝目執金剛神 蓮華光摩尼髻執金剛神…… 如是等而爲上首 有佛世界微塵數 皆於往昔無量劫中恒發大願 願常親近供養諸 隨願所行 已得圓滿 到於彼岸; 積集無邊清淨福業於諸三昧所行之境悉已明達 獲神通力 隨如來住 入不思議解脫境界 處於衆會 威光特達 隨諸衆生所應現身而示調伏 一切諸佛化形所在 皆隨化往 一切如來所住之處 常勤守護.”

66) 실차난타역, 80『華嚴經』권1『世主妙嚴品』(『大正藏』10, pp.2b27-c4). “復有佛世界微塵數身衆神 所謂華髻莊嚴身衆神 光照十方身衆神 海音調伏身衆神 淨華嚴髻身衆神 無量威儀身衆神 最上光嚴身衆神 淨光香雲身衆神 守護攝持身衆神 普現攝取身衆神 不動光明身衆神…… 如是等而爲上首 有佛世界微塵數 皆於往昔成就大願 供養承事一切諸佛.”

67) 실차난타역, 80『華嚴經』권1『世主妙嚴品』(『大正藏』10, pp.2c5-11). “復有佛世界微塵數足行神 所謂寶印手足行神 蓮華光足行神 清淨華髻足行神 攝諸善見足行神 妙寶星幢足行神 樂吐妙音足行神 梅檀樹光足行神 蓮華光明足行神 微妙光明足行神 積集妙華足行神…… 如是等而爲上首 有佛世界微塵數 皆於過去無量劫中 親近如來 隨逐不捨.”

④ 도량신(道場神)- 도량신은 3보의 도량을 지키는 신이다. 화엄경 수행계위를 보면 10주 가운데 구족방편주로서 10도중 제5 선바라밀에 해당한다. 도량은 더러움을 없애는 것이니 선이 능히 6, 7식의 취업을 정화하여 반야를 나타냄으로서 묘한 지혜를 열어 본래 진실한 것을 간택하는 까닭이다. 말하자면 선도로서 도량의 체를 삼고 반야로서 인공을 얻고 만행으로서 짐을 지고 법계보광명전을 운전해 자리이타에 충실한 선행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인 것이다.

경에 이르기를 “모두 지난 세상에 한량없는 부처님을 만나서 소원을 이루고 공양을 많이 차린 이였다.”<sup>68)</sup>라고 하였다.

⑤ 주성신(主城神)- 성을 지키는 신이다.

10주중 정심주에 해당하며 10바라밀 가운데서는 반야바라밀에 상징된다. 선재동자가 도를 구할 때 제 여섯 번째 만난 선지식 해당비구가 이에 해당된다. 해당비구가 정행하다가 길가에서 삼매에 들어 호흡이 정지되자 발에서 장자 거사 바라문 등과 내지 이마에서 여러 부처님들이 나와 광대한 신운으로서 온갖 중생을 교화하는데 이는 10주위중 제6 정심바라밀주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보살들이 불법을 듣고 바른 마음에 안주하여 마음의 성을 수호하였기 때문이다.

경에 이르기를 “모두 한량없는 부사의한 겁 동안에 여래가 계시는 궁전을 장엄하고 깨끗하게 하였다.”<sup>69)</sup>라고 하였다.

⑥ 주지신(主地神)- 땅을 지키는 토지, 대지신이다.

화엄경에서는 제7 부퇴주중 방편바라밀에 해당한다.

경에 이르기를 “모두 지난 옛적에 중대한 원을 세우고 부처님께 항상 친근하면서 복업을 함께 닦기를 원하였다.”<sup>70)</sup>라고 하였다

68) 실차난타역, 80『華嚴經』권1『世主妙嚴品』(『大正藏』10, pp.2c12-18). “復有佛世界微塵數道場神 所謂淨莊嚴幢道場神 須彌寶光道場神 雷音幢相道場神 雨華妙眼道場神 華纓光髻道場神 雨寶莊嚴道場神 勇猛香眼道場神 金剛彩雲道場神 蓮華光明道場神 妙光照耀道場神…… 如是等而爲上首 有佛世界微塵數 皆於過去值無量佛 成就願力 廣興供養.”

69) 실차난타역, 80『華嚴經』권1『世主妙嚴品』(『大正藏』10, pp.2c19-25). “復有佛世界微塵數主城神 所謂寶峯光耀主城神 妙嚴宮殿主城神 清淨喜寶主城神 離憂清淨主城神 華燈焰眼主城神 焰幢明現主城神 盛福光明主城神 清淨光明主城神 香髻莊嚴主城神 妙寶光明主城神…… 如是等而爲上首 有佛世界微塵數 皆於無量不思議劫 嚴淨如來所居宮殿.”

70) 실차난타역, 80『華嚴經』권1『世主妙嚴品』(『大正藏』10, pp.2c26-3a3). “復有佛世界微塵數主地神 所謂普德淨華主地神 堅福莊嚴主地神 妙華嚴樹主地神 普散衆寶主地神 淨目觀

⑦ 주산신(主山神)- 산의 주인이다.

제8 동진주 가운데 원바라밀에 해당된다.

경에 이르기를 “다 모든 법에 청정한 눈을 얻었다.”<sup>71)</sup>라고 하였다.

⑧ 주림신(主林神)- 숲을 지키는 신이다. 산이 이르면 나무가 있고 나무가 있으면 숲이 있는데 그 나무에도 각각 목신이 있지만 그들 나무와 나무를 총괄하는 주림신이 숲속의 왕이다.

주림신은 제9 법왕자위 가운데서 제9 력바라밀에 해당된다.

경에 이르기를 “모두 한량없이 귀여운 광명을 가진 이들이었다.”<sup>72)</sup>라고 하였다.

⑨ 주약신(主藥神)- 약을 주재하는 신이다.

10주 가운데 제10 광정주중 제 10지혜바라밀에 해당된다.

경에 이르기를 “성품이 때를 여의었고 인자하게 중생을 돕는 이었다.”<sup>73)</sup>라고 하였다.

⑩ 주가신(主稼神)- 곡식신이다.

10행 가운데서 제1 환희행 중 제1 보시바라밀에 해당된다.

경에 이르기를 “모두 큰 기쁨을 성취한 이들이었다.”<sup>74)</sup>라고 하였다.

⑪ 주하신(主河神)- 물신이다.

時主地神 妙色勝眼主地神 香毛發光主地神 悅意音聲主地神 妙華旋髻主地神 金剛嚴體主地神…… 如是等而爲上首 有佛世界微塵數 皆於往昔發深重願 願常親近諸佛如來 同修福業.”

71) 실차난타역, 80『華嚴經』권1『世主妙嚴品』(『大正藏』10,p.3a4-9). “復有無量主山神 所謂寶峯開華主山神 華林妙髻主山神 高幢普照主山神 離塵淨髻主山神 光照十方主山神 大力光明主山神 威光普勝主山神 微密光輪主山神 普眼現見主山神 金剛密眼主山神…… 如是等而爲上首 其數無量 皆於諸法得清淨眼.”

72) 실차난타역, 80『華嚴經』권1『世主妙嚴品』(『大正藏』10,pp.3a10-16). “復有不可思議數主林神 所謂布華如雲主林神 擢幹舒光主林神 生芽發耀主林神 吉祥淨葉主林神 垂布焰藏主林神 清淨光明主林神 可意雷音主林神 光香普遍主林神 妙光迴耀主林神 華果光味主林神…… 如是等而爲上首 不思議數 皆有無量可愛光明.”

73) 실차난타역, 80『華嚴經』권1『世主妙嚴品』(『大正藏』10, pp.3a17-22). “復有無量主藥神 所謂吉祥主藥神 梅檀林主藥神 清淨光明主藥神 名稱普聞主藥神 毛孔光明主藥神 普治清淨主藥神 大發吼聲主藥神 蔽日光幢主藥神 明見十方主藥神 益氣明目主藥神…… 如是等而爲上首 其數無量 性皆離垢 仁慈祐物.”

74) 실차난타역, 80『華嚴經』권1『世主妙嚴品』(『大正藏』10, pp.3a23-28). “復有無量主稼神 所謂柔軟勝味主稼神 時華淨光主稼神 色力勇健主稼神 增長精氣主稼神 普生根果主稼神 妙嚴環髻主稼神 潤澤淨華主稼神 成就妙香主稼神 見者愛樂主稼神 離垢淨光主稼神…… 如是等而爲上首 其數無量 莫不皆得大喜成就.”

화엄신중의 물신에는 하신 이외에도 우물신과 수신, 바다신, 강신, 등 몇 분의 물신이 있다. 이 가운데 수신 이외에는 모두가 물이 고여 있는 환경을 따라 우물, 강, 바다 등으로 지어진 것인데 이곳의 하신은 곧 하천신을 뜻한다.

경에 이르기를 “모두 부지런히 마음 써서 중생을 이롭게 하였다.”<sup>75)</sup> 라고 하였다.

⑫ 주해신(主海神)- 바다신이다.

10행중 제3 무변행으로 여기도 10바라밀을 상징한다.

경에 이르기를 “모두 여래의 큰 공덕바다로 그 몸을 가득히 하였다.”<sup>76)</sup>라고 하였다.

⑬ 주수신(主水神)- 주수신은 물신으로 제4 무굴요행에 해당한다. 물은 생명력과 풍요의 원리로서 정화의 힘을 가짐으로써 독특한 종교적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 풍요의 원리는 용왕으로 일컬어지고 용신 용왕은 용으로 관념화된 물신이 되었다.

경에 이르기를 “항상 부지런히 모든 중생을 구호하여 이익케 하는 이었다.”<sup>77)</sup> 라고 하였다.

⑭ 주화신(主火神)- 불을 담당하는 신이다. 10행중 제5 무치난행에 해당한다.

불은 어두움을 밝혀주는 수단으로서도 중요하였고 또한 추위로부터 인간을 조종하는 열량으로서 중요한 구실을 하였다. 또 음식물을 조리하고 흙을 빚어 굽고 쇠붙이를 녹여 가공함으로써 인간에게 갖가지 상상력과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75) 실차난타역, 80『華嚴經』권1『世主妙嚴品』(『大正藏』10, pp.3a29-b5). “復有無量主河神 所謂普發迅流主河神 普潔泉澗主河神 離塵淨眼主河神 十方遍吼主河神 救護衆生主河神 無熱淨光主河神 普生歡喜主河神 廣德勝幢主河神 光照普世主河神 海德光明主河神……如是等而爲上首 有無量數 皆勤作意利益衆生.”

76) 실차난타역, 80『華嚴經』권1『世主妙嚴品』(『大正藏』10, pp.3b6-12). “復有無量主海神 所謂出現寶光主海神 成金剛幢主海神 遠塵離垢主海神 普水宮殿主海神 吉祥寶月主海神 妙華龍髻主海神 普持光味主海神 寶焰華光主海神 金剛妙髻主海神 海潮雷聲主海神……如是等而爲上首 其數無量 悉以如來功德大海充滿其身.”

77) 실차난타역, 80『華嚴經』권1『世主妙嚴品』(『大正藏』10, pp.3b12-18). “復有無量主水神 所謂普興雲幢主水神 海潮雲音主水神 妙色輪髻主水神 善巧漩復主水神 離垢香積主水神 福橋光音主水神 知足自在主水神 淨喜善音主水神 普現威光主水神 吼音遍海主水神……如是等而爲上首 其數無量 常勤救護一切衆生而爲利益.”

경에 이르기를 “모두 가지 각색 광명을 나타내어 중생들로 하여금 뜨거운 번뇌를 제멸케 하는 이들이었다.”<sup>78)</sup> 라고 하였다.

⑮ 주풍신(主風神)- 바람을 주관하는 신이다. 제6 선현행에 해당한다.

경에 이르기를 “교만한 마음을 부지런히 없애는 이들이었다.”<sup>79)</sup> 라고 하였다.

⑯ 주공신(主空神)- 허공신이다. 10행 가운데 제7 무착행에 해당한다. 허공은 텅텅 비어있으면서도 온갖 것을 다 포용하고 색도 없고 모양도 없고 근중도 달수 없고 길이도 잴 수 없어 사람의 마음에 많이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다.

경에 이르기를 “마음에는 모두 따가 없어 넓고 크고 밝고 조출하였다.”<sup>80)</sup>라고 하였다.

⑰ 주방신(主方神)- 방향을 수호하는 신이다. 화엄경에서는 10행 가운데 제8 난득행으로 방향신을 들었다.

경에 이르기를 “능히 방편으로 광명을 널리 놓아 시방을 비추는 일이 언제나 계속하여 끊어지지 아니하였다.”<sup>81)</sup> 라고 하였다.

⑱ 주야신(主夜神)- 밤을 창조하고 지키는 신이다. 주야신은 10행중 제7 선법행에 해당한다.

경에 이르기를 “모두 부지런히 닦아 익혀 법으로써 낙을 삼는 이들이었다.”<sup>82)</sup>라고 하였다.

---

78) 실차난타역, 80『華嚴經』권1『世主妙嚴品』(『大正藏』10, pp.3b18-25). “復有無數主火神 所謂普光焰藏主火神 普集光幢主火神 大光普照主火神 衆妙宮殿主火神 無盡光髻主火神 種種焰眼主火神 十方宮殿如須彌山主火神 威光自在主火神 光明破暗主火神 雷音電光主火神…… 如是等而爲上首 不可稱數 皆能示現種種光明 令諸衆生熱惱除滅.”

79) 실차난타역, 80『華嚴經』권1『世主妙嚴品』(『大正藏』10, pp.3,b26-c2). “復有無量主風神 所謂無礙光明主風神 普現勇業主風神 飄擊雲幢主風神 淨光莊嚴主風神 力能竭水主風神 大聲遍吼主風神 樹杪垂髻主風神 所行無礙主風神 種種宮殿主風神 大光普照主風神…… 如是等而爲上首 其數無量 皆勤散滅我慢之心.”

80) 실차난타역, 80『華嚴經』권1『世主妙嚴品』(『大正藏』10, p.3,c3-8). “復有無量主空神 所謂淨光普照主空神 普遊深廣主空神 生吉祥風主空神 離障安住主空神 廣步妙髻主空神 無礙光焰主空神 無礙勝力主空神 離垢光明主空神 深遠妙音主空神 光遍十方主空神…… 如是等而爲上首 其數無量 心皆離垢 廣大明潔.”

81) 실차난타역, 80『華嚴經』권1『世主妙嚴品』(『大正藏』10, pp.3,c9-15). “復有無量主方神 所謂遍住一切主方神 普現光明主方神 光行莊嚴主方神 周行不礙主方神 永斷迷惑主方神 普遊淨空主方神 大雲幢音主方神 髻目無亂主方神 普觀世業主方神 周遍遊覽主方神…… 如是等而爲上首 其數無量 能以方便 普放光明 恒照十方 相續不絕.”

①9 주주신(主晝神)- 낮을 주관하는 신이다. 10행중 제10 진실행에 해당한다.

경에 이르기를 “다 묘한 법을 믿고 알며 항상 함께 정근하여 궁전을 엄숙하게 꾸미었다.”<sup>83)</sup>라고 하였다

②0 아수라왕(阿修羅王)

인도신화에서 多面, 多臂, 즉 얼굴도 많고 팔도 많은 악신으로 묘사되었으며, 불교에 귀의하여 선신으로 변신하였다. 손에 병장기를 든 모습으로 묘사한다.

경에 이르기를 “모두 부지런히 정진하여 아만과 번뇌를 항복 받은 이들이었다.”<sup>84)</sup>라고 하였다.

②1 가루라왕(加樓羅王)

새벽 또는 태양을 인격화한 신화적인 새로서 金翅鳥라고도 부른다. 용을 잡아먹으며, 사람의 몸에 새의 머리로 묘사한다.

경에 이르기를 “모두 큰 방편의 힘을 성취하고 모든 중생들을 잘 구호하여 붙들어 주는 이었다.”<sup>85)</sup> 라고 하였다.

②2 긴나라왕(緊那羅王)

가무의 신으로써 사람 머리에 새의 몸, 또는 말머리에 사람 몸을 하는 등 그 형상이 일정하지 않다.그래서 경전에 등장하는 소위 人非人으로서

---

82) 실차난타역, 80『華嚴經』권1『世主妙嚴品』(『大正藏』10, pp.3,c16-21). “復有無量主夜神 所謂普德淨光主夜神 喜眼觀世主夜神 護世精氣主夜神 寂靜海音主夜神 普現吉祥主夜神 普發樹華主夜神 平等護育主夜神 遊戲快樂主夜神 諸根常喜主夜神 出生淨福主夜神……如是等而爲上首 其數無量 皆勤修習 以法爲樂.”

83) 실차난타역, 80『華嚴經』권1『世主妙嚴品』(『大正藏』10, pp.3,c22-28). “復有無量主晝神 所謂示現宮殿主晝神 發起慧香主晝神 樂勝莊嚴主晝神 香華妙光主晝神 普集妙藥主晝神 樂作喜目主晝神 普現諸方主晝神 大悲光明主晝神 善根光照主晝神 妙華嬰珞主晝神……如是等而爲上首 其數無量 皆於妙法能生信解 恒共精勤嚴飾宮殿.”

84) 실차난타역, 80『華嚴經』권1『世主妙嚴品』(『大正藏』10, pp.3,c29-4,a6). “復有無量阿脩羅王 所謂羅睺阿脩羅王 毘摩質多羅阿脩羅王 巧幻術阿脩羅王 大眷屬阿脩羅王 大力阿脩羅王 遍照阿脩羅王 堅固行妙莊嚴阿脩羅王 廣大因慧阿脩羅王 出現勝德阿脩羅王 妙好音聲阿脩羅王……如是等而爲上首 其數無量 悉已精勤摧伏我慢及諸煩惱.”

85) 실차난타역, 80『華嚴經』권1『世主妙嚴品』(『大正藏』10, pp.4,a7-14). “復有不可思議數迦樓羅王 所謂大速疾力迦樓羅王 無能壞寶髻迦樓羅王 清淨速疾迦樓羅王 心不退轉迦樓羅王 大海處攝持力迦樓羅王 堅固淨光迦樓羅王 巧嚴冠髻迦樓羅王 普捷示現迦樓羅王 普觀海迦樓羅王 普音廣目迦樓羅王……如是等而爲上首 不思議數 悉已成就大方便力 善能救攝一切衆生.”

사람이지 짐승인지 일정치 않은 형태이다.

경에 이르기를 “모두 부지런히 정진하여 온갖 법을 관찰하고 마음이 항상 쾌락하여 자재하게 유희하는 이들이었다.”<sup>86)</sup> 라고 하였다.

㉓ 마후라가왕(摩喉羅迦王)

사람의 몸에 뱀의 머리를 가진 음악의 신, 땅속의 모든 요귀를 쫓아내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경에 이르기를 “모두 넓고 큰 방편을 부지런히 닦아 중생들로 하여금 어리석은 그물을 영원히 끊게 하는 이들이었다.”<sup>87)</sup>라고 하였다.

㉔ 야차왕(夜叉王)

고대인도 신화에서 어린이를 잡아먹는 악신이었으나, 부처님께 조복되어 인간을 도와 이익을 주고 불법을 수호하는 신이 되었다. 一頭三面의 창·칼·활 등을 가진 모습으로 묘사된다.

경에 이르기를 “모두 부지런히 온갖 중생들을 수호하는 이들이었다.”<sup>88)</sup>라고 하였다.

㉕ 용왕(龍王)

물 속에 살면서 바람과 비를 오게 하는 능력을 가진 신으로 호국의 선신이자 팔대용신의 총칭이다. 용의 머리와 인간의 몸으로 묘사된다.

경에 이르기를 “모두 부지런히 노력하여 구름을 일으키고 비를 내려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번뇌를 소멸케 하는 이들이었다.”<sup>89)</sup>라고 하였다.

86) 실차난타역, 80『華嚴經』권1「世主妙嚴品」(『大正藏』10, pp.4,a15-21). “復有無量緊那羅王 所謂善慧光明天緊那羅王 妙華幢緊那羅王 種種莊嚴緊那羅王 悅意吼聲緊那羅王 寶樹光明緊那羅王 見者欣樂緊那羅王 最勝光莊嚴緊那羅王 微妙華幢緊那羅王 動地力緊那羅王 攝伏惡衆緊那羅王…… 如是等而爲上首 其數無量 皆勤精進 觀一切法 心恒快樂 自在遊戲.”

87) 실차난타역, 80『華嚴經』권1「世主妙嚴品」(『大正藏』10, pp.4,a22-29). “復有無量摩睺羅伽王 所謂善慧摩睺羅伽王 清淨威音摩睺羅伽王 勝慧莊嚴髻摩睺羅伽王 妙目主摩睺羅伽王 如燈幢爲衆所歸摩睺羅伽王 最勝光明幢摩睺羅伽王 師子臆摩睺羅伽王 衆妙莊嚴音摩睺羅伽王 須彌堅固摩睺羅伽王 可愛樂光明摩睺羅伽王…… 如是等而爲上首 其數無量 皆勤修習廣大方便 令諸衆生永割癡網.”

88) 실차난타역, 80『華嚴經』권1「世主妙嚴品」(『大正藏』10, pp.4, b1-6). “復有無量夜叉王 所謂毘沙門夜叉王 自在音夜叉王 嚴持器仗夜叉王 大智慧夜叉王 焰眼主夜叉王 金剛眼夜叉王 勇健臂夜叉王 勇敵大軍夜叉王 富資財夜叉王 力壞高山夜叉王…… 如是等而爲上首 其數無量 皆勤守護一切衆生.”

89) 실차난타역, 80『華嚴經』권1「世主妙嚴品」(『大正藏』10, pp.4,b7-12). “復有無量諸大龍王 所謂毘樓博叉龍王 娑竭羅龍王 雲音妙幢龍王 焰口海光龍王 普高雲幢龍王 德叉迦龍王

㉔ 구반다왕(鳩槃荼王)

사람의 정기를 빨아먹는 귀신이다. 남방증장천왕이 거느리는 鬼로서 주로 아귀중을 없애는 귀신이다.

경에 이르기를 “모두 걸림없는 범문을 부지런히 닦아 큰 광명을 놓는 이들이었다.”<sup>90)</sup>라고 하였다.

㉕ 건달바왕(乾撻波王)

인도신화에서는 천상의 신성한 물 소마(Soma)를 지키는 신, 그 소마는 신령스런 약으로 알려져 왔으므로 건달바는 훌륭한 의사이기도 하며, 향만 먹으므로 食香이라고도 한다. 주로 악기를 든 주악신의 모습으로 표현된다.

경에 이르기를 “모두 큰 법에 깊은 신심을 내고 환희하고 존중하며, 부지런히 닦고 게으르지 않은 이들이었다.”<sup>91)</sup>라고 하였다.

㉖ 월천자(月天子)- 달을 담당하는 신이다.

몸과 마음에 일이 일어나면 그 밝은 빛으로 깨달음을 얻게 하여 세계를 정화한다. 지혜광명은 어리석음을 퇴하고 이치를 들어나게 하므로 흑장을 없앤다.

경에 이르기를 “모두 부지런히 중생의 마음 보배를 드러내는 이들이었다.”<sup>92)</sup>라고 하였다.

㉗ 일천자(日天子)- 해의 신이다. 해란 태양계의 중심인 고운의 기체로서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항성을 말하는데 한자어로는 중근공과 같다 하

無邊步龍王 清淨色龍王 普運大聲龍王 無熱惱龍王…… 如是等而爲上首 其數無量 莫不勤力興雲布雨 令諸衆生熱惱消滅.”

90) 실차난타역, 80『華嚴經』권1「世主妙嚴品」(『大正藏』10, pp.4,b13-20). “復有無量鳩槃荼王 所謂增長鳩槃荼王 龍主鳩槃荼王 善莊嚴幢鳩槃荼王 普饒益行鳩槃荼王 甚可怖畏鳩槃荼王 美目端嚴鳩槃荼王 高峯慧鳩槃荼王 勇健臂鳩槃荼王 無邊淨華眼鳩槃荼王 廣大天面阿脩羅眼鳩槃荼王…… 如是等而爲上首 其數無量 皆勤修學無礙法門 放大光明.”

91) 실차난타역, 80『華嚴經』권1「世主妙嚴品」(『大正藏』10, pp.4,b21-27). “復有無量乾闥婆王 所謂持國乾闥婆王 樹光乾闥婆王 淨目乾闥婆王 華冠乾闥婆王 普音乾闥婆王 樂搖動妙目乾闥婆王 妙音師子幢乾闥婆王 普放寶光明乾闥婆王 金剛樹華幢乾闥婆王 樂普現莊嚴乾闥婆王…… 如是等而爲上首 其數無量 皆於大法深生信解 歡喜愛重 勤修不倦.”

92) 실차난타역, 80『華嚴經』권1「世主妙嚴品」(『大正藏』10, pp.4,b28-c4). “復有無量月天子 所謂月天子華王髻光明天子 衆妙淨光明天子 安樂世間心天子 樹王眼光明天子 示現清淨光天子 普遊不動光天子 星宿王自在天子 淨覺月天子 大威德光明天子…… 如是等而爲上首 其數無量 皆勤顯發衆生心寶.”

여 태양이라 한다.

경에 이르기를 “모두 부지런히 닦아 익혀 중생을 이롭게 하며 선근을 증장케 하는 이들이었다.”<sup>93)</sup>라고 하였다.

⑩ 제석천왕(帝釋天王)

三十三天 도리천을 말한다. 이 천은 妙高山 즉 수미산 봉우리를 중심으로 4방에 각각 8대왕이 있는데 그 가운데 삶으로 4\*8=32천에 중앙의 제석을 합하면 33천이 된다. 제석천을 갖추어 말한다면 석가제환인드라이다. 석가는 能의 뜻이고 제환은 天의 뜻이며 인드라는 주인이란 뜻이다.

경에서 이르기를 “모두 온갖 세간의 넓고 큰 사업을 일으키는 이들이었다.”<sup>94)</sup>라고 하였다.

⑪ 야마천왕(夜摩天王)

數夜摩天이다. 數는 善妙이고 夜摩는 時이니 善時分天이라 부르기도 한다. 선근을 닦아서 마음의 때를 다 버리게 하고, 중생들의 걱정과 번뇌를 여의게 한다. 이곳에는 해와 달이 없고 하늘빛이 스스로 비춰서 밤과 낮을 나누지 않되 赤白의 연꽃이 피고 지는 것으로서 時分을 삼아 즐거움을 맛봄으로써 時分天이라 한다.

10지 가운데 제2 이구지로서 계바라밀에 해당되는데 바늘이 허공을 의지하여 여러 가지 묘한 즐거움이 있는 것 같이 계바라밀을 통하여 법의 묘한 즐거움을 얻는다.

경에서 이르기를 “모두 자재한 방편과 넓고 큰 법문을 부지런히 닦아 익힌 이들이었다고 다.”<sup>95)</sup>라고 하였다.

⑫ 도솔타천왕(兜率陀天王)

93) 실차난타역, 80『華嚴經』권1『世主妙嚴品』(『大正藏』10, pp.4, c5-11). “復有無量日天子 所謂日天子光焰眼天子 須彌光可畏敬幢天子 離垢寶莊嚴天子 勇猛不退轉天子 妙華纓光明天子 最勝幢光明天子 寶髻善光明天子 光明眼天子 持勝德天子 普光明天子…… 如是等而爲上首 其數無量 皆勤修習 利益衆生 增其善根.”

94) 실차난타역, 80『華嚴經』권1『世主妙嚴品』(『大正藏』10, pp.4, c12-18). “復有無量三十三天王 所謂釋迦因陀羅天王 普稱滿音天王 慈目寶髻天王 寶光幢名稱天王 發生喜樂髻天王 可愛樂正念天王 須彌勝音天王 成就念天王 可愛樂淨華光天王 智日眼天王 自在光明能覺悟天王…… 如是等而爲上首 其數無量 皆勤發起一切世間廣大之業.”

95) 실차난타역, 80『華嚴經』권1『世主妙嚴品』(『大正藏』10, pp.4, c19-24). “復有無量須夜摩天王 所謂善時分天王 可愛樂光明天王 無盡慧功德幢天王 善變化端嚴天王 總持大光明天王 不思議智慧天王 輪臍天王 光焰天王 光照天王 普觀察大名稱天王…… 如是等而爲上首 其數無量 皆勤修習廣大善根 心常喜足.”

喜足天이다. 뜻이 꼭 맞으므로喜, 더 이상 구할 것이 없이 만족함을 느끼므로 足이라 한다. 기쁨과 만족을 가진 하늘로, 忍辱해서 三學을 닦아야 태어나는 곳이다. 諸佛이 이곳에 태어난 뒤 장차 다시 태어나면 법계를 따라 화엄을 선양한다.

10지중 제13 발광지에 해당되는데 보살로서는 최후신을 얻은 곳이다.

경에서 이르기를 “모두 여러 부처님의 명호를 부지런히 기억하는 이들이었다.”<sup>96)</sup>라고 하였다.

### ㉓ 화락천왕(化樂天王)

화락의 化는 자기의 거치른 것을 변화하는 것이다. 樂은 모든 것을 바로 즐거움의 도구로 삼아 자신의 오락으로 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천은 자기의 즐거움을 누릴 뿐 남의 즐거움은 버리지 아니하므로 善化天이라 한다.

이곳은 제4 염해지이다. 화락의 化는 자기의 거치른 것은 변화하는 것이다. 樂은 모든 것을 바로 즐거움의 도구로 삼아 자신의 즐거움으로 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천은 자기의 즐거움을 누릴 뿐 남의 즐거움은 바라지 아니하므로 선화천이라 하나 다음에 나오는 타화자재천은 남의 즐거움을 자기 즐거움으로 만듦으로 타화자재가 된다.

경에 이르기를 “모든 중생을 조복하여 해탈케 하는 이들이었다.”<sup>97)</sup>라고 하였다.

### ㉔ 타화자재천왕(他化自在天王)

자기경계 뿐아니라 남의 경계까지도 즐겁게 만들어주는 천왕이다. 이 왕이 欲계의 맨 꼭대기에 있어서 欲의 경계를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것이다.

10지중 난승지에 해당된다. 이 왕은 욕계의 맨 꼭대기에 있어서 욕의

96) 실차난타역, 80『華嚴經』권1「世主妙嚴品」(『大正藏』10, pp.4,c25-p. 5,a1). “復有不可思議數兜率陀天王 所謂知足天王 喜樂海髻天王 最勝功德幢天王 寂靜光天王 可愛樂妙目天王 寶峯淨月天王 最勝勇健力天王 金剛妙光明天王 星宿莊嚴幢天王 可愛樂莊嚴天王…… 如是等而爲上首 不思議數 皆勤念持一切諸佛所有名號.”

97) 실차난타역, 80『華嚴經』권1「世主妙嚴品」(『大正藏』10, pp.5,a2-7). “復有無量化樂天王 所謂善變化天王 寂靜音光明天王 變化力光明天王 莊嚴主天王 念光天王 最上雲音天王 衆妙最勝光天王 妙髻光明天王 成就喜慧天王 華光髻天王 普見十方天王…… 如是等而爲上首 其數無量 皆勤調伏一切衆生 令得解脫.”

경계를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것이다.

경에서 이르기를 “모두 광대한 범문에 머물러 있으면서 모든 세간에서 이익을 짓는 이들이었다.”<sup>98)</sup>라고 하였다.

㉔ 대범천왕(大梵天王)

인도의 브라만교에서 만유의 근원인 브라만을 신격화한 우주의 창조신으로서 비슈누, 시바와 함께 3대신으로 불리운다. 불교에서는 석가모니에 귀의한 자가 되어 부처에게 설법을 청하고 항상 그 설법의 자리에 참석하여 법을 듣고, 또 제석천과 함께 불법 수호의 역할을 맡고 있다.

경에서 이르기를 “모두 큰 자비를 갖추고 중생을 가엾이 여기며 빛을 퍼서 널리 비치어 쾌락을 얻게 하는 이들이었다.”<sup>99)</sup>라고 하였다.

㉕ 무량광천왕(無量光天王)

색계 제2 선중 3천이다. 이곳에는 尋伺<sup>100)</sup>가 없고 오직 업으로 광명을 나투어 의사를 소통한다. 자타의 모든 것을 관하고 染淨二障을 흰히 밝히니 마치 진금으로 온갖 보배와 함께 장식하는 것 같다.

경에 이르기를 “모두 넓고 큰 선근을 부지런히 닦아 마음이 항상 기쁘고 만족한 이들이었다.”<sup>101)</sup>라고 하였다.

㉖ 변정천왕(遍淨天王)

모두 광대범문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모든 세간에 이익을 짓되, 기쁨까지도 여의어서 몸과 마음이 두루 깨끗한 까닭에 그렇게 이름한 것이다.

이곳은 제 8부동지로서 이 하늘에는 근심과 걱정이 없고 오직 선열만

98) 실차난타역, 80『華嚴經』권1『世主妙嚴品』(『大正藏』10, pp.5,a8-13). “復有無數他化自在天王 所謂得自在天王 妙目主天王 妙冠幢天王 勇猛慧天王 妙音句天王 妙光幢天王 寂靜境界門天王 妙輪莊嚴幢天王 華藥慧自在天王 因陀羅力妙莊嚴光明天王…… 如是等而爲上首 其數無量 皆勤修習自在方便廣大法門.”

99) 실차난타역, 80『華嚴經』권1『世主妙嚴品』(『大正藏』10, pp.5,a8-13). “復有無數他化自在天王 所謂得自在天王 妙目主天王 妙冠幢天王 勇猛慧天王 妙音句天王 妙光幢天王 寂靜境界門天王 妙輪莊嚴幢天王 華藥慧自在天王 因陀羅力妙莊嚴光明天王…… 如是等而爲上首 其數無量 皆勤修習自在方便廣大法門.”

100) 심과 사. 소송의 아비달마에 있어서 부정법 중 두 개의 심소(心所). 심(尋)은 대상을 대충 생각하는 것이고, 사(伺)는 대상을 세밀히 고찰하는 것, 구역에서는 각관(覺觀)이 라고함.

101) 실차난타역, 80『華嚴經』권1『世主妙嚴品』(『大正藏』10, pp.5,a20-25). “復有無量光音天王 所謂可愛樂光明天王 清淨妙光天王 能自在音天王 最勝念智天王 可愛樂清淨妙音天王 善思惟音天王 普音遍照天王 甚深光音天王 無垢稱光明天王 最勝淨光天王…… 如是等而爲上首 其數無量 皆住廣大寂靜喜樂無礙法門.”

있을 뿐이다.

경에 이르기를 “모두 광대한 법문에 머물러 있으면서 모든 세간에서 이익을 짓는 이들이었다.”<sup>102)</sup>라고 하였다.

㉞ 광과천왕(廣果天王)

색계 18천 가운데 제4선 제9천중 제3천을 말한다. 이 하늘은 出入息이 없어서 三災가 미치지 못한다. 寂靜法門으로써 궁전을 짓고, 善慧解脫法을 얻어 장엄한 百千阿僧祇 다라니문인 법보궁전으로써 중생을 교화한다. 廣果天은 작은 일을 해도 결과가 크고 넓게 나타나는 곳이다.

경에 이르기를 “모두 고요한 법으로 궁정을 삼고 그 가운데 편안히 있는 이들이었다.”<sup>103)</sup>라고 하였다.

㉟ 대자재천왕(大自在天王)

3계에서 가장 자재한 천이기 때문에 摩醯首羅天이라 부른다. 대지도론에서는 “3臂 3目に 흰소를 타고 흰 불자를 들고 한 생각 가운데 3천 대천 세계에서 내리는 비를 다 헤아린다.” 하였다. 여기에 無煩, 無熱, 善現, 善見, 色究竟의 5天이 있다. 이 천을 지나서 보살이 거쳐하는 대자재천이 있는데 이를 통해서 淨居天이라 한다. 그러므로 이 천은 3乘의 정토인 동시에 10지보살<sup>104)</sup>의 報處가 된다.

경에 이르기를 “모두 형상 없는 법을 부지런히 관찰하여 행하는 바가 평등하였다.”<sup>105)</sup>라고 하였다.

이상으로 80『화엄경』「세주묘엄품」에 나오는 39위 신중을 모두 소개하

102) 실차난타역, 80『華嚴經』권1「世主妙嚴品」(『大正藏』10, pp.5,a26-b3). “復有無量遍淨天王 所謂清淨名稱天王 最勝見天王 寂靜德天王 須彌音天王 淨念眼天王 可愛樂最勝光照天王 世間自在主天王 光焰自在天王 樂思惟法變化天王 變化幢天王 星宿音妙莊嚴天王…… 如是等而爲上首 其數無量 悉已安住廣大法門 於諸世間動作利益.”

103) 실차난타역, 80『華嚴經』권1「世主妙嚴品」(『大正藏』10, pp.5,b4-b9). “復有無量廣果天王 所謂：愛樂法光明幢天王 清淨莊嚴海天王 最勝慧光明天王 自在智慧幢天王 樂寂靜天王 普智眼天王 樂旋慧天王 善種慧光明天王 無垢寂靜光天王 廣大清淨光天王…… 如是等而爲上首 其數無量 莫不皆以寂靜之法而爲宮殿安住其中.”

104) 보살의 수행단계 52위 중 제 41위에서 52위까지의 사이에 있는 보살, 보살로써 최고의 경지에 도달한자.

105) 실차난타역, 80『華嚴經』권1「世主妙嚴品」(『大正藏』10, pp.5,b10-16). “復有無數大自在天王 所謂妙焰海天王 自在名稱光天王 清淨功德眼天王 可愛樂大慧天王 不動光自在天王 妙莊嚴眼天王 善思惟光明天王 可愛樂大智天王 普音莊嚴幢天王 極精進名稱光天王…… 如是等而爲上首 不可稱數 皆勤觀察無相之法 所行平等.”

였다.

『화엄경』에 등장하는 39위 호법신중을 중심으로 구성된 그림이 39화엄 신중탱이다. 이러한 39위 신중의 위치와 신력을 이미 정리된 연구성과<sup>106)</sup>를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았다.

## 2) 『석문의범』

신중의 구체적인 명칭은 『석문의범』에 실린 39위 신중과 104위 신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는 신중을 상·중·하로 구분하였다. 이런 삼단구분법은 신중탱에서도 볼 수 있다. 그러면 『석문의범』에 보이는 39위 신중과 104위 신중을 살펴보기로 한다.

『석문의범』에서는 이들 39위 모든 신중을 삼단으로 나누어 奉請하고 있으며,<sup>107)</sup> 『화엄경』에서 밝힌 그들의 神力을 법에 맞추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1) 39位신중 3단구성

#### 가) 상단[欲色諸天衆]

상단에는 천계의 왕에 대해서 나열되어 있다.

- ① 대자재천왕(大自在天王) - 법운지
- ② 광과천왕(廣果天王) - 선혜지
- ③ 변정천왕(遍淨天王) - 부동지
- ④ 무량광천왕(無量光天王) - 원행지
- ⑤ 대범천왕(大梵天王) - 현전지
- ⑥ 타화자재천왕(他化自在天王) - 난승지
- ⑦ 화락천왕(化樂天王) - 염혜지
- ⑧ 도솔타천왕(兜率陀天王) - 발광지

106) 한정섭·안태희 공저, 『불교신장연구』(화엄신중을 중심으로), (한국불교통신대학교 대학원, 1992), pp.64-265

107) 안진호편, 『석문의범』, pp.65-68.

- ⑨ 야마천왕(夜摩天王) - 이구지
  - ⑩ 제석천왕(帝釋天王) - 환희지
  - ⑪ 일천자(日天子)- 범계무량회향
  - ⑫ 월천자(月天子)- 무염무착회향
- 이상은 모두 욕계·색계에 있는 천왕들이다.

나) 중단[八部鬼衆]

천계의 왕이 거느리고 있는 무리, 즉 장군에 해당한다.

- ⑬ 건달바왕(乾撻波王) - 진여상회향
  - ⑭ 구반다왕(鳩槃荼王) - 수순중생회향
  - ⑮ 용왕(龍王) - 평등회향
  - ⑯ 야차왕(夜叉王) - 무진공덕장회향
  - ⑰ 마후라가왕(摩喉羅迦王) - 지일체처회향
  - ⑱ 긴나라왕(緊那羅王). - 등일체처회향
  - ⑲ 가루라왕(加樓羅王) - 불괴회향
  - ⑳ 아수라왕(阿修羅王) - 구호일체중생회향
- 이상은 8부 4왕중이다.

다) 하단[十九靈祇神衆]

민속의 신들로 자연신이 중심을 이룬다.

- ㉑ 주주신(主晝神) - 진실행
- ㉒ 주야신(主夜神) - 선법행
- ㉓ 주방신(主方神) - 난득행
- ㉔ 주공신(主空神) - 무착행
- ㉕ 주풍신(主風神) - 선현행
- ㉖ 주화신(主火神) - 무치난행
- ㉗ 주수신(主水神) - 무굴요행
- ㉘ 주해신(主海神) - 무변행
- ㉙ 주하신(主河神) - 요익행
- ㉚ 주가신(主稼神) - 환희행

- ㉑ 주약신(主藥神) - 관정주
- ㉒ 주림신(主林神) - 범왕자주
- ㉓ 주산신(主山神) - 동진주
- ㉔ 주지신(主地神) - 불퇴주
- ㉕ 주성신(主城神) - 정심주
- ㉖ 도량신(道場神) - 구족방편주
- ㉗ 족행신(足行神) - 생귀주
- ㉘ 신중신(身衆神) - 수행주
- ㉙ 집금강신(執金剛神)<sup>108)</sup> - 치지주

이들 모든 신중들은 품류는 다양하고 형색도 각기 다르지만 똑같은 원력을 가지고 능력에 따라 불법을 옹호하기 때문에 옹호성중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39위 화엄신중탱을 도상에서는 제석·범천 등 주신을 중심으로 합장하고 단정히 서 있는 모습이면서 질서 있고 고르게 배열함이 통레이며, 『석문의범』에서는 이러한 신중을 상기에서 살펴 본 것처럼 3단으로 나누어 봉칭하고 있다.

## (2) 104위신중의 3단구성

104위 신중은 39위신중보다 65분의 신중이 더 많다. 39위신중은 주로 베다문화권에 있는 인도의 신들이 중심인데 반하여 104위 신중은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의 민속신들이 대폭 보태진다. 특히 중국의 도교 유교권의 신들이 주류를 이룬다.<sup>109)</sup> 『석문의범』에 의해 3단으로 나누어 명칭과 역할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상단[一聖·八金剛·四菩薩·十大明王]

우선 예적금강은 신중에서 중심이 되는 존재이다. 8대 금강은 중생의

108) 한정섭·안태희, 『화엄신장』 (화엄통신교육원, 1994), pp.64 ~258.

109) 한정섭, 『화엄신장』(불교통신대학 1994), p.265.

병고, 재앙, 고뇌 등을 소멸해주는 신으로 각 방위를 대표한다. 4대보살은 복과 깨달음을 상징한다. 그리고 십대명왕으로 각 방위의 신들이다.

① 예적금강(穢跡金剛)

석가모니 부처님이 화현한 모습으로 부정금강, 화두금강이라고도 한다. 더러운 것을 없애므로 예적부정이라 하고, 온 몸에서 지혜의 화두를 내뿜기에 화두라 한다. 엄한 상을 하고 있으며, 三面, 三目, 八臂로 삼면의 얼굴에 각기 세 개씩에 눈을 가졌고 팔이 여덟 개이며 손에는 금강저나 칼과 같은 무기를 들고 있다. 독사를 팔과 몸에 감거나 광배 대신 화염으로 몸을 감싸 아주 엄한상으로 표현되고 있다. 잡고서 범륜을 굴리면서 온 몸에 불길이 치솟는 형상으로 나타난다.

② 청제재금강(靑除災金剛)- 중생의 전생 재앙을 없애준다.

③ 벽독금강(碧毒金剛)- 유정들의 독을 파해준다.

④ 황수구금강(黃隨求金剛)- 모든 공덕을 주재하여 소망을 성취시켜준다.

⑤ 백정수금강(白淨水金剛)- 보장을 주재하여 熱惱를 없애준다.

⑥ 적성화금강(赤聲火金剛)- 부처님을 보면 몸에서 빛을 내어 바람처럼 달려간다.

⑦ 정제재금강(定除災金剛)- 지혜의 눈으로 혼란의 경계를 물리치고 재앙을 없애준다.

⑧ 자현신금강(紫賢神金剛)- 굳게 닫혀 있는 마음 땅을 파헤쳐 중생들을 깨우친다.

⑨ 대신력금강(大神力金剛)- 물을 따라 중생을 조절하여 지혜를 성취한다.

⑩ 경물권보살(警物眷菩薩)- 갖가지 방편으로 깨달음을 일깨운다.

⑪ 정업색보살(定業索菩薩)- 발달된 지혜와 안정된 경계로서 복을 닦게 한다.

⑫ 조복애보살(調伏愛菩薩)- 중생을 따라 신통을 나타내어 잘못된 사람을 조복한다.

⑬ 군미어보살(群迷語菩薩)- 청정한 음성으로 널리 깨달음을 준다.

⑭焰만달가대명왕(焰曼怛迦大明王)- 동방을 지킨다.

⑮ 발라니야달가대명왕(鉢羅拏也疽迦大明王)- 남방을 지킨다.

- ①⑥ 발납마달가대명왕(鉢納摩疽迦大明王)- 서방을 지킨다.
- ①⑦ 미결라달가대명왕(尾乞羅疽迦大明王)- 북방을 지킨다.
- ①⑧ 탁지라야대명왕(托枳羅惹大明王)- 동남방을 지킨다.
- ①⑨ 이라능라대명왕(尼羅能拏大明王)- 서남방을 지킨다.
- ②⑩ 마가마라대명왕(摩訶摩羅大明王)- 서북방을 지킨다.
- ②⑪ 아좌라낭타대명왕(阿左羅囊他大明王)- 동북방을 지킨다.
- ②⑫ 박라대다라대명왕(縛羅擡多羅大明王)- 하방을 지킨다.
- ②⑬ 오니쇄작걸라박리제대명왕(塢尼灑作乞羅縛里帝大明王)- 상방을 지킨다.

나) 중단[四王·兩天主·日月無量諸天衆]

하늘 세계의 신들로 범천과 제석, 4대 천왕, 그리고 여러 천신으로 구성된다.

- ②④ 범천왕(梵天王)- 초선천, 즉 범중천·범보천·대범천의 우두머리이다.
- ②⑤ 제석천왕(帝釋天王)- 원래의 명칭은 석가제환인드라이다. ‘석가’는 能의 뜻이고, ‘제환’은 천의 뜻이며, ‘인드라’는 주인의 뜻이다. 즉 ‘능히 하늘의 주인이다’는 뜻이다.
- ②⑥ 비사문천왕(毘沙門天王)- 북방을 지킨다. 재복, 부귀를 맡고 있으며 손에는 보탑을 들고 있다. 야차의 주인이고, 다문천왕이라고도 한다.
- ②⑦ 지국천왕(持國天王)- 동방을 지킨다. 흰 수염을 한 노인의 모습에 비파를 잡았고, 건달바의 주인이다.
- ②⑧ 증장천왕(增長天王)- 남방을 지킨다. 증생의 이익을 증장시켜 주며 보검을 들고 있다. 구반다의 주인이다.
- ②⑨ 광목천왕(廣目天王)- 서방을 지킨다. 큰 눈을 가진 천왕으로 무수한 용을 권속으로 하며, 손에는 용과 여의주를 잡고 있다. 용왕의 주인이다.
- ③⑩ 일궁천자(日宮天子)- 면류관을 쓰고 두 손으로 珞를 들고, 낮의 만물 생장을 주관하는 신이다.
- ③⑪ 월궁천자(月宮天子)- 면류관을 쓰고 두 손으로 珞를 들고, 밤부터 새벽까지 청량한 밤의 일을 주관하는 신이다.
- ③⑫ 금강밀적(金剛密跡)- 절에 들어가는 문이나 전각의 입구 좌우에 서서 불법을 수호한다.

③③ 마혜수라천왕(摩醯首羅天王)- 색계의 정상에 사는데, 대천세계의 주인으로 대자재천 이라 이름 한다.

③④ 산지대장(散脂大將)- 북방 비사문천왕 휘하의 八將의 하나로서 24부중을 통솔하고 세상을 순행하며 선과 악을 상벌한다.

③⑤ 대변재천왕(大辨才天王)- 노래와 음악을 맡을 여신으로 걸림 없는 변제가 있어 불법을 널리 유포한다.

③⑥ 대공덕천왕(大功德天王)- 吉祥天<sup>110)</sup>을 말한다. 구하는 것을 마음대로 승화시켜 주는 대공덕의 여신이다.

③⑦ 위태천신(韋駄天神·童眞菩薩)- 32천의 우두머리이며, 4천왕 중 남방증장천왕의 우두머리이다.

③⑧ 견너지신(堅牢地神)- 견너지천이라고도 하는데, 財寶를 구하고 각종 질병을 치료하며 怨敵을 굴복시키고 각종 이론을 제정한다고 한다.

③⑨ 보리수신(菩提樹神)- 인도에는 이 보리수 신앙이 크게 유행하고 있다. 보리수를 신격화한 것이다.

④① 귀자모신(鬼子母神)- 아리제모대나찰제신중이다. 아리제모는 귀자모이고, 나찰의 원명은 나찰바이다. 나찰바는 원래 고대 인도의 토착 민족으로 아리아인에게 인도가 정복당한 후에 惡人·惡事를 당하게 되면 모두 나찰이라고 이름 하였으므로, 나찰이 바로 악귀의 이름이 되었다.

④② 마리지천(摩利支天)- 마리지보살이라고도 하며, 태양이 뜨기 전 神力을 갖는 천신이다.

④③ 바갈라용왕(婆竭羅龍王)- 鹹海의 용왕으로 秘藏의 용왕들 중의 우두머리이다. 비와 바람을 일으키는 신이다.

④④ 염마라왕(閻魔羅王)- 사후세계를 지배한다.

④⑤ 자미대제(紫薇大帝)- 북극에는 三垣<sup>111)</sup>이 있는데 紫薇垣이 그 우두머리이다. 『진서』에서 “紫薇垣十五星을 자미라고도 하는데 천제의 자리이

110) 공덕천·보장천·이라고도 함. 복덕을 받은 여신. 원래 인도 신화의 신이었는데, 불교로 들어와 아버지를 덕차가, 어머니를 귀자모로하여, 비사문천의 비가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음. 천녀형으로 보관을 받은 형상은 여러 종류이고, 얼굴은 단아하다. 복덕원만의 여신으로서 옛날부터 신앙되어졌고, 길상회고법은 대극전·국분사에 있어서 천하태평·오곡풍양을 기원하는 수법이였다.

111) 상원(上垣)·중원(中垣)·하원(下垣)의 총칭. 고대의 천문학에서 북극(北極)을 이름.

며 천자가 기거하는 곳이다.” 라고 하였다

④5 탐랑성군(貪狼星君)- 북두 제1로 빛나고 밝은 탐욕이 으뜸인 성군

④6 거문성군(巨門星君)- 북두 제2로 암흑 정기의 큰 문의 우두머리 성군

④7 녹존성군(祿存星君)- 북두 제3으로 참된 인품의 봉록이 있고 굳건한 성군

④8 문곡성군(文曲星君)- 북두 제4로 검은 명계의 상태로 구부러진 띠 성군

④9 염정성군(廉貞星君)- 북두 제5로 가장 붉고 청렴하고 곧은 그물 성군

⑤0 무곡성군(武曲星君)- 북두 제6으로 북극의 강건함이 구부러진 질서의 성군

⑤1 파군성군(破軍星君)- 북두 제7로 하늘을 닫고 군대를 파괴하는 관문인 성군

⑤2 외보성군(外補星君)- 북두 제8로 밝음을 관통하는 바깥을 보좌하는 성군

⑤3 내필성군(內弼星君)- 북두 제9로 숨은 빛을 안에서 돕는 성군

⑤4 개덕성군(開德星君)- 상대의 마음에 잡념이나 망상이 조용하여 덕을 여는 참주재자

⑤5 사공성군(司空星君)- 중대의 여섯 가지 깨끗함을 주관하여 토지, 민사를 다스리는(司空) 성군

⑤6 사록성군(司祿星君)- 하대의 술을 만드는 봉록을 맡은 성군

⑤7 이십팔숙제대성군<sup>112)</sup>- 28개의 별자리가 다니는 하늘에 늘어진 여러 개 큰 성군

⑤8 아수라왕(阿修羅王)- 천룡팔부의 하나이다. 아수라는 범어의 음역으로 무단 이라는 뜻 이다. 인도에서는 절대령, 생명있는 자 등을 의미한다.

⑤9 가루라왕(迦樓羅王)- 三目嚴相으로 새 중의 왕이며 뱀이나 용을 잡아먹고 살며, 금시조라고 표현한다.

⑥0 긴나라왕(緊那羅王)- 인비인으로 표현되며 설산에 산다. 미묘한 음성으로 노래하고 춤추며 일체의 중생을 감동시키는 음악신이다.

---

112) (45)-(57) -김보형, 『朝鮮 後期 104位 神衆圖 考察』 (동국대 미술사학과 대학원, 2006), p.367.

⑥1 마후라가왕(摩睺羅伽王)- 큰 배와 가슴으로 기어간다고 하며 뱀을 신격화한 것으로 생각된다. 사람의 몸에 뱀의 머리를 하고 있다.

다) 하단[一切護法善神]

하단은 민간의 신을 중심으로 총 44위로 구성되어 있다.

⑥2 호계대신(護戒大神)- 부처님의 계를 받은 사람들을 옹호한다.

⑥3 복덕대신(福德大神)- 壽, 富 등 5복을 관장하고 있는 신이다.

⑥4 토지신(土地神)- 절의 경내를 수호하는 신이다.

⑥5 도량신(道場神)- 도량을 지키는 신이다.

⑥6 가람신(伽藍神)- 절을 수호하는 신이다.

⑥7 옥택신(屋宅神)- 집을 지키는 신이다.

⑥8 문호신(門戶神)- 문을 수호하는 신이다.

⑥9 주정신(主庭神)- 뜰을 지키는 신이다.

⑦0 주조신(主竈神)- 부엌을 지키는 신으로 좌우 협시로 뿔감을 준비하는 담시력사와 밥을 짓는 조식취모가 있다. 항상 선·악을 분명하게 살피고 사람의 일을 관찰한다.

⑦1 주산신(主山神)- 산의 주인으로 만가지 덕을 갖추고 뛰어난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의 권속으로는 후토성모, 오악제군 팔대산왕, 안제부인, 보덕진군 등이 있다.

⑦2 주정신(主井神)- 우물신이다.

⑦3 측신(廁神)- 화장실을 담당하는 신으로 부정한 것을 없애 중생들을 깨끗하게 하겠다는 서원을 가졌다.

⑦4 대애신(臺磴神)- 맷돌 방아신으로 중생들에게 영양을 공급한다.

⑦5 주수신(主水神)- 물의 신으로, 물은 생명력과 풍요의 원천이며 만물을 소생 시킨다.

⑦6 주화신(主火神)- 불을 담당하는 신이다.

⑦7 주금신(主金神)- 굳고 날카로워 베고 찌르며 빛을 보면 광명을 발하여 귀천을 자재 하게 하는 신이다.

⑦8 주목신(主木神)- 나무를 주관하는 신으로 숲을 지킨다.

⑦9 주토신(主土神)- 중생들의 마음자리를 살피는 신이다.

- ⑧⑦ 주방신(主方神)- 방향을 수호하는 신이다.
- ⑧⑧ 토공신(土公神)- 중생들의 고통을 구제하는 신이다.
- ⑧⑨ 방위신(方位神)- 봄·여름·가을·겨울에 寒暑의 차이를 결정지어주는 신이다.
- ⑧⑩ 시직신(時直神)- 年·月·日·時를 대표하는 신이다.
- ⑧⑪ 광야신(廣野神)- 넓은 들판을 주재하고 관리하는 신이다.
- ⑧⑫ 주해신(主海神)- 바다의 신이다.
- ⑧⑬ 주하신(主河神)- 물신으로서 하천신을 뜻한다.
- ⑧⑭ 주장신(主江神)- 하천과 하천이 한데 모여 큰 강을 이루는데, 그 강을 주재하는 신이다.
- ⑧⑮ 도로신(道路神)- 중생들이 바른 길로 다니도록 보호하는 신이다.
- ⑧⑯ 주성신(主成神)- 성을 지키는 신이다. 보살들이 불법을 듣고 바른 마음에 안주하여 마음의 성을 수호하였기 때문이다.
- ⑧⑰ 초훼신(草卉神)- 풀신이다. 구름처럼 꽃을 피워 묘한 빛을 나타낸다.
- ⑧⑱ 주가신(主稼神)- 五穀 신이다.
- ⑧⑲ 주풍신(主風神)- 바람을 주관하는 신이다.
- ⑧㉑ 주우신(主雨神)- 비신이다. 중생의 업보를 따라 이익을 베푸는 일을 담당한다.
- ⑧㉒ 주주신(主晝神)- 낮을 주관하는 신이다.
- ⑧㉓ 주야신(主夜神)- 밤을 지키고 창조하는 신이다.
- ⑧㉔ 신중신(身衆神)- 생사 가운데서 중생을 이익하게 하는 신이다.
- ⑧㉕ 족행신(足行神)- 한량없는 세월을 두고 여래를 친근 정진함으로서 운신에 자유를 얻은 신이다.
- ⑧㉖ 사명신(司命神)- 인간의 수명을 관장하는 신이다.
- ⑧㉗ 사록신(司祿神)- 중생의 근기에 따라 그 명예와 위신을 결정하는 신이다.
- ⑧㉘ 장선신(掌善神)-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한 것을 기록하는 신이다.
- ⑧㉙ 장악신(掌惡神)-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한 것을 기록하는 신이다.
- ⑧㉚ 행병이위대신(行病二位大神)-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면 그 벌로써 병을 주는 신이다.

⑩③ 두창고채이위대신(痘瘡痼瘵二位大神)- 전염병을 주관하는 신이다.

⑩④ 이의삼재오행대신(二儀三才五行大神)- 이의는 천지 음양의 조화이고, 삼재는 천·지·인이며, 오행은 금·목·수·화·토이니 이 세상 모든 것을 주재하는 신이다.<sup>113)</sup>

이렇게 신중은 불교-하늘-인간 세계의 신들로 구성되어 있다.

104位신중의 수가 늘어난 것은 예로부터 신앙되어 온 모든 신들이 불교와 습합되어 받아 들여졌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104位신중이 성립되었고『석문의범』에 의해서 상단은 예적금강을 중심으로 8금강, 4대보살, 10대명왕등 밀교적인 신들이 표현되고, 중단에는 범천, 제석천, 사천왕, 팔부중등 원시불교시대의 호법신중과 북두칠성등 중국 도교신들이 배열되고, 하단은 인도에서 대승불교 시대의 土俗的 諸神과 한국에서의 土俗的 諸神들이 配列되고 있다.

### (3) 39位신중과 104位신중 비교

#### 가) 39位신중과 104位신중의 분류

39位신중과 104位신중을 상·중·하단으로 나누어서 39位신중이 104位신중에 포함된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13) 김의식, 『탱화』 (운주사, 2005), pp.160-173.

<표 1> 39위 신증과 104위신증의 분류

39위 신증	104위 신증
1.대자재천왕 2.광과천왕 3.변정천왕 4.광음천왕 5.대범천왕 6.타화자재천왕 7.화락천왕 8.도솔타천왕 9.야마천왕 10.삼십삼천왕 11.일천자 12.월천자 13.건달바왕 14.구반다왕 15.용왕 16.야차왕 17.마후라가왕 18.긴나라왕 19.가루라왕 20.아수라왕	<b>상단</b> : (1)예적금강, (2)청제재금강, (3)벽독금강, (4)황수구금강 (5)백정수금강, (6)적성화금강, (7)정제재금강, (8)자현신금강, (9)대신력금강, (10)경물권보살,(11)정업색보살,(12)조복애보살,(13)군미어보살, (14)염만달가대명왕, (15)발라니야달가대명왕, (16)발납마달가대명왕, (17)미걸라달가대명왕, (18)탁지라야대명왕, (19)이라능라대명왕, (20)마가마라대명왕, (21)아좌라낭타대명왕, (22)박라대다라대명왕, (23)오니쇄작걸라박리제대명왕
21.주주신 22.주야신 23.주방신 24.주공신 25.주풍신 26.주화신 27.주수신 28.주해신 29.주하신 30.주가신 31.주약신 32.주립신 33.주산신 34.주지신 35.주성신 36.도량신 37.족행신 38.신증신 39.집금강신	<b>중단</b> : (24)범천왕[5], (25)제석천왕[10] <sup>114)</sup> , (26)비사문천왕, (27)지국천왕, (28)증장천왕, (29)광목천왕, (30)일궁천자[11], (31)월궁천자[12], (32)금강밀적[39], (33)마혜수라천왕, (34)산지대장, (35)대변제천왕, (36)대공덕천왕, (37)위태천신, (38)견너지신, (39)보리수신, (40)귀자모신, (41)마리지천, (42)바갈라용, (43)염마라왕, (44)자미대제, (45)탐랑성군,(46)거문성군, (47)녹존성군, (48)문곡성군, (49)염정성군, (50)무곡성군, (51)과군성군, (52)외보성군, (53)내필성군, (54)개덕성군, (55)사공성군, (56)사록성군, 57)천열요제대성군, (58)아수라왕[20], (59)가루라왕[19], (60)긴나라왕[18], (61)마후라가왕[17]
	<b>하단</b> : (62)호계대신, (63)복덕대신, (64)토지신[34], (65)도량신[36], (66)가람신, (67)옥택신, (68)문호신, (69)주정신, (70)주조신, (71)주산신[33], (72)주정신, (73)축신, (74)대예신, (75)주수신[27], (76)주화신[26], (77)주금신, (78)주목신, (79)주토신, (80)주방신[24], (81)토공신, (82)방위신, (83)시직신, (84)광야신, (85)주해신[28], (86)주하신, (87)주강신[29], (88)도로신,(89)주성신[35], (90)초훼신, (91)주가신[31], (92)주풍신[25], (93)주우신, (94)주주신[21],(95)주야신[22], (96)신증신[38], (97)족행신[37], (98)사명신, (99)사록신, (100)장선신, (101)장약신, (102)행병이위대신, (103)두창고채이위대신, (104)이의삼재오행대신

114) 104위 신증 제석천왕[10]에서 [10]은 39위 신증에 있는 번호이다.

나) 104位에 포함된 신중

39位와 104位를 비교 했을 때 104位에 39位 신중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104位에 포함되어 있는 신중(24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단에 대범천왕·삼십삼천왕·일천자·월천자(4位)가 있고, 중단에 구반다왕·마후라가왕·긴나라왕·가루라왕·아수라왕(5位)이 있으며, 하단에는 주주신·주야신·주공신·주풍신·주화신·주수신·주해신·주하신·주약신·주산신·주지신·주성신·도량신·족행신·집금강신(15위)이다.

<표 2> 104位 에 포함된 신중

	39位 신중
104位에 포함된 신중	상단: 대범천왕, 삼십삼천왕, 일천자, 월천자(4위)
	중단: 구반다왕, 마후라가왕, 긴나라왕, 가루라왕, 아수라왕(5위)
	하단: 주주신, 주야신, 주공신, 주풍신, 주화신, 주수신, 주해신, 주하신, 주약신, 주산신, 주지신, 주성신, 도량신, 족행신, 집금강신(15위)

다) 104位에 포함되지 않은 신중

104位신중에는 39位신중이 모두 배대되지는 않고 있다. 상·중·하단 총 15位가 포함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104位에 포함되지 않은 신중은 상단에 대자재천왕, 광과천왕, 변정천왕, 광음천왕, 타화자재천왕, 화락천왕, 도솔천왕, 야마천왕(8位)가 있고, 중단에 건달바왕, 용왕, 야차왕(3位)이 있으며, 하단에는 주방신, 주가신, 주립신, 신중신(4位)이다.

<표 3> 104位 포함되지 않는 신중

	39位 신중
104位에 포함 되지 않은 신중	상단: 대자재천왕, 광과천왕, 변정천왕, 광음천왕, 타화자재천왕, 화락천왕, 도솔천왕, 야마천왕(8위)
	중단: 건달바왕, 용왕, 야차왕(3위)
	하단: 주방신, 주가신, 주립신, 신중신(4위)

라) 104位에만 있는 신중

경전에 나타난 39位신중이 104位신중으로 된 것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민간신앙의 신이나, 토속적인 신들이 그대로 불교에 습합된 것이다. 그래서 39位에서는 보이지 않는 신중의 이름이 104位에 나타나고 있다. 104位에는 39位에서 찾아볼 수 없는 신중의 이름이 있다.

예적금강, 청제재금강, 벽독금강, 황수구금강, 백정수금강, 적성화금강, 정제재금강, 자현신금강, 대신력금강, 경물권보살, 정업색보살, 조복애보살, 군미어보살, 염만달가대명왕, 발라니야달가대명왕, 발납마달가대명왕, 미결라달가대명왕, 탁지라야대명왕, 이라능라대명왕, 마가마라대명왕, 아좌라낭타대명왕, 박라대다라대명왕, 오니쇄작결라박리제대명왕, 비사문천왕, 지국천왕, 증장천왕, 광목천왕, 마혜수라천왕, 산지대장, 대변재천왕, 대공덕천왕, 위태천신, 견뇌지신, 보리수신, 귀자모신, 마리지천, 바갈라용, 염마라왕, 자미대제, 탐랑성군, 거문성군, 녹존성군, 문곡성군, 염정성군, 무곡성군, 파군성군, 외보성군, 내필성군, 개덕성군, 사공성군, 사록성군, 천열요제대성군, 호계대신, 복덕대신, 가람신, 옥택신, 문호신, 주정신, 주조신, 주정신, 측신, 대애신, 주금신, 주목신, 주토신, 토공신, 방위신, 시직신, 광야신, 주하신, 도로신, 초혜신, 주우신, 사명신, 사록신, 장선신, 장악신, 행병이위대신, 두창고채이위대신, 이의삼재오행대신(80위)이 있다.

마) 39위신중과 104위신중의 異名

39위 신중과 104위 신중을 배대 했을 때 거의 같은 이름이었으나 몇 분의 신중은 이름이 다르게 표시되었다. 그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39위 신중과 104위 신중의 異名

	39위 신중	104위 신중
이름이 다른 신중	삼십삼천왕	제석천왕
	일천자	일궁천자
	월천자	월궁천자
	집금강신	금강밀적
	주지신	토지신

이렇게 비교해 본 결과 104위신중 가운데 39위신중이 24위가 포함되었고, 나머지 15위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39위신중은 화엄경 편집이전 재래 인도의 汎神思想에서 유출된 신들이 포섭된 것으로 보아야겠지만 104위신중은 중국에 불교가 수입된 이후 동남아 제국에 유포되어 있던 신들이 39위중에 없던 一聖, 八金剛, 四菩薩, 十大明王과 紫微大帝를 위시한 七元星君, 기타 戶, 宅, 庭神과 命, 祿, 善, 惡, 二儀, 三才, 五行神 등 다분히 도교·유교적인 신들이 포섭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다.<sup>115)</sup>

115) 한정섭, 「佛敎土着信仰考」, p.174.

### Ⅲ. 조선후기 신중탱의 형식 분류

조선후기 신중탱은 수적으로 많은 만큼 형식면에서도 매우 다양하다. 여러 학자들은 신중탱의 형식을 도상 구성에 따라 몇 가지로 분류하였다.

문명대는 제석을 주준으로 그린 탕화를 제석탱, 제석과 위태천을 주준으로 표현한 것을 제석·천룡탱, 제석 및 범천과 예적금강을 주준으로 그린 제석·금강탱 등으로 구분하였다.<sup>116)</sup>

홍윤식은 大穢跡金剛神을 主軸으로 한 신중탱, 제석·범천 동진보살을 중심으로 한 신중탱, 제석·범천을 중심으로 한 신중탱, 동진보살상만을 중심으로 한 신중탱, 104위 신중탱까지 5가지 유형이 있으며, 이외에 8대용왕, 8부 금강 등을 중심으로 한 유형도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sup>117)</sup>

정병국은 제석탱, 제석·위태천탱, 위태천·팔부중탱, 4보살 8금강탱, 제석·범천·위태천탱, 104위신중탱, 조왕탱, 칠성탱, 산신탱으로 분류하였다.<sup>118)</sup>

최근에 김정희는 기존의 형식 분류를 보완하여 제석탱, 천룡탱, 제석·범천탱, 제석·천룡탱, 제석·범천탱, 제석·천룡탱, 제석·범천·천룡탱, 39위신중탱, 104위신중탱, 금강탱 등 8형식으로 구분하고 있다.<sup>119)</sup>

이 논문에서는 제석탱, 천부·천룡탱, 금강탱, 104위신중탱의 4형식으로 구분하였다.

116) 문명대, 『한국의 불화』(열화당, 1977), p105-107.

117) 홍윤식, 『한국 불화의 연구』(원광대학교, 1980), p172-175.

118) 정병국, 『조선후기 신중탱화의 연구』(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p12-13. 조선후기 신중탱은 화엄신중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조왕이나 산신, 칠성등의 토속신을 그린 탕화는 엄밀한 의미에서 신중탱이라고 보기 어렵다.

119) 김정희 『朝鮮時代 神衆幀畫의 研究(2)』 『한국의 불화』 5. 海印寺 本末寺篇(下)(성보문화재연구원, 1997), p231-241

## 1. 1형식-제석천을 중심으로

天部에서 가장 중요한 신격은 제석으로, 모든 신중탱에 반드시 등장한다. 그리고 주존을 중심으로 협시는 日天子, 月天子, 천자, 奏樂天女 등이 등장한다.

신중탱에서 가장 중요한 도상이 제석천이다. 제석이 빠짐없이 등장하여 여러 天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의미를 갖는 신이라고 할 수 있다.

제석탱은 말 그대로 제석을 단독으로 그린 그림이다. 제석은 天帝釋 또는 석가인다라(釋迦因陀羅: Sakra devanam Indra)라고도 하는데, 벼락을 신격화한 것으로, 고대 인도의 배다 시대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그는 벼락과 쇠갈고리와 인드라망을 무기로 하여 天界와 地界를 장악하며 일체의 악마를 정복하는 신으로 신앙되었다.

우파니샤드 시대에 이르러 아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모든 신을 주재하는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불교가 성립되면서부터 불교에 습합된 제석은 忉利天의 善見城에 살면서 여러 신중 및 사천왕을 거느리고, 불법을 수호하며 불타로부터 法藏수지의 咐囑을 받은 모든 신중의 으뜸이자, 신중의 신이다<sup>120)</sup>

조선후기 신중탱에서 제석의 모습은 화려한 보관을 쓰고 합장을 하거나, 연꽃을 받쳐 든 수인의 형태를 보인다. 넓은 소매의 袍를 입고 어깨에 천의를 걸치고 있는데, 소매부분에 새 깃털의 모양의 장식이나 레이스 모양의 장식이 부착되어 있다. 자세는 입상과 좌상으로 나눌 수 있다. 입상의 경우는 범천이 함께 등장한다. 제석이 독존으로 나오는 경우는 倚坐像이 대부분이다.

조선후기에는 제석만을 단독으로 그린 독존 형식의 그림은 없고, 제석을 주존으로 하고 天童이나 天女 그리고, 日月冠을 쓴 日宮天子와 月宮天子와 같이 표현된다.

이 형식은 중앙의 의자에 앉아 있는 제석을 중심으로 주변에 일궁·월궁 천자, 2~4명의 보살, 시왕 등이 권속으로 등장하고 제석의 의자 주위로

120) 하인리히 짐머 지음, 이숙종 옮김, 『인도의 신화와 예술』, (대원사, 1955). pp.13-19.

동자 동녀 천녀들과 천자들을 배치하는 것이다.

일궁천자는 원래 인도의 토속신인 태양신 이었다가 불교에 유입되어 日天, 月天子, 日宮天子라는 명칭이 붙었다.<sup>121)</sup> 월궁천자는 月天子, 月天, 大白光神, 寶吉祥으로 불린다. 월궁천자는 月宮에 살며 제석천의 휘하에 있는 신이다. 이들은 제왕의 복식을 하고 원류관을 쓰며 양손에 圭를 들고 제석과 범천을 향해 시립한 형상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머리에 일·월이 그려진 면류관을 쓴 형상으로 표현되기도 하여 일궁천자와 월궁천자를 구분하기 힘든 경우도 있다.

<표 5> 능가사 신중탱 도상구조

天童	帝釋	天童
金剛索菩薩		金剛拳菩薩
月天子		日天子

이 형식에 속하는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1730년 송광사 말사인 능가사 제석탱<sup>122)</sup><그림 1>을 들 수 있다. 화면의 중앙에 우아하고 고풍스러운 느낌으로 하품중생인 수인을 하고 정좌자세로 앉아 있는 보살형의 제석이다. 화면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일궁·월궁 천자, 천동, 천녀를 작게 표현함으로 주존이 제석천임을 알 수 있다. 투명한 광배를 지고 있는 제석의 뒤로 오색번과 구름이 병풍처럼 둘러져 있다. 오색번은 바람에 휘날리는 것처럼 날리고 구름은 위에서부터 제석천 무릎선까지 있다. 전체적으로 선 처리가 굉장히 섬세하고 잘 안 보이는 곳 가지 꼼꼼하게 선으로 표현하였

121) 일궁천자는 리그베다 시대(기원전 1500-600)부터 신앙되기 시작하였으며, 그는 인간을 내려다보며 선악을 분명하게 판단한다. 또한 광명을 발산하여 세상을 비추고 어둠과 질병과 적을 쫓아내며 감로를 내려 세상사람들의 고통을 낮게 한다고도 한다. 불경에서는 아미타불의 좌협시인 관음보살의 변화신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따라서 월천자는 아미타불의 우협시인 대세지 보살의 화신이다. 수륙화에서 일궁천자는 紅袍를 입고 면류관을 쓰고 양손에는 圭를 든 남성제왕의 형상으로 나타난다. 월천자는 천녀형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수륙화에서 일천자와 마찬가지로 제왕의 형상으로 나타난다.

122) 능가사 제석탱 1730년 107.5 ×86.5cm, 순천 송광사 성보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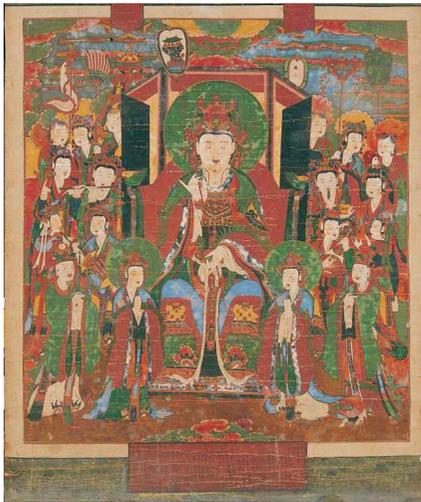
다. 화려한 보관을 쓴 보살형의 모습으로 투명한 광배에 금색과 녹색 선으로 테두리를 마무리하고 있다. 적색의 보관에 녹색의 장식이 있고 보주마다 하얀색 점을 찍어 빛을 표현하였다. 보관의 장식이 어깨 밑까지 내려오고 단순하면서도 고전적인 아름다움을 느끼게 한다. 보관의 테두리는 검은색으로 보이는 보발의 테두리가 녹색으로 선 처리한 듯 보이는데 녹색이 많이 날아가서 살짝만 보인다. 보발은 타래모양으로 허리 부분 까지 내려오고 머리카락이 귀 둘레를 감싸고 있으며 머리와 얼굴의 경계를 녹색 선으로 마무리 하였다. 눈썹은 녹색을 띄고 눈은 정면을 응시하는 듯 하고 빨간 입술은 코보다 작게 표현하였다. 적색 천의에 투명한 느낌이 나는 천을 두르고 있고 주름까지 검은색 선으로 처리하고 옷자락의 말림이 연꽃을 연상시킨다. 손에 손금까지 선명하게 그려졌고 손목에는 적색의 팔찌 같은 장신구를 하고 계시고 옷을 겹겹이 입은 것처럼 여러 겹의 천이 보인다. 또한 제석의 머리높이에 天童들은 머리카락까지 묘사 되어 있고 입모양까지 섬세하게 그려졌다.



<그림 1> 능가사 제석탱

제석의 왼쪽에 金剛索菩薩과 오른쪽에 金剛拳菩薩은 제석을 향해 약간 기울인 듯한 자세로 화려한 보관을 쓰고 머리모양이 제석천과 비슷한 타래 모양에 허리 부분 까지 내려오고 있고, 옷자락 말림이 연꽃을 연상시킨다. 金剛索菩薩 아래에는 圭를 들고 있는 월궁천자가 金剛拳菩薩 아래에 圭를 들고 있는 일궁천자가 눈썹을 위로 올리고 수염의 선과 구렛나루까지 섬세하게 그려주었다. 녹색과 적색의 천의를 입고 옷의 깃도 적색과 검정색으로 표현하였고 적색의 천이 바닥까지 길게 내려져있다.

또한 보살들과 천동들, 일궁·월궁천자는 제석을 향해 약간 기울인 듯한 자세로 있어 자연스럽게 제석에게로 시선을 유도한다.



<그림 2> 홍국사 제석탱



<그림 2-1> 홍국사 제석탱 상단부분

<표 6> 홍국사 제석탱 도상구조

천동·천녀		제석	천동·천녀	
천동· 천녀	주악 천녀		주악 천녀	천동· 천녀
보살	월천자		일천자	보살

또 다른 제석탱으로 1741년 흥국사에서 제작된 제석탱<sup>123)</sup><그림 2>이 대표적이다.

화면의 중앙에 제석이 봉황장식이 있는 의자에 두 다리를 내리고 앉아 있다. 녹색 두광을 지고 있는 제석의 뒤로 4곡 병풍이 둘러져 있다. 제석은 화려한 보관을 쓴 보살형의 모습으로 소매 부분에 새 깃털장식이 있는 넓은 소매의 포를 입고 있다. 두 손은 타원형의 부채가 달린 긴 장대를 들고 있는 데 부채의 면 안에는 산중턱에 해와 달이 돌고 있는 수미산이 보이고 그 정상에 제석천의 거처인 선견성(善見城)<그림 2-1>이 그려져 있다. 제석의 주변에는 피리, 장고, 비파 등을 연주하고 있는 천녀들과 각종 번을 들고 있는 천녀와 천동들이 호위하고 있다. 제석의 다리 양쪽의 앞 옆에는 중앙을 향해 합장을 한 2명의 보살형의 천자가 보이고 화면이 오른쪽에 빨간 해가 놓인 日冠을 쓴 日天子, 화면의 왼쪽에 하얀 달이 있는 月冠을 쓴 月天子가 있다. 이들은 제와의 복식을 하고 양손에 圭를 들고 시립한 형상이다. 화면의 맨 위 상단에는 오색구름이 떠있어 제석이 표현된 이곳이 바로 천상임을 암시한다.

이 시기에 또 다른 제석탱으로 두 점이 전하고 있는데, 하나는 통도사 대적광전에 모셔진 그림<sup>124)</sup>이고<그림 3>, 또 하나는 해인사 말사인 길상암의 신중탱<sup>125)</sup><그림 4>이 그 것이다.

두 그림 모두 제석천은 의자에 앉아 있는 倚坐像이고, 정면을 향하고 있으며 전자는 제석이 합장을 하고 있는 수인 형태를 취하고 있고, 후자는 제석이 연꽃을 들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또한 전자에 비해 길상암의 신중탱에서는 많은 권속들과 천동·천녀들을 찾아 볼 수 있다.

---

123) 흥국사 제석탱 1741년 130×106cm, 전라남도 여천군 흥국사.

124) 통도사 대적광전 신중탱 1804년 184×283cm, 통도사 소장.

125) 길상암 신중탱 1893년 146.5×133cm, 경남 합천군 해인사 길상암 소장.



<그림 3> 통도사 대광명전  
신중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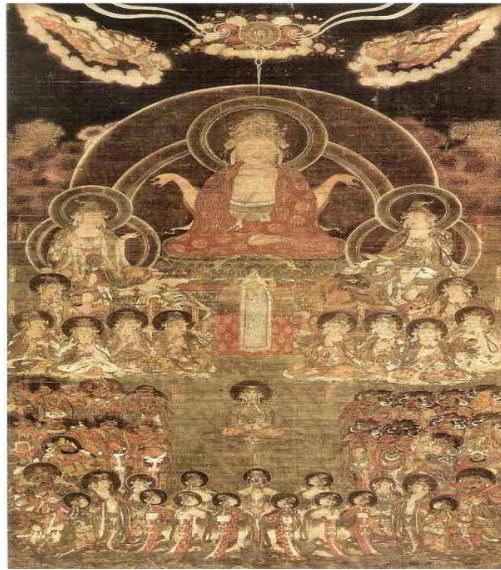
<그림 4> 길상암 신중탱

색채감에 있어서는 통도사 제석탱이 훨씬 다양한 색과 중후한 색감을 가지고 있으며, 길상암 신중탱은 붉은 색을 위주로 하고 명도 높은 청색과, 흰색으로 하여 불화의 격조가 약간은 떨어지는 감이 있으나 구도상에서는 안정감 있어 보인다.

## 2. 제2형식-천부·천룡을 중심으로

### 1) 제석·범천(천부)을 중심으로

제석천과 범천을 함께 묘사한 그림으로 그 예는 그리 많지 않다. 제석천은 앞의 제석탱에서 언급되었고 大梵天: Mahabrahmana은 브라만교의 우주창조신으로서 불교에 흡수되어 色界 初禪天의 제3왕(또는 제4왕)이 되었다고 한다. 제석과 함께 불법 수호의 역할을 맡고 있다.



<그림 5> 원각경변상도

일반적으로 梵天, 梵天王, 大梵天王이라고도 부른다. 인도 고대의 聖典에서는 우주의 근본원리인 本有: Brahman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신격화하여 우주를 창조한 최고신으로 표현된 것이 범천이다. 제석천을 주존 으로 그리는 예는 많으나 이상하게도 범천을 주존 으로 그리는 그림은 없다. 원래 범천이 머무는 색계천이 제석천이 계신 도리천보다 훨씬 위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석신앙의 유행 정도에 못 미쳐 범천을 주존 으로 그리는 경우가 없는 것이 아닌가 싶다.<sup>126)</sup>

신중탱에서 범천이 보여 지는 형상은 제석과 같이 의복과 보관을 쓴 보살형의 모습으로 제석과 범천의 모습은 구별하기 힘들다. 제석·범천의 도상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미국의 보스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고려 후기의 圓覺經變相圖<sup>127)</sup><그림 5>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설법인을 한 報身 盧舍那佛이 그려진 화면 하단에 여러 신중이 그려져 있는데 그 중 화면 밑에서 오른쪽에 부처를 향하여 약간 비껴서 합장하고 서 있는 상의 이마

126) 김정희, 『신장상』, 대원사, pp. 19~22.

127) 원각경변상도 고려 후기 마바탕에 채색 165× 85cm, william Sturgis Bigelow Collection Courtesy, Museum of Fine Arts. Boston, U.S.A 소장.

에 세로로 된 제3의 눈이 그려져 있고 그 옆으로 ‘대범천’이라는 명문이 있다. 또한 화면 왼쪽 부분에는 2개의 눈을 가진 보살형의 상이 있고 그 오른쪽에 ‘천제석’이라는 명문이 있다. 또한 고려 후기 地藏菩薩圖 에서도 하단부 화면 오른쪽에 별도의 제3의 눈을 가진 신을, 왼쪽에 2개의 눈을 가진 신을 배치하여 이러한 배치가 일반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sup>128)</sup>



<그림 5-1> 제석천  
<그림 5>의 왼쪽 하단부분



<그림 5-2> 대범천,  
<그림 5>의 오른쪽 하단 부분

따라서 청곡사 신중탱을 근거로 하여 제석과 범천이 함께 등장할 경우에는 화면의 오른쪽이 범천, 왼쪽은 제석임을 추정할 수 있다.

128) 3목을 가진 신이 범천이라는 도상적 근원은 고려 시대 화엄탱에서 볼 수 있다. 화면의 하단에 신중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화면의 오른쪽에 3목을 가진 신의 위쪽에 대범천이라는 명문이 있고, 왼쪽에 2목을 가진 신이 제석천이라는 명문이 있다. 이러한 배치 원칙은 모든 고려불화에서 공통되는 것이다. 즉 고려불화 가운데 지장보살도에는 반드시 제석과 범천이 함께 배치되는데 화면의 오른쪽이 범천, 왼쪽이 제석천이라는 원칙을 반드시 지키고 있다. 이러한 배치 형식은 조선시대에도 지켜지고 있다.



<그림 6> 대둔사 신중탱 (大菴寺 大陽門 帝釋幀)



<그림 7> 대둔사 신중탱 (大菴寺 大陽門 大梵王幀)

최근까지 조선후기의 제석·범천탱은 한 작품 밖에 찾아 볼 수 없었으나 1998년 해남 大菴寺에서 제석·범천탱<그림 6>, <그림 7>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이는 한 폭에 제석과 범천을 모두 그려 넣은 작품이 아니라 제석을 한 폭에, 범천을 다른 한 폭에 그려 넣어 같이 모셔졌다. 이 작품들의 크기 또한 상당히 커서 제석탱 같은 경우에는 가로 442, 세로 283.5cm, 범천탱같은 경우는 가로 440.7, 세로 283.5cm의 거대한 크기의 작품이며, 연대는 1847년에 그려진 탕이다. 현재 대둔사<sup>129)</sup> 성보박물관에

129) 두륜산 대홍사(대둔사)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절을 주변 사람들은(한등절)이라고도 하였고, 이조말엽엔 대둔사와 대홍사란 이름이 함께 사용되고 있었다 한다.

전시 되어있다.

제석천과 범천 주위의 여러 천왕들과 천녀, 천자들, 천동들을 작게 표현함으로 주존이 제석천과 범천임을 알 수 있다. 다른 신중탱들과 다른 점은 여러 보살들과 천왕들의 이름을 광배와 머리 장식 부분에 표현하였다는 것이 특이한 부분이다.



<그림 6-1> 大菴寺 帝釋幀  
왼쪽 상단 부분



<그림 6-2> 大菴寺 帝釋幀  
왼쪽 하단 부분

먼저 제석탱을 살펴보면 화려한 보관을 쓰고 합장을 하고 서 계신 제석천은 화면 오른쪽에 배치하였고 제석천 주위로 여러 천왕들과 좌·우로 일궁·월궁천자, 圭를 들고 있는 菩薩들과 공양물을 들고 있는 천녀 群, 天童, 특히 제석천 위로 화려한 번을 든 天女 群, 악기를 연주하는 천동들을 (奉藩奏樂)배치하였다. 왼쪽 상단<그림6-1> 천자가 들고 있는 번에 고리로 코를

---

그러다 한일 합방이 되면서 일본이 제작한 지도에 절의 이름이 대흥사로 표기되면서 이것이 공식명칭이 되었다고 한다. 해방이후 대흥사(大興寺)란 이름보다는 대둔사란 이름이 선호되어 한때 절 이름을 대흥사에서 대둔사로 바꾸려 시도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미 수십년째 대흥사로 알려진 때문에 인지도와 행정적 현안들이 대두되어 결국 절 이름을 대흥사로 하기로 결정하고 관계기관 등에 협조, 홍보를 요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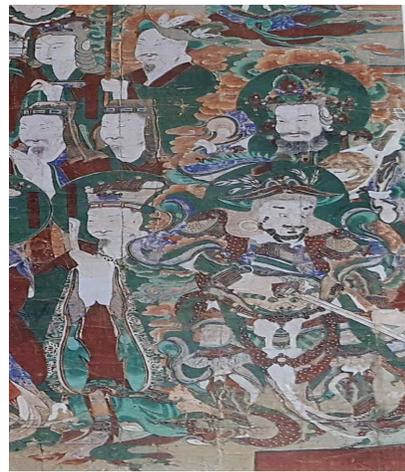
뿜인 맹수와 악기를 부는 천동을 재미있게 표현하였다.

범천탱<그림 7>은 제석천과 반대로 화면 왼쪽에 합장을 하고 계신 구조이다. 제석탱과 마찬가지로 여러 보살상과 천왕들, 奏樂天童, 공양물을 들고 있는 天女 群이 있고 번을 들고 있는 天子 群의 구조로 되어 있다.

제석탱에서는 번에 코를 걸고 있는 맹수가 있다면<그림 6-1> 범천탱에서는 왼쪽 상단 부분 번에 코를 걸고 있는 용이 있고 그 밑에는 구름 위를 나는 듯한 역동적인 모습의 동자를<그림 7-1> 표현하였다.



<그림 7-1> 大菴寺 大梵王幀  
오른쪽 상단 부분



<그림 7-2> 大菴寺 大梵王幀  
오른쪽 하단부분

제석천과 범천을 한 폭에 그리지는 않았지만 제석천 왼쪽 하단<그림 6-2>과 범천의 오른쪽 하단<그림 7-2>을 보면 사천왕을 2位씩 배치하고 있어 하나의 천부탱 형식에 포함하였다.



<그림 8> 청곡사 신중탱

해인사 말사인 청곡사 신중탱<sup>130)</sup><그림 8>이 제석과 범천이 한 폭에 그려진 그 하나 밖에 없는 예인데, 화면을 3단으로 나누어, 상단에 정면을 향하고 있는 제석천과 3目的 사분의 삼 측면을 바라보고 있는 범천이 합장하고 있는 모습이 있고, 그 주위에 열 명의 주악천녀들과, 세명의 童女상, 두명의 幢幡을 들고 있는 천녀상들이 배치되어 있고, 하단에는 4보살과 함께 2명의 일궁천자와 월궁천자가 있고 오른쪽 화면 위로는 어린 천녀가 중국식의 나발을 불고 있다.

<표 7> 청곡사 신중탱 도상구조

주악천녀	제석	범천	주악천녀
천동	주악천녀		천동
	무희		
일·월천자	4보살		일·월천자

130) 청곡사 신중탱 조선후기 167.5× 145.5cm, 경남 전주시 청곡사 소장.

화면 상단에 있는 왼편의 상은 그 옆에 선견성이 그려진 번을 든 천녀가 호위하고 있어 제석으로 볼 수 있고 상단 오른쪽에 이마에 제3의 눈으로 불리는 별도의 눈을 가진 상을 범천으로 추정할 수 있다.

색조는 적색, 녹색, 청색이 주조를 이루고 있고, 피부색은 하얗게 처리되어 있는 간결한 탕이나 구도 상에 있어서는 비교적 조화 있는 탕이라고 생각된다.

## 2) 제석·천룡을 중심으로

위에서 제석·범천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천룡탱은 韋馱天을 중심으로 天龍을 비롯한 팔부중과 사천왕등 무장신들을 그린 그림이다.

위태천(Skanda)은 私建陀, 建陀 또는 違馱, 違陀라고도 불리었는데 인도의 서사시의 시대(기원전 600~기원후 200)에 성립된 천신으로 아그니의 아들이라고도 하고, 가네샤와 함께 시바의 아들 이라고도 한다. 이들 탄생설화의 공통점은 천신을 괴롭히는 약신들을 무찌르기 위해 위태천이 태어났다는 것이다. 위태천은 이후 제석을 능가하는 군신으로 전투의 신들 가운데 가장 우두머리가 되었다.<sup>131)</sup> 위태천은 탄생설화에 근거하여 불교에 들어와서는 모든 악귀를 消除하는 신으로도 신앙되기도 한다.

불교에 수용된 위태천은 남방증장천왕의 8대장 중의 한명이자, 32장군 중의 우두머리이며, 석가모니가 입멸할 때에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출가인을 보호하고 불법을 수호하는 임무를 띠었다고 한다.<sup>132)</sup> 그런데 여래가 입멸한 후에 첩질귀가 돌연히 여래의 어금니를 훔쳐 달아나자 위태천이 다시 되찾아 오게 되고, 그 후 위태천의 역할은 탑의 도굴을 막는 중요한 임무를 띠게 되었다. 그러므로 중국에 들어와서 석가를 모셔 둔 대웅보전을 향해 서 있는 자세의 상이 제작되는데, 부처님을 보호하는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된다.<sup>133)</sup>

131) 권기현, 『백양산 삼광사』, (정우서적, 2012), p. 150.

132) 안진호, 『석문의법』, p.223.

133) 사찰에는 반드시 대웅보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천왕전이 있는데, 천왕전 내부에 입구 쪽으로 포대 미륵화상이 있고 뒷면에 대웅보전을 향하여 위태천상이 합장하고 있는 자세로 있다.

위태천의 도상적인 특성은 양 귀 옆으로 새 깃털 장식에 있는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은 무장형으로 나타나며, 수인은 합장한 팔위에 보검이나 보봉, 금강저를 가로질러 놓거나, 삼지창을 들고 있다. 위태천의 도상적 특성 중에 공작의 깃털이 달린 투구는 인도신화에서 유래를 찾아 볼 수 있다고 한다. 그가 태어난 후 여러 신이 그에게 선물을 하게 되는데, 가루라는 그에게 탈 것으로 공작새를 선물한다. 그 설화를 바탕으로 위태천이 중국으로 들어오면서 형상화되는 과정에서 위태천의 탈 것인 공작새는 사라지고 대신에 투구에 공작 깃털로서 상징화 된 것이 아닌 가 추측된다.

또한 위태천은 동진보살이라고도 하는데, 동진이란 여색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란 뜻으로 동진범행을 수행하여 천 욕을 받지 않았다는 데서 유래한 명칭이라고 한다.<sup>134)</sup> 또한 얼굴이 童顏이기 때문에 관계가 있는 명칭이기도 한데 그것은 인도 신화에서 유래된다. 위태천은 군신으로서 커다란 힘을 갖게 되자 여신들을 괴롭히다가 개과천선하여 평생 독신으로 살아 갈 것을 맹세하였기 때문에 젊은 청년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다.

四天王은 『佛說長阿含經』에서부터 나오는 인도 재래의 신인데, 불교에서 본격적으로 불법외호중으로 삼기 시작한 것은 대승불교가 성행하면서 부터라고 생각된다.<sup>135)</sup> 이들은 수미산 중턱 4면의 사천국을 다스리는 왕인데 불교의 수호신이 되어서 사방을 지키는 수호신이 되었다고 한다. 그 모습이 처음부터 규정된 것은 아니고 인도에서는 귀족의 모습으로 중앙아시아나 중국, 우리나라로 전파되는 동안 무인상으로 변형되었다.

사천왕의 명칭은

東方天王은 持國天王: Dhṛta-rastra,

南方天王은 增長天王: Virudhaka,

西方天王은 廣目天王: Virupaska,

北方天王은 多聞天王: Vaisravana 이다.

134) 이승희. 「조선 후기 신중탱화의 도상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87). p. 55.

135) 사천왕을 불법의 수호신으로 강조한 경은 『金光明最勝王經』, 卷6 「四天王護國品」과 『佛說四天王經』이다.

<표 8> 佛陀八部衆과 四天王八部衆

佛陀八部衆	四天王八部衆
1. 天(Deva)=欲界, 無色界의 諸天帝王이나 보살의 모습	1. 乾闥婆(Gandharva)
2. 龍(Naga)=八大龍王의 총칭, 용의 모습 또는 人身龍頭	2. 昆舍闍(Piśāca)
3. 夜叉(Yaksa)=一頭三面的 鬼神, 창·칼·활 등을 가짐	3. 鳩般荼(Kumbhanda)
4. 乾闥婆(Gandharva)=樂神으로 樂器를 들	4. 薛荔多(Preta)
5. 阿修羅(Asura)=싸운을 잘하는 srnlts, 손에 병장기를 들	5. 龍(Nāga)
6. 迦樓羅(Garuda)=金翅鳥로 龍을 잡아 먹는 새, 人身鳥頭이나 용을 쫓는 새 모양	6. 富單那(Putana)
7. 緊那羅(Kimnara)=짐승인지 새인지 사람인지 구별할 수 없는 歌舞神	7. 夜叉(Yaksa)
8. 摩睺羅(Mahoraga)=蛇頭人身의 樂神	8. 羅利(Rāksasa)

그러나 도상에 있어서는 일정하지가 않다. 신라시대까지는 보통 왼손에 모두 창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광목천은 붓 또는 붓과 책, 다문천은 탑을 가지는 것이 특징 이었고 그 외에는 칼을 가졌다.<sup>136)</sup> 조선시대에 와서 지국천왕은 비파를 증장천왕은 보검을 광목천왕은 용과 여의주 또는 羈索을, 다문천왕은 보탑을 받쳐 든 모습이 보편적으로 되어 있다.<sup>137)</sup>

八部衆은 불법을 수호하는 佛陀八部衆과 사천왕의 亞將인 四天王八部衆의 두 가지가 있다. 신중탱에서 호법신신들은 불법의 수호와 부처님을 외호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불타팔부중이라고 생각된다.

제석천룡탱은 제석천과 日·月天子를 비롯한 천부상, 위태천을 위시한 무장의 천룡팔부중을 함께 그린 형식이다. 제석천의 권속으로는 왕의 모습을 한 일궁천자와 월궁천자, 주악천녀, 4보살 등이, 위태천의 권속으로는 팔부중이 묘사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이 형식의 신중탱은 제석천이 상단에 위태천이 하단에 모셔지는 형식이다.

136) 경북 영주 부석사 조사당의 벽화가 이것을 충실히 따른 사천왕도 이다.

137) 『藥師琉璃光王七佛本願功德經』念誦儀軌供養法에서 유래한다고 추정.

19세기의 제석 천룡탱은 위의 제석탱, 제석 범천탱 보다는 훨씬 많이 조성되었다.

<표 9> 제석·천룡탱

제석천
위태천

<표 10> 선암사 나한전 신중탱 도상구조

주악천녀	제석	주악천녀
보살		보살
무장신	위태천	용, 가루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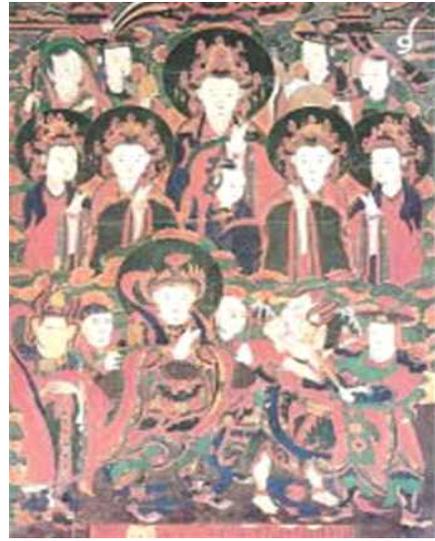
이 형식<표 9>의 신중탱은 19세기 전반에 골고루 분포 되어있고, 같은 작가로 보이는 작품들을 찾아 볼 수 있다. 선암사 나한전 신중탱<sup>138)</sup><그림 9>과 선암사 말사인 수도암 신중탱<sup>139)</sup><그림 10>이 얼굴의 표현이나 도상의 구조를 봐서는 같은 작가로 추정된다. 또 제석천의 권속으로 4보살이 등장한다. 그러나 색채면에 있어서는 나한전 신중탱은 적색과 녹색을 위주로 한 단조로운 색감을 보이거나, 수도암 신중탱은 훨씬 더 다양하고 풍성한 색감을 보인다.

138) 선암사 나한전 신중탱 1802년 101×72.5cm, 전남 순천시 선암사 소장.

139) 선암사 수도암 신중탱 1812년 107×74.5cm, 전남 순천시 수도암 소장.



<그림 9> 선암사 나한전  
신중탱



<그림 10> 선암사 수도암  
신중탱

### 3) 제석·범천·천룡탱을 중심으로

이 형식은 주존의 위치에 따라 다섯 가지의 형식으로 나뉜다. 첫 번째로 위태천이 화면의 왼쪽에 모셔지고, 제석과 범천이 오른쪽에 나란히 모셔지는 제석·범천·천룡탱, 두 번째의 형식은 위태천이 화면의 왼쪽에 모셔지고 제석천과 범천이 화면의 오른쪽에 나란히 모셔지는 제석·범천·천룡탱, 세 번째로는 제석천이 화면의 왼쪽에 위태천이 화면의 가운데에 범천이 화면의 오른쪽에 나란히 모셔지는 제석·범천·위태천이 화면의 하단에 분류되는 제석·범천·천룡탱, 마지막으로 화면의 상단에 제석천과 마혜수라천, 범천이 나란히 모셔지고, 위태천이 화면의 하단에 모셔지는 제석·범천·천룡탱으로 나뉘어진다.<sup>140)</sup>

140) 이승희, 「조선 후기 신중탱화의 도상연구」, p.130.

(1) 제 I 형식

<표 11> 제 I 형식

위태천	제석천	범천
-----	-----	----



<그림 11> 국일암 신중탱

이 제 I 형식에 속하는 그림은 해인사 말사인 국일암 신중탱<sup>141)</sup><그림 11> 이 전해지고 있다.

국일암 신중탱은 상부 좌측에 위태천을 우측에 제석천과 범천을 배치하였고, 제석천과 범천은 구별이 힘들으나, 앞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고려시대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배치구조를 볼 때 일궁천자와 월궁천자가 권속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아 가운데 모셔진 도상이 제석천으로 추정되며, 화

141) 국일암 신중탱 1887년 105× 117cm ,경남 함천군 해인사 국일암 소장.

면의 오른쪽에 배치된 보살형의 신중이 범천으로 추정된다.

또 제석천과 범천의 身光에서 제석천으로 추정되는 도상의 身光이 좌측의 보살형의 신중의 身光보다 앞으로 나와 있는 것, 모두 녹색으로 채색하였지만 제석천의 身光은 자색으로 채색하여 구별한 것을 볼 때, 우리나라에서 예로부터 하늘신을 숭배하여 왔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가운데 모셔진 보살형의 신중이 제석천일 가능성이 높다.

대체로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신중탱은 위태천의 비중이 제석천과 범천에 비해 높아지면서 위태천을 화면의 중심에 배치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국일암 신중탱은 제석천과 대범천에 비해 도상의 크기도 작고 약간 뒤쪽으로 물러서 있는 구도를 보이고 있어 위태천의 비중이 오히려 작다는 느낌을 준다.

국일암 신중탱은 19세기 말의 일반적인 신중탱의 구도와 달리 화면 구도가 비교적 단순하고 도상의 자세도 차이가 있으며, 18세기 신중탱 처럼 위태천보다 제석천과 대범천의 비중이 더 큰 구도를 보이고 있어 조선 후기 신중탱 가운데 매우 독특한 작품으로 주목되고 있다.

## (2) 제Ⅱ형식

<표 12> 제Ⅱ형식

제석천	범천	위태천
-----	----	-----



<그림 12> 경국사 신중탱

조선후기 현존하는 신중탱 중 이 제Ⅱ형식에 해당하는 그림은 동국대학교에서 소장하고 있는 경국사 신중탱<sup>142)</sup><그림 12>이 이 형식에 해당한다. 동국대 소장의 신중탱은 제석과 범천이 화면의 좌측에 배치되어 있고, 위태천이 화면의 좌측에 나란히 배치되어 있다. 도상 구조로 특이한 점은 제석천과 범천이 배치된 부분과 위태천과 그 권속들이 배치된 부분을 구름으로 나누었다는 것이 이채롭다.

142) 경국사 신중탱 1887년 130× 221cm, 동국대학교 소장.

### (3) 제Ⅲ형식

<표 13> 제Ⅲ형식

제석천	위태천	범천
-----	-----	----



<그림 13> 용문사 신중탱

이 제Ⅲ형식은 상단에 제석천과 위태천, 범천을 나란히 배치하고 하단에 무장신들과 권속을 배치한 형태이다. 이 형식의 그림은 조선시대 후기에 유행한 三世佛畵의 형식을 딴 도상구조로 무장신의 모습을 한 위태천을 중심으로 보살형의 제석천과 범천을 양쪽에 배치한 형태로 안정감이 있어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대부분 상단과 하단을 구름으로 구분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다. 직지사 말사인 용문사 신중탱<sup>143)</sup><그림 13>은 상단 화면 가운데에 제석천, 위태천, 범천을 배치하고 양쪽에 天女 2구와, 일궁천자, 월궁천자를 배치하였다. 이 형식은 다른 작품에 비교할 때 일궁천자와 월궁천자가 제석의 권속으로 배치되었던 것에 비하여 주된 신중 세분의 권속으로 표현된 점이 특히 할만하다. 그리고 하단에 산신 등 무장신들을 배치하였다.

143) 용문사 신중탱 1884년 129× 124(111 ×116)cm, 경북 예천군 용문사 소장.

(4) 제Ⅳ형식

<표 14> 제Ⅳ형식

제석천	범천
위태천	



<그림 14> 송광사 대지전 신중탱

천부 천룡탱의 도상구조 중에 가장 많은 작품이 전해지고 있다. 이 형식 역시 제석천과 범천상이 모셔져 있는 하단부가 구름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상단부에는 주된 신중인 제석천과 범천과 천동 천녀가 일궁천자·월궁천자와 보살상들이 모셔지고 하단에는 위태천을 위시한 무장신들과 천룡 팔부중들이 모셔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단부의 제석천과 범천은 정면상이

거나, 서로 마주 보고 있거나, 한 분은 4/3측면을 하고 있고 또 다른 한 분은 정면을 하고 있고, 하단부의 위태천 역시 정면상이거나 4/3측면 상을 하고 있다. 이들 신중의 구도는 역삼각형 구도가 대부분이다.

이 형식에 대표하는 작품으로는 송광사 대지전 신중탱<sup>144)</sup><그림 14>이다.

송광사 대지전 신중탱은 상하를 2단으로 분리하여 상단의 윗부분에는 제석과 범천을 배치하고 좌우에는 이들보다 작은 모습으로 합장을 하고 있는 동자·동녀를 묘사하였다. 그 아래로는 규를 들고 있는 일궁천자·월궁천자와 공양물을 들고 있는 천녀들이 있다. 제석과 범천은 보살형으로 화려한 적색 보관을 쓰고 녹색 광배에 하얀 테두리 선이 있다.

제석천은 합장을 하고 서 계신 모습이라면 범천은 범천 등 뒤로 보이는 것으로 보다 범천의 依坐像의 모습을 하고 있다. 제석천은 오른쪽 삼분의 일 측면을 향하고 있고 범천은 정면을 향하고 계신 구도다.

하단 아래 부분에는 합장을 한 위태천 역시 제석천과 같은 측면을 향하고 서 있고 화려한 깃털과 장식이 있는 투구를 쓰고 있다.

---

144) 송광사 대지전 신중탱 146×101cm, 순천 송광사 정보박물관 소장.



<그림 15> 천은사 수도암 신중탱

위태천 주위로 합장을 한 천신과 투구를 쓴 무장신들을 배치하였다.

화엄사 말사인 천은사 수도암의 신중탱<sup>145)</sup><그림15>은 19세기 후반기에 그려진 작품이다.

이 작품은 제석천과 범천이 배치되어 있는 상단은 손상이 많이 되어 얼굴의 표현을 알아보기 힘들다, 위태천이 모셔져 있는 하단부는 비교적 깨끗하게 보존 되어 있어 조선 후기에 서양화의 기법이 불화 제작에 도입된 것을 볼 수 있는 좋은 예이다. 구름의 바림질<sup>146)</sup>과 얼굴의 표현에 있어서 바림질을 하였으나, 도식적이고 입체감을 느껴 볼 수 없었으나, 이 작품에서는 구름의 표현을 서양화 기법을 사용해 입체감 있고 실재감 있게 표현하였고 얼굴의 표현에 있어서도 명암 기법을 이용해 볼륨감 있고 사실적

145) 천은사 수도암 신중탱 1897년 192.5×126cm, 전남 구례군 천은사 소장.

146) 바림질: 불화에서 구름이나 옷의 입체감을 주기 위해 밝은 색깔과 어두운 색이나 두 가지의 다른 색을 채색 할 때에 색과 색의 경계를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하는 채색의 방법으로 서양화 기법에서는 Gradation이라고 한다.

인 표현을 볼 수 있다. 색조 또한 조선 후기의 불화의 격을 떨어뜨리는  
명도가 밝은 청색을 쓰긴 했으나, 그 빈도 수가 많지 않아 작품의 격조를  
떨어뜨리기보다는 오히려 작품에서 포인트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작품은  
전통 수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수법을 받아들인 당대를 대표할 만하다.

(5) 제 V 형식

<표 15> 제 V 형식

제석천	마혜수라천	범천
위태천		



<그림 16> 극락암 신중탱

상단에 제석천과 범천, 하단에 위태천이 모셔져 있는 이단 구조인 것은 위의 제IV형식이랑 동일하나, 제석과 범천 사이에 마혜수라천이 추가 배치되어 있는 도상이다. 범어로 마혜수라천이라고 불리는 신중은 大自在天, 自在天, 自在天王 이라고도 한다.

마혜수라천은 인더스 문명시기(기원전 3000~1500)의 토착 신이었던 루드라가 힌두교에서 시바신으로 변형된 것이다. 인도사람들에게 몬순(계절

풍)은 두려움의 대상이었는데, 거친 소의 위력이 마치 문순 같다고도 하여 소를 중요시하고 신성시했으며 또 두려워하였다. 이러한 猛牛를 제어할 수 있는 신이 바로 대지에서 생성된 루드라였던 것이다. 따라서 인더스 문명 시기부터 소와 함께 신성시 되었고 신앙되었다. 아리안 족의 침입으로 인더스 문명이 파괴된 이후에도 루드라와 소는 따로 분리되지 않고 신봉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신앙의 전통은 시바가 난딘(Nandin)이라는 흰 소를 타고 다니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파괴의 신인 대자재천이 이 불교에 유입되어서는 世界の 정상에 있는 色究竟天의 自在天宮에 살며 三界 가운데 일체의 物을 창조한 신으로 신앙 되었다. 또한 色究竟天의 광명은 地自在天과 같고 지자재천의 광명은 佛의 광명과 같다고 할 정도로 최고의 신으로 숭배되었다고 한다.<sup>147)</sup>

신중탱에서 마혜수라천은 제석천과 범천과 사이에 주로 배치되는데 대부분 눈이 3개이고 8개의 팔을 가진 형상으로 두 팔은 어깨 부분에서 해와 달을 받쳐 들고 있는 보살형의 모습이다. 마혜수라천은 여덟 개의 팔을 가진 도상으로 표현될 때도 있고, 제석천과 범천과 같은 보살형으로도 표현될 때도 있다. 지물로써는 해와 달 이외에 금강령과 금강저, 칼, 창 등을 들고 있다.

조선후기의 천부·천룡탱 제V형식에 속하는 작품으로 대부분 이단 구조로 상단에는 제석천, 마혜수라천, 범천을 배치하고 하단에는 위태천을 배치하였는데 특이한 점은 이 구조에서는 용왕이 상당히 비중 있는 도상으로 나온다는 점이다. 또 이 형식의 도상에서는 범천은 이마에 세로의 눈을 가진 모습으로 많이 그려졌다.

통도사 말사인 극락암 신중탱<sup>148)</sup> <그림 16>은 상단 왼쪽부터 제석천, 마혜수라천, 범천을 모시고 역 ㄱ자 형식으로 상단이 권속들이 하단까지 침범하고 구름으로 분류된 하단의 가장 오른쪽에 위태천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자굴에서 마혜수라천은 세 개의 눈을 가지고 있으며, 8개의 팔 중에 두 팔은 합장하고 있고, 두 팔은 해와 달을 받쳐 들고 있으며, 다른 두 팔은 금강저와 금강령을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147) 안벨리제 저, 김재성 역, 『힌두교의 그림언어』, (동문선, 1994), pp. 195-196.

148) 극락암 신중탱 1818년 132.5× 106cm, 경남 양산시 통도사 극락전 소장.

### 3. 제3형식-예적금강을 중심으로

#### 1) 금강탱

이 도상 구조는 大穢跡金剛을 중심으로 제석천과 범천 및 위태천 등 그 외의 신중들이 묘사되는 형식이다. 조선 후기 초부터 새로운 도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금강탱은 조선후기의 신중탱 중에서는 5개의 작품이 현존하고 있다. 그리고 조선후기 말부터는 신중탱의 중요한 도상이 되었다.

大穢跡金剛: (Ucchusman, 烏木區沙摩)은 일체의 악을 제거하는 위력을 가진 명왕으로 온몸에서 지혜의 불길을 뿜으므로, 火頭金剛이라고도 하며 밀교적인 조상이다. 대예적금강은 8금강<sup>149)</sup>예적금강도상이 제일 처음 보인 김룡사 신중탱<sup>150)</sup><그림 17>은 화면을 무지개 빛 구름으로 삼등분 하여 제일 상단에는 천동·천녀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있고 그 밑 중단에는 범천과 마혜수라천 제석천이 명왕들과 함께 배치되어 있으며, 하단에는 8금강상의 호위를 받고 있는 예적금강신과 그 밑에는 위태천이 무장신들과 함께 배치되어 있다.

---

#### 149) 8금강

靑除災金剛 : 중생의 재앙을 소멸하는 금강 금강성자의 분신으로 동방신

碧毒金剛 : 有情의 癩黃과 諸毒을 破하는 금강, 금강성자의 분신

黃隨永金剛 : 모든 공덕을 주재하는 감강 금강성자의 분신으로 중앙신

白淨水金剛 : 諸寶藏을 주관하는 금강성자의 분신으로 서방신

赤聲火金剛 : 佛光明을 모시고 모든 질병을 소멸하는 금강, 금강성자의 분신으로 남방신

定除災金剛 : 地神의 慈眼으로 중생을 보고 知慧로서 재앙을 경계하는 금강

紫賢神金剛 : 地神의 비밀을 파헤쳐 중생을 깨닫게 하는 금강

大神力金剛 : 사물을 따라 方便을 가설 지혜를 성취하게 하는 금강

“만약 금강경을 受持하는 자가 있으면 먼저 至心으로 淨口業眞言을 염송한 후에 8금강과 4보살의 名號를 啓請하면 머무르는 곳 어디에서든 항상 擁護할 것이다”라고 쓰여 있어 8금강과 4보살이 금강경과 함께 그강경을 소지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신중임을 알 수 있다. (“若有人 受持金剛經者 先須至心念淨口業眞言然後 啓請八金剛四菩薩名號 所在之處常當擁護”. 봉림사 소장 1339년 목판본 細小字 金剛般若波羅密經의 啓請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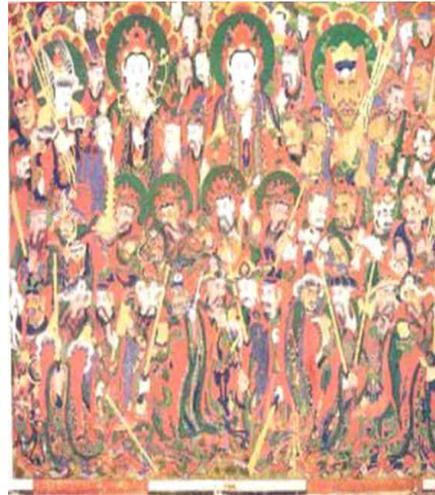
150) 김룡사 신중탱 170× 126cm, 경북 문경군 김룡사 소장.

<표 16> 김룡사 신중탱의 도상 구조

범 천	마혜수라천	제석천
예적금강 위태천		



<그림 17> 김룡사 신중탱



<그림 18> 김룡사 신중탱

이 그림에서 표현된 예적금강신은 조선 후기 예적금강신 중에 가장 처음 나타난 것으로 다른 신들에 가려서 얼굴만 보이는데 귀 위에서 치켜 올라간 빨간 머리를 하고, 정수리에는 관을 쓴 모습이며 2개의 눈을 가진 평범한 신장상이다. 이 예적금강은 분노한 형상으로 표현되지도 않았다.

같은 해에 조성되었던 김룡사 신중탱<sup>151)</sup><그림 18>에서는 상단 맨 왼쪽에 위태천이, 상단 중앙에 범천과 제석천이, 상단 맨 오른쪽에는 예적금강이 배치되고 있는데 여기서 예적금강은 머리에는 해골로 보이는 머리띠 같은 것을 하고 있고 손에는 금강저를 지물로 들고 8금강의 호위를 받으며 배치되고 있다.

<표 17> 석남사 신중탱의 도상 구조

제석천	위태천
예적금강	



<그림 19> 석남사 신중탱

1863년에 제작된 석남사 신중탱<sup>152)</sup><그림 19>역시 황색 조의 구름과 녹색 조의 구름으로 上下 二段으로 나누어 상단에는 왼쪽으로부터 제석천과

151) 김룡사 신중탱 1803년 237×279cm, 경북 문경군 김룡사 소장.

152) 석남사 신중탱 1863년 197×164cm, 경남 울산시 석남사 소장.

위태천 그의 권속들을, 하단에는 예적금강과 8금강 중에 4분의 금강만을 배치하고 있다. 처음으로 三面三目に 六臂를 가진 예적금강이 나타났다. 이 도상은 뒤에 언급될 해인사 124위 신중탱에서의 예적금강신과 옆 얼굴에서 불을 뿜지 않는 것만을 제외하고는 도상의 형태가 거의 흡사하다. 녹색의 두광에 빨간 머리가 귀 위에서 솟아오르고 삼면의 얼굴은 분노상이며, 6개의 손중에 오른쪽 제일 첫 번째 손에는 數珠를, 왼쪽 첫 번째 손에는 금강령을, 두 번째 손은 합장을 하고 있고, 나머지 손은 선정인과 비슷해 보이는 수인을 하고 있다. 또한 예적금강의 권속으로 나오는 4금강들도 역동적이다.

1867년에 제작된 용문사 신중탱<sup>153)</sup><그림 20>은 화면에 제석천·범천, 예적금강, 위태천을 나란히 배치한 형식으로 왼쪽에는 제석천과 범천 일궁천자와 월궁천자, 명칭을 알 수 없는 천자 두 분과 주악천녀들, 천동과 천녀들이 배치되어 있고, 중앙에는 예적금강과 8금강, 2보살이 배치되어 있고, 맨 오른쪽에는 위태천과 용왕, 무장신들과 산신과 조왕신이 배치되어 있으며 사이사이에는 초록색과 황토색 계열의 구름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 작품에서는 예적금강신은 머리에는 해골로 만든 띠를 두르고 있고 분노상의 삼면의 얼굴에는 날카로운 이빨이 얼굴 밖으로 나와 있고 중앙의 얼굴에는 이마에 눈이 하나 더 있는 三面三目的 얼굴이다. 근육이 불거진 여섯 개의 팔을 가지고 있으며 각 손에 들고 있는 이 예적금강의 지물<sup>154)</sup>들을 살펴보면 위로 번쩍 받들어 올린 손에는 뱀을, 왼쪽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있다. 아래쪽의 두 손 중에 오른쪽엔 칼을, 권속들에게 가려져 잘 보이지는 않지만 왼쪽에는 오색 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적금강의 온몸에는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어, 분노하는 예적금강의 모습이 이전의 예적금강의 모습보다 훨씬 더 잘 표현 되고 있다.

이 작품은 구도 상에 있어서나 표현상에 있어서 당대를 대표 할 만한 작품이다.

153) 경북 예천군 용문사 소장.

154) 예적금강의 지물로는 臂像 일 때에 杵와 棒을 4臂像일 때에는 金剛杵, 赤索, 數珠, 檢을 6臂像 일 때에는 棒, 三鈷杵, 施願印, 輪, 念珠를 들고 있다. 김정희, 『조선시대 신중탱화의 연구(2)』 『한국의 불화』⑤ 해인사 본말사편(하), (성보문화재연구원, 동국역경원 1997), pp. 240.

## 2) 39위 신중

39위 신중탱은 大自在天을 중심인물로 표현하고 있다.<sup>155)</sup>

조선 후기 신중탱에서는 「석문의법」상권 신중작법 39위 신중에 언급되지 않은 동진보살, 호계·복덕대신을 다수 채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39위에 포함되지 않는 신중이 있더라도 대자재천을 주존으로 표현한 작품을 39위 신중탱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조선 후기 39위에 상당하는 신중탱에서는 의식집에 규정된 신중이 아니더라도 인기 있었던 존상을 융통성 있게 표현하였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리고 작품에 따라 천동·천녀를 포함하여 39위이거나 39위 미만 혹은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 39위 신중의 중요 존을 표현하여 그 형식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보통 39위 신중탱에서 천동·천녀를 포함하여 39위라고 하고 있으나 이들은 의식집에서 언급되지 않으므로 이들을 제외하고 거목되는 신중의 수만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신중탱은 성격과 위계가 같은 신들의 모임 즉 천부와 천룡부, 명왕부의 3요소로 구성된다. 천부와 천룡부, 그리고 명왕부에는 각각 다양한 신장상이 표현되는데, 그 상들의 배치와 인물의 가감으로 변화가 풍부한 신중탱을 구성한다.

신중탱의 화면구성에서 천부, 천룡부, 명왕부의 소속신들을 <표 18> 신중탱의 화면구조를 보면 알 수 있다.

---

155) 김정희, 「조선시대 신중탱화의 연구(2)」, 『한국의 불화』4, 해인사 본말사편(하), (성보문화재연구원, 1997), p.239.

<표 18> 신중탱의 화면구조

	천부	천룡부	명왕부
주존	제석	위태천 혹은 天	예적금강
	제석·범천		
	제석·범천·마혜 수라천		
중요권속	일천자와 월천자	천룡팔부	8금강과 4보살
	천자	사천왕	
	일궁보살과 월궁보살	금강	
	주악천녀	산신	
	천동과 천녀	조왕신	
	2보살 혹은 4보살	도교적인 신	
	무장신		

<표 19> 용문사 신중탱의 도상 구조

제석·범천	예적금강	위태천
-------	------	-----



<그림 20> 용문사 신중탱

신중탱의 구성은 1867년 그려진 용문사 신중탱<sup>156)</sup><그림20>에서 잘 나타난다.<sup>157)</sup>위의 금강탱에서도 대표 할 수 있는 작품으로 언급했지만, 그룹과 그룹 사이는 황색과 적색, 녹색이 섞인 구름문으로 구획되어, 같은 위치에 속하고 성격이 유사한 신들끼리 모여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림 20-1> 천부, 용문사  
신중탱 왼쪽 부분



<그림 20-2> 천룡부, 용문사  
신중탱 오른쪽 부분

화면의 좌측은 천부로서 상단<그림20-1>의 오른쪽에 제석과 범천이 마주본 채 합장을 하고 서 있고 그 아래쪽으로는 여러 권속과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천녀들이 다양한 자세로 묘사되어 있다 천부란 명칭은 제석천, 범천 마혜수라천이 중요 도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다. 즉 불교에서 제석천은 欲界 六天中 第四天인 忉利天(三十三天)主이고 범왕은 色界 初禪天의 第三天王이고 마혜수라천은 色界 第四禪天의 五耶留天王으로 모두 天에 속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편의상 붙인 이름이다. 주 존을 중심으로 일광천자, 월광천자가 주요 권속으로 등장하고 그 밖에 천자와 보

156) 용문사 신중탱 1867년 153× 318cm, 경북 예천군 용문사 소장.

157) 위 금강탱에서도 언급했지만 39위 신중탱의 구조인 천부·천룡·명왕부 三部의 구성을 설명하기 좋은 작품이기에 39신중탱에서 한번 더 언급하였다.

살이 험시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 주위에는 하늘나라의 勝妙한 세계를 나타내듯 동과 번을 든 천녀와 공양물과 天果를 들고 있는 천녀들이 배치되고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선율을 들려주는 주악천녀상이 있다.

화면의 우측 부분은 천룡부<그림20-2>로서 오른손으로 칼의 머리를 잡고 왼손으로 칼을 받쳐 든 위태천이 중간부분에 서있고 바로 아랫부분에는 용수염이 있는 용과 오른손에는 부채, 왼손에는 영지를 들고 있는 산신, 그리고 바로 옆에 조왕신과 4명의 무장신들이 배치되어 있다. 천룡부 라는 명칭은 위태천과 팔부중을 그린 탕화의 화기에서 인용한 것이다. 三十三天 이하에 속하는 神衆으로는 사천왕천에 사는 사천왕과 사천왕의 권속인 32장군 중의 우두머리인 위태천, 그리고 天의 권속인 용, 아수라, 가루라 등이 있는데 모두 천룡부에 속한다.<sup>158)</sup> 이들은 제석의 권속이거나 휘하에 있는 신들로서 하늘의 병사라는 의미로 天兵이라고도 부른다. 칼과 창을 들고 무장을 한 모습이 하늘나라의 병사임을 강조하듯 늠름한 모습이다. 18세기 후반~19세기 초반 경부터 한국의 토속신인 산신 및 조왕신과 도교적인 신인 28수 등이 등장하는데, 이러한 토속신들도 천룡부에 배치되었다.

---

158) 사천왕이 신증탱에 등장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1792년 연호사 천룡탱에서와 같이 위태천의 윗부분에 배치하여 천룡부의 권속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1781년 혜국사 신증탱에서 사천왕은 천룡부를 구분하는 구름문 위에 위치하여 제석, 범천과 함께 천부로 분류되기도 한다.



<그림 20-3> 명왕부, 용문사 신중탱 중간  
부분

신중탱에 등장하는 신들은 天 중에서 四王天 이상에 속하는 신이 있고 四王天이하에 속하는 신도 있다. 또한 축생도에 속하는 용, 가루라 혹은 아수라도에 속하는 아수라 등이 있다. 이들은 중생의 여러 층을 대표하는 팔부중으로 원래 천계에 속하지는 않지만 불법을 수호하는 호법신으로 불교에 수용되면서 천부의 권속이 되었다. 따라서 제석, 범천, 마혜수라천 등과 같이 上天에 속하는 신들의 모임을 천부라 하고, 下天에 속하거나 혹은 천의 권속이 되는 팔부중 등을 천룡부라고 이름 하여 천부와 구분하였다.

화면의 중간부분은 명왕부<그림 20-3>로서 팔을 번쩍 든 분노한 형상의 예적금강과 그 주변에 여러 가지 무기를 든 팔금강이 서 있다. 예적금강을 주존으로 한 명왕부는 19세기 초부터 등장하여 19세기 말에는 신중탱의 주요한 도상이 되었다. 명왕부라는 명칭은 예적금강이 명왕의 一尊

이기 때문에 붙인 것으로, 예적금강을 중심으로 팔금강이 호위하는 형식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신중탱에 등장하는 신들은 복잡한 구성으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3부의 간단한 구조로 이루어지고 이들 간의 위계질서는 뚜렷하다. 한편 명왕부는 밀교적인 신인 예적금강이 신중탱에 들어와서 팔금강과 함께 구성된 것으로 천부나 천룡부와는 성격이 다르다. 결과적으로 신중탱의 3부 구성은 신분적인 질서가 주가 되고 현교의 신인가 밀교의 신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림 21> 용문사 신중탱

조선후기 39위 신중탱을 대표하는 작품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1867년 용문사 신중탱<그림 20>과 1868년 용문사 신중탱<sup>159)</sup><그림 21>이다. 화면 중심축을 종으로 하여 상단에 예적금강을, 하단에 白牛를 탄 마혜수라천을 배치하였다. 또한 화면 상단에 팔부중·팔금강·토속신 들을, 하단 우측부터 범천·위태천·제석천을, 그리고 좌측부터는 사천왕 2위·4보살중 1위만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159) 용문사 신중탱 1868년 154× 318cm, 경북 예천군 용문사 소장.

맨 윗줄에 三目二臂의 분노상을 하고 있는 예적금강과 맨 아래쪽 줄에 三目八臂의 마혜수라천이 4보살과 함께 배치되어 있는 형식으로 39위 신중탱이다. 이 그림에서 위태천은 보이지 않고 마혜수라천과 대예적금강만을 주된 신중으로 모신 것이 이채롭다.

마지막으로 1961년 순천 송광사 대웅전 신중탱<sup>160)</sup> <그림 22>은 횡으로 긴 화면에 신중을 표현하였으니 실제 신중은 23위이고 나머지 16위는 천동·천녀이다.<sup>161)</sup> 그러나 의식집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39위의 주존인 마혜수라천이 표현되지 않았으나 39위 신중탱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여겨 이 글에 포함 시켰다.



<그림 22> 송광사 대웅전 신중탱

송광사 대웅전 신중탱은 천부·천룡이 중심인 39위 신중탱이다. 제석천과 범천을 중심으로 위쪽으로는 天童, 天女 群이, 위태천이 있는 하단은 四天王, 瓣材天王, 功德天王 등 무장신과 천자들이 있어 위로는 부드러운 여성적인 느낌이 하단은 강한 남성적인 느낌을 보이는 구조로 배치하였다.

화려한 보관을 쓴 보살상의 제석천과 범천은 합장을 하고 아래를 응시하며 녹색 광배에 테두리를 금색으로 처리하고 적색의 보관을 쓰고 있는

160) 송광사 대웅전 신중탱 1961년 153×272cm, 순천 송광사 성보박물관 소장.

161) 『한국의 불화』6, 송광사 본말사편(상), (성보문화재연구원, 1998), p234.

데 보관 가운데 적색의 큰 보주가 있고 보주의 테두리는 녹색의 띠고 있으며 여러 색의 장식이 있다. 머리는 타래모양으로 목까지 내려오고 옷자락의 말림은 연꽃을 연상시킨다. 제석천과 범천은 다른 천녀, 신들과 다르게 검은색으로 테두리를 칠하여 분리된 느낌을 주며, 범천 주위에 악기를 부는 주악천녀와 구슬을 들고 있는 천녀, 동녀들이 있고 제석천 주위에는 공양물을 들고 있는 천녀, 합장을 하고 있는 천녀, 장난스러운 표정의 천동들과 합장한 동녀들, 번을 들고 있는 천녀들이 있다. 시선이 한곳만 응시한 것이 아니라 여러 곳을 쳐다보고 있다.

위태천은 녹색 광배에 금색 테두리가 있고 화려한 깃털과 적색의 장식이 있는 투구를 쓰고 있고 화려한 갑옷을 입었으며 갑옷 배 부분에는 호랑이 얼굴 같은 사나운 짐승의 얼굴이 그려져 있다. 위태천 몸을 구름이 둘러싸고 있으며 흰 천을 두르고 꽃모양의 장식이 있다. 위태천은 삼지창을 잡고 있으며 신발 발등 부분에 깃털처럼 모양이 있다. 중간 중간에 청색으로 마무리를 하고 위태천도 옷자락 말림이 연꽃을 표현하고 있다. 위태천 주위에는 작은 용이 보이고 불의 신처럼 머리에 불모양의 신이 검은색 신이 있고 사천왕신들이 배치되어 있다.

근대로 가까워질수록 복장이나 장식들이 화려해지고 조금은 난해해진다.

#### 4. 4형식-諸位 신중탱: 104위 신중

104위 신중탱은 『화엄경』에 등장하는 신중 이외에도, 중국과 한국의 토속신들이 가미되어 형성된 신중탱의 한 양식이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도상이라고 생각이 든다. 주로 상·중·하, 3단으로 나뉘는데, 상단에는 대예적금강, 8금강, 4보살, 10대 명왕 등 밀교적인 신들이 중심이 되어 있고, 중단은 범천, 제석천, 사천왕, 팔부중 등 원시불교의 호법신과 성군등 중국 도교의 신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또, 하단에는 인도의 한국 토속신들이 함께 표현되는 등 다양한 성격의 신들을 함

게 모아 신앙하고 있다.

39위 신중은 『화엄경』권1 「세주묘엄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에 비해, 104위 신중은 경전에서 근거를 찾기 힘들다.<sup>162)</sup> 그런데 일부 의식집을 해설하면서 이를 화엄 신중으로 언급하고 있거나<sup>163)</sup> 현존하는 신중탱은 『화엄경』중심의 신중이라고 하고 있다.<sup>164)</sup> 그러나 104위 전체를 화엄신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이 104위 신중은 먼저 『범음집』중권에서 팔금강·사보살만 언급되고, 『석문의범』상권에서 104위 전체 존명을 들고 있어 신중탱 연구의 지침이 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석문의범』은 각 신중들에 관해 그 기능을 수식어구로 표현하고 있다. 특히 1890년 통도사 자장암 신중탱은 조선 후기 신중탱을 제작할 때 화사들이 의식집을 참고하였음을 잘 보여주는 예가 된다. 二儀三才五行大神이 神衆護暮作法 神衆位目(104위) 좌변 위 신중위목에서는 언급되고 있어, 『석문의범』의 신중작법과 일치하고 있어 『석문의범』을 참고하여 삽입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상 104 신중작법을 정리하면, 상중하단의 위목이 의식집 대부분 일치하며 일부 민속신 명칭의 차이나 순서가 다를 뿐이다.

---

162) 김정희, 「조선시대 신중탱화의 연구(1)」, 223쪽에서는 이는 경전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있다.

163) 법회연구원 편역, 『常用 佛教儀式解說』, (경우서적, 2004), p. 108 중단정근. 南無一百四位 常主護法 華嚴聖衆...華嚴聖衆慧鑑明 四注人事一念知 哀愍衆生如赤子 是故我今恭敬禮.

164) 김정희, 「조선시대 신중탱화의 연구(1)」, p. 221.



<그림 23> 해인사 신중탱

보통 104위 전체를 화엄 신중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그 구성상 착오가 있는 것으로 재고의 여지가 있다. 이들은 『화엄경』에 등장하는 30위 신중 외에 중국·한국 등지의 토속신이 가미되어 조선 후기에 이르러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창안된 도상으로 여겨진다. 『석문의범』상권 등 불교 『의식집』에는 상단, 중단, 하단으로 이루어진 104위 신중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먼저 상단의 대예적금강, 8금강, 4보살, 십대명왕 등은 밀교적 신들이고, 중단의 범천, 제석천, 사천왕, 팔부중은 원시불교의 호법신이며, 하단의 星君 등은 중국 도교의 신들이 주류라고 한다. 이상 104위 신중은 인도와 한국의 토속신과 함께 표현되는 등 다양한 성격의 신을 보아 신앙됨을 보인다고 하였다.<sup>165)</sup> 그런데 성군을 하단으로 분류하였지만 『석문의범』에서는 중단에 귀속시키고 있다.

165) 김정희, 「조선시대 신중탱화의 연구(2)」, pp 239-240.

<표 20> 해인사 104위 신중탱의 도해

①					①
		②		③	
⑧	④	⑦		⑤	⑧
			⑥		
①					①

- ① 사천왕    ② 제석천    ③ 범천    ④ 예적금강  
 ⑤ 마혜수라천    ⑥ 위태천    ⑦ 8금강    ⑧ 4대보살

104위 신중탱의 대표적인 작품은 1862년 해인사 대적광전 신중탱<sup>166)</sup> <그림 23>은 124위라고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는 23위(천동 12위+천녀9위+持扇男2위)와 100위 신중을 표현하여 총123위위를 등장시키고 있다. 화면은 마름모꼴로 중요존을 배치하고, 상단에 범천·제석천, 중단에 마혜수라천·예적금강, 하단에 동진보살로 화면의 중심을 잡고 있다. 이들 중 신중의 위계는 화면 중단의 마혜수라천은 39위이 제1존이고 예적금강은 104위의 제1존이며, 예적금강의 手迹인 팔금강과 사보살을 중단에 배치하고 있으므로 중단이 화면 내에서 104위 중 상단 신중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화면 상단에는 20제천 및 제성군을 표현하고 있어 104위 중 중단 신중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화면 하단에 위태천신으로 중심을 잡고 있긴 하지만, 이 존상은 조선 후기 신중탱의 중요존으로서 자리한 것이다. 실제로 하단에는 동진보살과 좌우 사천왕 2위를 제외하면 竈王神·山神 등 43위의 104위 중 하단 신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해인사 신중탱은 의식집의 104위 신중을 상중하단의 삼단 분법에 따라 화면을 횡적인 구도로 분할하여 위부터 중단-상단-하단 신중을 배치한 것이다.

166) 해인사 대적광전 신중탱 1862년 348× 315.5cm, 경남 합천군 해인사 소장.



<그림 24> 범주사 신중탱

또 다른 조선후기의 104위 신중탱은 충북 보은에 있는 범주사 대웅보전 104위 신중탱<sup>167)</sup> <그림 24>이다. 이 작품은 해인사 104위 신중탱과는 달리 상·중·하단의 구별이 없어 신중들은 칩칩이 쌓아 놓은 듯 배치되었다. 그림의 밑에서부터 2/3정도 되는 곳에 중앙에 三面六臂六目的 분노상의 대예적금강, 천룡팔부중에 둘러 쌓여 주된 신중탱으로 배치되었다. 이 두 작품은 조선후기를 대표할 만한 작품이며 1930년에 제작된 표충사 신중탱으로 명맥이 이어진다.

167) 범주사 대웅보전 신중탱 1897년 충북 보은 범주사 소장.



<그림 25> 표충사 신중탱

경상남도 밀양시 표충사<sup>168)</sup><그림25>의 104위 신중탱에서는 예적금강은 화면의 중앙에 다양한 신중이 호위하고 있으며, 매우 강한 인상을 주고 있다. 두광과 거신광에서 불타오르는 불꽃 가운데 청흑색의 몸에 虎皮裙을 입고 눈을 부릅뜬 분노한 형상으로 3面, 3目, 역발한 머리, 그리고 해골 머리띠, 그리고 각 팔에는 청룡이 불법의 상징물인 삼고저, 법륜, 창, 금강령, 羅索, 검 등의 지물을 외호하고 있다.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가는 시기에 명왕을 그린 탕이 출현하고 점차 확실한 도상적인 변천을 하며 명왕상이 신중탱의 중심신으로 자리 잡은 것은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즉 예적금강이 등장하는 19세기 후반은 고려후기와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 혼란된 시기였으므로 사회를 정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消災的인 기능을 가진 신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의식적인 측면에서 17·18세기 이후 여러 가지 의식문을 종합하여 새롭게 정립되면서 수륙도량의 수호를 담당하던 예적금강이 모든 의식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168) 표충사 1930년, 249×281.5cm, 밀양 표충사 소장.

## IV. 조선 후기 신중탱의 도상적 특징과 의의

### 1. 도상적 전개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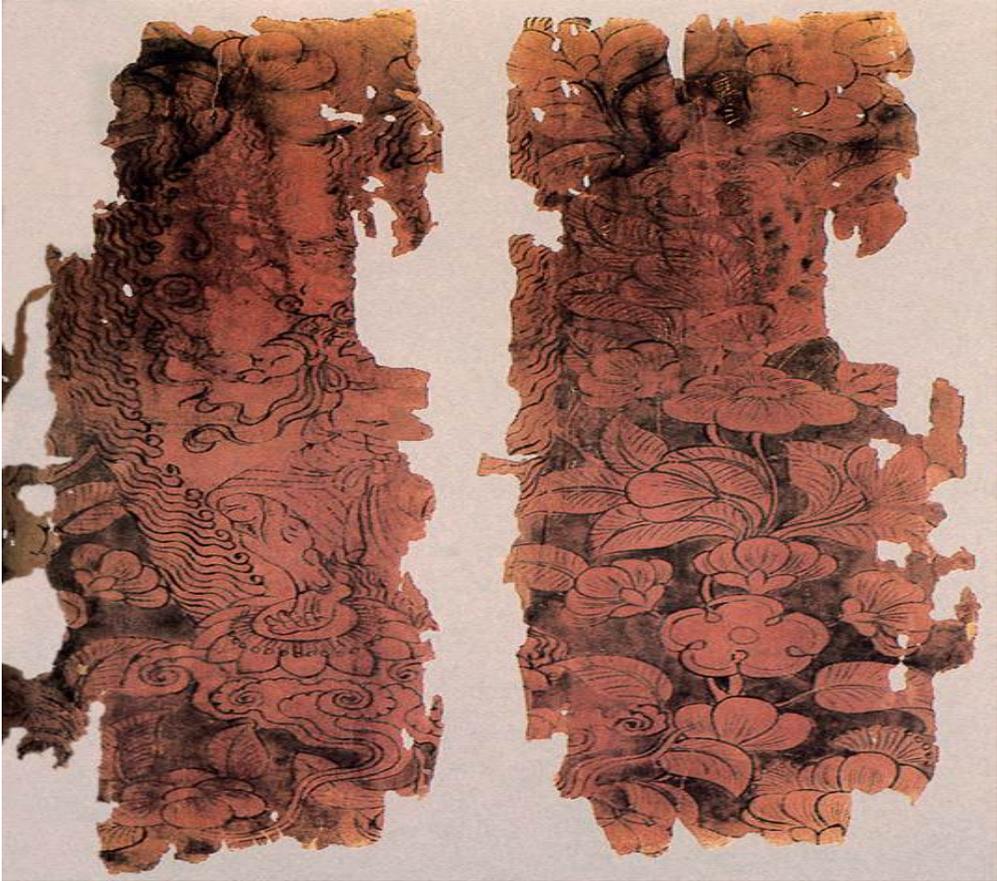
신중탱은 조선시대에 독립된 신앙으로 중요시되어 중요한 전각마다 주된 불화와 같이 모셔 졌다는 것은 앞에서 언급 한 바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 이전에는 조선시대의 신중탱과 같은 도상으로 나타나지 않았고 다만 각종 불화에서 불법을 수호하고, 부처님을 외호하는 기능을 가진 권속으로만 그려졌고, 무리를 지어있는 조선시대의 신중탱의 형식보다는 독존형식의 신중탱이 유행한 것으로 보인다.

불교의 전래와 동시에 신중 신앙도 전래되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고, 신중신앙은 조선시대만큼 성행하지 못했을지라도, 조선시대 이전에도 각종 도상이 제작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고려시대 불화에서 보이는 것 이전에는 불화의 도상으로 남아 있는 것은 없고, 통일신라 탑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탑신부에 신장상을 조성한다거나, 각종 불교 공예품에 신장의 모습이 나타날 뿐이다. 신중의 모습이 도상에서 제일 처음 나타나는 것은 우리나라 불화상 최초의 불화로 현존하는 大方廣佛華嚴經變相圖<sup>169)</sup><그림 26>의 왼쪽의 부분에서 근육이 불거진 팔과 다리가 보이는 것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169) 통일신라 정덕왕 13년 754년에 연기법사가 간행을 시작, 다음해인 755년 에 완성된 것으로 국보 제196호. 두루마리 형태, 29×1390.6cm, 삼성미술관 lecum 소장.



<그림 26> 대방광불화엄경 변상도

이 작품은 신중의 얼굴이나 몸의 전체가 다 남아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여지는 오른쪽 다리와 팔에서 신중의 역동적인 모습을 찾아 볼 수 있으며 다리와 팔의 비례를 볼 때 형태상으로도 비례가 잘 맞는 신중상의 모습일 것이라고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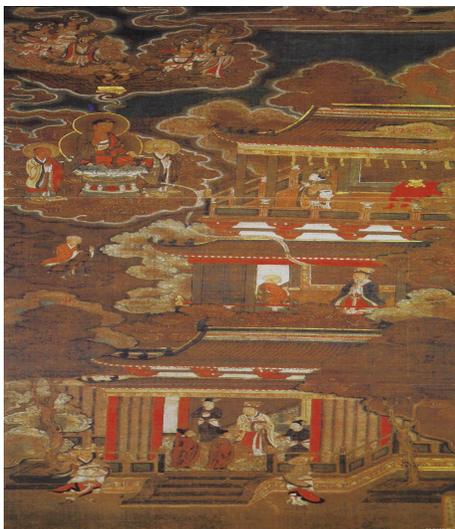


<그림 27> 圓覺經變相圖 하단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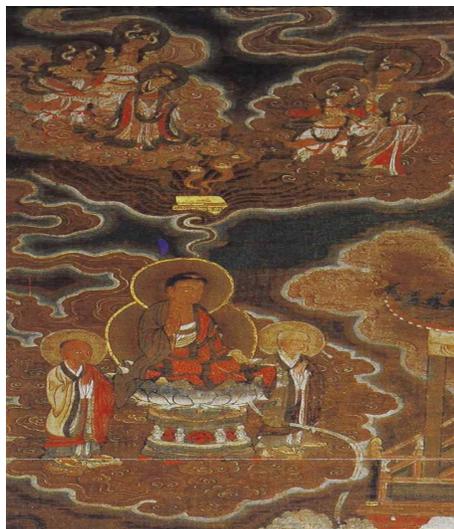
고려 시대의 圓覺經變相圖<sup>170)</sup><그림 27>의 하단부분에는 각종 신중들과 제석과 범천을 찾아 볼 수 있는데 이 그림은 제석과 범천의 도상적으로 위치하는 것을 명백하게 밝혀 주는 중요한 그림이다. 그림에서 맨 밑의 줄에 보면 맨 오른쪽 아랫줄에 눈을 세 개 가진 보살형의 신중이 범천이라고 명문이 쓰여져 있고, 왼쪽 같은 위치에는 제석천이라고 명문이 새겨져 있어 조선시대에까지 제석과 범천의 도상적 배치를 확고히 만들어 준 그림이다. 조선시대의 대부분의 그림은 이 배치 형식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170) 신중배치의 가장 기본이 되는 형식으로 주존을 중심으로 좌 제석, 우 범천의 양식적 틀을 제공하는 작품으로 평가된다.

『圓覺經』, 즉 『大方廣圓覺修多羅了儀經』의 내용을 그린 불화이다. 원각경은 고려시대에 선종의 근본 경전으로서 매우 중시되어 그 위상이 높았다. 경전의 내용은 문수보살을 비롯한 열두 보살이 부처와의 문답을 통해 부처의 가르침을 받게 된다는 것으로 각 보살의 이름을 딴 12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전에서는 주존의 존명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으나, 이 그림에서 설법하는 0과 꼬끼리를 탄 보현보살, 그리고 옆에 旁題를 두어 존명을 밝힌 보안보살, 금강장보살, 미륵보살, 청정혜보살, 위덕자재보살, 변음보살, 정제업장보살, 보각보살, 원각보살, 현선수보살로 확인되어, 경전의 내용과 일치한다. 보살들 아래에 역시 旁題로서 존명을 기재한 팔만금강, 이십팔천왕, 십만귀왕, 대범왕은 원각경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경전을 지닌 자를 수호할 것을 맹세하는 대중으로서 등장하고 있어, 경전의 내용이 이 그림에 충실히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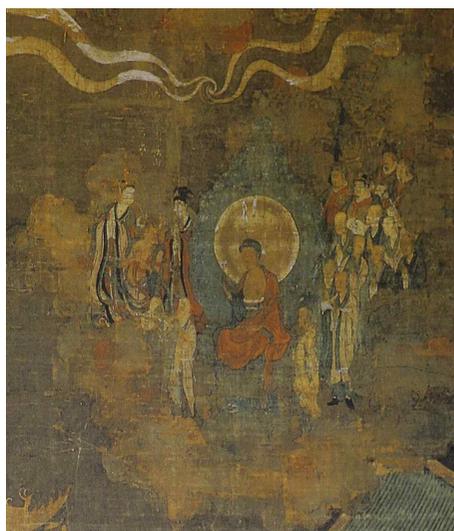
<그림 28> 관경서분변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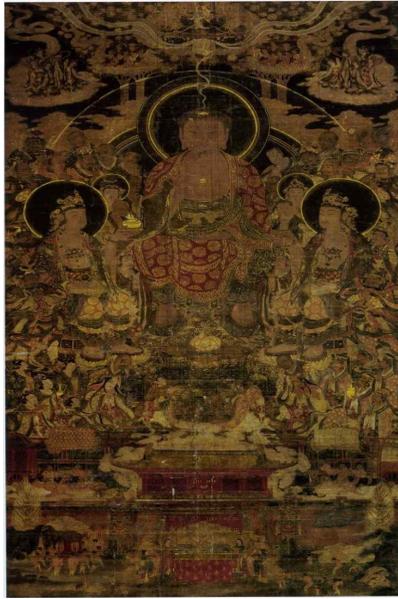
<그림 28-1> 관경서분변상도  
왼쪽 상단 부분



<그림 29> 관경서분변상도



<그림 29-1> 관경서분변상도  
상단부분



<그림 30> 미륵하생경변상도

또 觀經序分變相圖<sup>171)</sup><그림 28>와 또 다른 관경서분변상도<sup>172)</sup><그림 29>에서도 화면의 상단<그림 28-1>,<그림 29-1>에 배치되어 있는 석가의 서기 위로 구름이 만들어져 있고, 천녀와 신중들의 모습이 나타난다.

사천왕과 팔부중의 모습이 도상에 확실히 나타나는 것은 彌勒下生經變相圖<sup>173)</sup><그림 30>의 상단 미륵부처가 倚坐像으로 앉아 있는 주위에 나타나는데, 이 그림에는 미륵과 협시보살 사이에 제석과 범천도 보이고 있다.

171) 정토삼부경-『관무량수경』의 서분으로 화면구성은 3단으로 나뉘어 있는데 아랫단에는 왕비를 죽이고자 칼을 빼들고 있는 태자와 이를 말리는 두 신하의 모습이, 가운데 단에는 유배된 왕이 부루나존자에게 설법을 듣는 모습과 목련존자가 왕에게 다가오는 장면을 그리고 윗 단에는 왕비가 기도굴산의 석가여래를 향하여 구원을 요청하는 모습을 각각 묘사 하고 있다. 채색은 빨강, 녹색, 군청을 주조색으로 하면서 특히 구름 등에는 황토와 백색을 많이 사용한 것이 특징이며 묘사에 있어서는 인물, 나무, 건물 등에서 약간의 간략화가 엿보인다.

관경서분변상도 1312년 133.3× 51.4cm, 일본 애지현 대은사 소장.

172) 대각선적인 구도로 3단구조법을 사용하고 있다. 장면은 상하좌우로 나뉘어 있고 석가삼존을 중앙에 배치하고 있다. 녹색, 청색, 금색 등을 쓰는 등 색채가 은은하고 화려하다. 인물들이 좀 더 자유롭고 활달한 것 등은 안정감 있는 구도와 더불어 이 작품의 우수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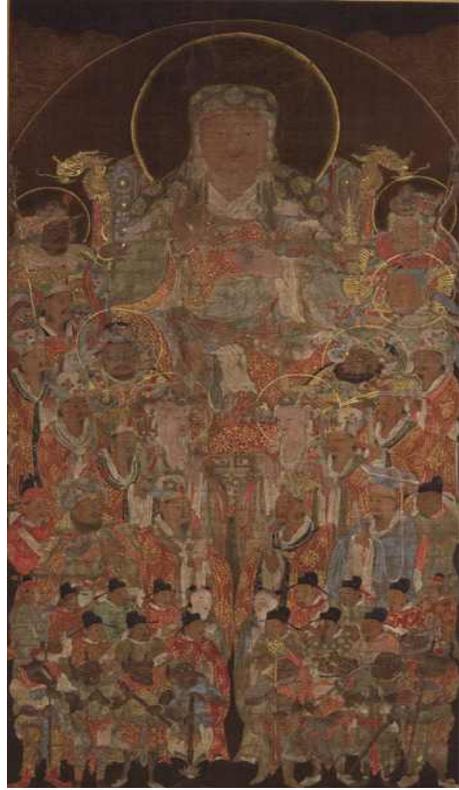
관경서분변상도 1312년 150.5× 113.2cm, 일본 서복사 소장.

173) 석가모니불이 열반에 든 뒤 56억 7천만년이 지난 후, 미륵불이 화생하여 세 번의 설법회를 열어 남은 중생을 구제한다는 『미륵하생경』의 내용을 그린 그림이다.

미륵하생경변상도 고려후기 171.8× 92.1cm, 일본 知恩院 소장.



<그림 31> 지장보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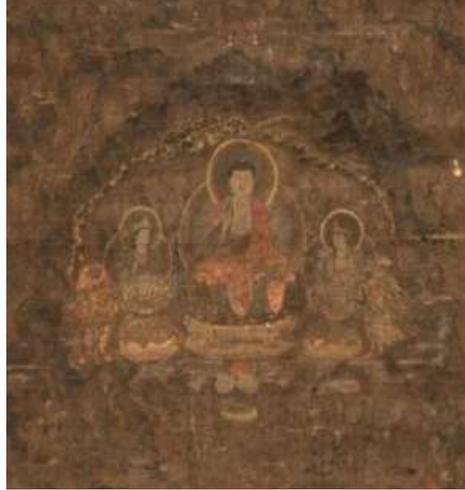
<그림 32> 지장보살도

또 고려 시대의 지장보살도에서는 제석과 범천, 사천왕이 항상 같이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호암미술관에 소장되어 있고 국보784호로 지정되어 있는 지장보살도<sup>174)</sup><그림31>이다. 이 그림은 지장보살도의 오른쪽에 눈을 세 개 가진 범천이, 그 건너편에는 제석천이 있고, 그 좌우에는 사천왕이 배치되어 있다.

일본 華藏院에 있는 지장보살도<sup>175)</sup><그림 32>에서는 사천왕 제석·범천, 그리고 시왕들과 제일 하단에는 동물의 얼굴을 가진 옥졸들이 표현되었다.

174) 지장보살도 104.3× 55.6cm 호암미술관 소장 국보 784호

175) 지장보살도 고려 115× 58.8cm, 慈恩寺 華藏院 소장.



<그림 33> 오백나한도

또한 오백나한도<sup>176)</sup><그림 33>에서도 사천왕의 모습들이 보이는데 오백나한도에 둘러싸인 석가삼존과 문수·보현 좌우에 사천왕 중에 2명을 배치하였다.

신중들의 모습을 더욱 더 확실하게 표현한 고려 시대의 불화로는 외세의 침입을 불력으로 막아 보고자 했던 고려 시대인들의 염원을 나타내기 위해 經典을 사경하거나 경판 하는 佛事가 많았는데 각 경전에는 맨 앞장의 표지에 꼭 사경화나 변상도를 넣었다.

이 변상도에서는 신중들의 모습이 꼭 나타나고 있다.

묘법연화경 제1권 변상도<sup>177)</sup><그림 34>와 묘법연화경 제2권 변상도<sup>178)</sup><sup>179)</sup><그림 35> 에도 보면 석가여래의 주변에 그를 외호하는 사천왕이 보인다. 변상도에서의 신중의 역할은 다른 불화에서 보이는 신중들의

176) 오백나한도 조서시대 188×121.4cm, 일본 지온원(知恩院)소장.

177) 제1권에는 序品과 方便品을 묘사하였다. 오른쪽에는 석가모니가 영축산에 앉아서 『묘법연화경』의 설법을 시작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왼쪽에는 부처님의 白虎相으로 비추어 본 동방세계와 아비지옥, 색구경천등이 묘사되었다. 위로는 설법을 찬탄하는 꽃비 등이 내리는 장면이 묘사된다.

묘법연화경 제1권 변상도 고려 1340년 210.2×43.6cm, 일본 나베시마보호회 소장.

178) 묘법연화경 제2권 변상도 조선 1422년 29.2×57.4cm, 불교중앙박물관 소장.

179) 제2권의 왼쪽에는 불타는 장자의 집에서 아들을 건져 내는 臂喻品の 이야기가 펼쳐진다.

역할 보다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그 이유는 경전을 편찬했던 이 유가 國難을 이겨보고자 했던 고려인들의 염원과 신증을 등장시킴으로서 그것을 타개하고자 하고, 또한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전의 내용을 수호하겠다는 뜻으로 불법을 수호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 작품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현존하는 불화 중에서 신증이 표현된 불화들을 살펴보았을 때, 신증탱은 조선시대에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통일신라시대 때부터 그 도상적 근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4> 묘법연화경 제1권 변상도

우리나라 불화 중에서 다양하고 많은 인물 수를 자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신증탱<sup>180)</sup>은 많은 호법신인들이 나오고 그 종류 또한 다양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불화에서도 마찬가지로이지만 도상 안에서 주된 신증이 누구냐에 따라 그 분류가 달라진다. 따라서 학자들마다 연구자들마다 그 형식을 분류하는 것이 조금씩 다른 점을 찾아 볼 수 있었다.<sup>181)</sup>

180) 신증탱이란 조선후기의 신증탱을 말한다.

181) 문명대氏는 1. 제석탱, 2. 제석·천룡탱, 3. 제석·금강탱 등으로 구분하였으며(『한국의 불화』, 열화당, 1977, pp.105-107), 홍윤석 교수는 1. 대예적금강신을 주축으로 하는 신증탱, 2. 제석·대법·동진보살을 중심으로 한 신증탱, 3. 제석·대법을 중심으로 한 신증탱, 4. 동진보살만을 중심으로 한 신증탱, 5. 104위 신증탱, 이외에 8대 용왕, 8부



<그림 35> 묘법연화경 제2권 변상도

조선후기에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동안 파괴된 사찰을 재건축하고 그곳에 봉안될 탱화가 필요함에 따라 다양한 탱화가 제작되었다. 이때 탱화 제작의 붐을 타고 신중탱도 많이 제작되었는데, 대규모의 인력이 필요한 괘불이나 후불탱보다 인력이나 비용이 적게들 뿐 아니라 당시 민간인의 기복적인 신앙성향을 잘 반영하였기 때문에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중인계층이상의 경제적인 부를 소유한 계층이나 혹은 상공업에 종사하여 부를 축적한 계층이 개인의 창원에서 사찰행사나 탱화제작에 발원자로서 참여한 예가 많았다. 또한 尙宮 등과 같은 왕실계층이나 양반을 비롯한 관료계층이 탱화의 주된 시주자로 등장하는 것도 19세기의 특징이다. 특히 신중탱 제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일반 시주자가 증가하는 것과 유관하다. 현존하는 18·19세기 신중탱의 수가 200여 점이 넘는 것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다.

금강을 중심으로 한 신중탱등으로 분류 하였다.(『한국의 불화연구』 원광대학교, 1980. pp.172-205), 또 정병국씨는 1. 제석탱, 2. 제석.위태천탱, 3. 위태천.팔부중탱. 4. 4보살 금강탱, 5. 제석. 범천. 위태천탱, 6. 104위 신중탱, 7. 조왕탱, 8. 칠성탱, 9. 산신탱으로 분류하였으나, 엄밀한 의미 에서 7-9는 중단신앙인 신중 신앙이기 보다는 하단 신앙이므로 신중탱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김정희씨는 1. 제석탱화, 2. 천룡탱, 3. 제석.범천탱, 4. 제석. 천룡탱, 5. 제석.범천.천룡탱, 6, 39위 신중탱, 7. 104위 신중탱, 8. 금강탱로 분류하였고 (『조선시대 신중탱화의 연구(II)』, 『한국의 불화』 ⑤, 해인사본말사편(하), 성보문화재단연구원, pp.231-241)로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승희씨는 1. 제Ⅰ유형-제석을 중심으로 한 천부(제석탱), 2. 제Ⅱ유형-천룡부를 독립된 화폭으로 표현(천룡탱), 3. 제Ⅲ유형-천부+천룡부(제석천룡합위)신중탱), 4. 제Ⅳ유형-천부+천룡부+명왕부(신중탱)로 나눴다.

## 2. 도상적 특성

신중탱의 전성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조선후기에는 많은 작품이 제작되었고 또 지금 현존하고 있다.

조선후기의 신중탱의 도상적 특성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조선후기(순종~고종)의 불화에서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구도이다. 대부분의 불화에서는 18세기와 마찬가지로 본존을 중심으로 그 권속들이 둘러싸고 있는 원형 군도 형식이 가장 기본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불화의 규모가 소형화됨에 따라 일부 권속이 간략화 되거나, 어떤 도상에서는 작아진 화면에 더 많은 권속들을 표현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화면은 더 더욱 복잡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권속의 간략화는 신중탱화에서도 18세기말부터 보이기 시작하나 대부분의 신중탱화에서는 그 전의 시기에서보다 더욱 그 구도가 복잡해지고 39위 신중도, 104위 신중도와 같이 한 화면에 많은 인물들을 표현하는 도상이 유행하였다.

그 중에서도 권속들을 여러 단에서 배치하는 수직적 구도가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유행하였다. 화면을 크게 상·하단으로 2분하여 상단에는 제석천과 위태천 및 권속들을 일직선으로 배치하고 하단에는 팔부중을 배열한 비교적 간단한 형식부터 3~5단으로 인물들을 배치하는 복잡한 형식까지 많은 작품들이 이 시대에 제작되었다.<sup>182)</sup>

이와 같이 인물을 수직적으로 배치하는 것은 구도 상에 있어서는 단조로와 보이나 많은 인물들을 배치하기에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인물 배치법은 신중탱 중에서도 가장 복잡하다고 할 수 있는 104위 신중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해인사 124위 신중탱에서는 100여명의 신중들을 10단 가량으로 정연하게 배치하여 인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질서정연함을 찾아 볼 수 있고, 법주사 신중탱은 위태천과 금강신, 제석천을 일렬로 배치한 후에 그 주위에 많은 권속들을 그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형식을 취해 복잡함 속에서도 질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

182) 문명대, 『조선시대의 불화』, 『한국의 미 16』, p.174.

또 18세기 말 경부터 일부 불화에서 본존 대좌 아래 작은 동자 2구<sup>183)</sup>를 배치하는 새로운 도상이 시작되어 조선후기에 이르러서는 큰 유행을 보았다. 동자의 모습은 머리에 흰 꽃을 꽂거나 쌍계의 모습에 손에 석장 또는 상자, 꽃 등을 들고 있는 동자를 한 쌍 배치한 것이 일반적이며 역시 일부 신중탱에서도 이들 동자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

인물 표현 면에 있어서는 그 이전 시대에서 보였던 둥글고 원만한 모습은 사라지고 인물의 모습이 점점 더 사실화되고 형식화되었으며 현실적으로 변했다. 신체의 표현은 인체 비례와 맞지 않고 4~5등신 정도의 작은 체구로 신체적 불균형이 나타나기까지 했다.

대부분의 경우에 얼굴은 이전 시기보다 더 가늘고 긴 눈, 작은 입이 얼굴 한가운데로 몰려 있어 神格은 찾아 볼 수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나, 서양화의 기법이 들어와 명암 표현과 사실적인 모습의 얼굴을 표현한 그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sup>184)</sup>

문양에 경우에는 그 이전 시기보다 문양이 많이 늘어나 장식적인 면이 강해진 것이 특성이다. 중심인물뿐만이 아니라 권속들의 옷에도 많은 문양이 시문 되었고 그 문양은 동심원문이다. 화문 등 단순한 문양이 주를 이루고 특히 기하학적 문양이 증대된 것이 괄목할만하다.

색채에 있어서는 역시 일반적인 불화와 같이 적색과 녹색이 주로 이루어 18세기에 비해 조선후기에는 채색이 어둡고 짙어지며, 부분적으로 명도가 높은 색이 사용으로 명쾌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채색의 두께가 너무 두꺼워 탁하고 무거운 느낌을 주며, 검은색, 고동색, 흰색, 명도가 높은 청색의 빈번한 사용으로 인해 고사했던 불화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되었다. 또한 흰색과 금니의 과다한 사용으로 인해 그 품격은 이전의 시대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효과를 가져왔다.

조선후기를 전기, 중기, 후반기로 나누어 볼 때, 조선후기 전반기의 가

---

183) 동자 2구의 형태는 본존 대좌 아래 공간을 만들어 그 안에 머리에 흰 꽃을, 손에 석장이나 상자를 들고 있는 동자를 한 쌍으로 배치한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쌍계의 동자가 표현되기도 한다. 이처럼 선과 악을 상징하는 동자를 강조하여 크게 표현한 것은 아마도 권선징악의 윤리를 강조하던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가 불교 도상에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김정희, 『한국 불교미술대전2 불교회화』, 한국색채문화사, 1994), pp.254

184) 문명대, 「조선후기의 불화」, 『한국의 미16』, p. 180.

장 큰 양식적인 특성은 밀교적인 성향이 강한 대예적금강신이 포함된 금강탱이라는 새로운 양식의 도상구조가 탄생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에 보이는 금강탱의 대예적금강의 도상은 아직 확립 되어있지 않으나, 새로운 도상의 창작이라는 데에 큰 가치를 찾을 수 있다.

조선후기 신중탱에 등장하는 마혜수라천은 대부분 3개의 눈과 8개의 팔을 가진 형상으로 8臂만 아니라면 범천과 동일한 보살형의 모습이다. 두 팔은 어깨부분에서 해와 달을 받쳐들고 있고 이 외에 금강령과 금강저, 칼, 창 등을 들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해와 달 대신에 집과 화염보주를 들고 있는 특이한 경우도 있다. 앞서 살펴본 천부·천룡탱과 같은 유형은 18세기 후반에서 20세기초까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유형이고 숫적으로도 전체 신중탱의 70퍼센트에 해당할 정도로 많이 제작되었다. 그러나 천부·천룡탱이라는 명칭은 ‘제석천룡합위’라는 명칭이라고도 하는데 ‘제석천룡합위’라는 명칭은 제석탱과 천룡탱이 편의에 의해서든 신앙적인 요구에 의해서든 한 화면으로 합쳐지면서 자연스럽게 쓰게 된 것이고 점차 이러한 유형의 탱화가 일반화되면서 그 명칭은 사라지고 ‘신중탱’으로 정착이 되었다. 앞서도 잠깐 살펴보았지만 ‘신중탱’이라는 명칭의 사용은 의식이 행해질 때 개별적인 신을 봉청 하던 옹호단 대신 다양한 신들을 함께 모시는 신중단이 설치되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상단에 제석과 범천이 있는 천부는 축소되고 하단에 위태천이 중앙에 모셔져 강조되고 있는 화면의 구성에서 한 가지 주목되는 점은 위태천을 중심으로 한 천룡부에서 팔부중 이외에 山神과 龍王神이 등장한다는 점이다. 조왕신은 부역신으로 집을 떠난 가족을 보호하거나 安宅을 비는 대상으로 부녀자들에게 강한 호소력을 지녔던 민간신이다. 위태천을 중심으로 화면의 왼편에 火, 水, 木, 金, 土의 五行을 상징하는 五色木片이 든 통을 들고 있는 龍王神이 있으며 화면의 오른편에 부채를 든 山神이 보인다. 산신은 고유의 산악숭배신앙이 불교화 된 것으로 19세기 이후 산신탱으로 독립 제작되어 山神閣에 봉안되었다. 일반적으로 산신탱은 그윽한 골짜기에 소나무와 기암괴석을 배경으로 산신과 정감있어 보이는 호랑이가 쭈그리고 앉아 있는 모습으로 표현된다. 산신은 보통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芭蕉扇<sup>185)</sup>이나 부채 등을 들고 있는데 이 부채는 天下를 호령하여 통솔한다

는 의미를 지닌다. 또한 산신탱에 예고 없이 그려지는 호랑이는 靈物로서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신비스러운 존재로 여겨졌다.

조왕신도 산신탱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탱화로 제작되는데, 조왕탱은 부엌신을 그린 것이므로 부엌에 봉안된다.

딸나무를 마련해오는 것이 임무인 역사, 불을 지피고 음식을 만드는 공양모 배경에는 병풍에 곡물생장과 식생활에 꼭 필요한 해와 달이 그려져 있어 부엌신의 갖가지 도상적인 특징을 살필 수 있다. 산신과 조왕신과 같은 토속신의 등장은 19세기 이후에 보이는 특징으로 신중신앙이 대중화 되면서 민간신앙이 신중신앙과 결합한 사례를 보여준다. 특히 18세기에 보였던 천룡탱에서와는 달리 팔부중 대신 이들 토속신이 위태천의 협시로 등장하는 것은 민간신앙이 조선후기 불교에 수용되어 점차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신중탱의 도상 역시 변모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재료 상에 있어서는 주로 바탕천이 견을 사용한 것이 대부분이며 형태 상에 있어서는 세로로 긴 그림이 가로로 긴 그림보다는 아직까지는 많은 추세이다. 大作이라고 할 만큼 크기가 큰 그림은 찾아볼 수 없으며, 색채 면 에 있어서는 조선시대 말기의 특성인 고명도, 고채도의 작품보다는 고졸한 멋을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이 많다.<sup>186)</sup>

조선후기 중반에는 모든 신중탱의 복합형 도상구조라고 할 수 있는 104위 신중탱화가 나타난다. 해인사 104위 신중탱이 그것인데, 이 작품은 조선시대 손시기를 통틀어 가장 치밀한 도상구조와 가장 많은 인물 수를 자랑하는 신중탱이다.

또, 이 시기에 확고히 자리 잡은 양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세로로 긴 그림보다는 가로로 긴 그림의 양식이 이 시기에 자리를 확고히 잡은 것이며, 또 하나는 용문사 신중탱에서 보면 분노상의 三面三目六臂의 대예적금강의 도상이 확고히 자리를 잡았다.

색채 면에 있어서는 채도가 높은 청색과 흰색의 사용이 조선후기 전반기보다 빈번해졌고, 바탕천은 아직까지는 絹을 사용하는 작품들이 많다.

조선후기 후반기에는 이전의 전반기, 중반기 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185) 芭蕉扇: 파초의 잎모양처럼 만든 부채

186) 김정희, 『조선후기 신중탱화의 연구 (2)』, 『한국의 불화』. p. 245.

신중탱이 현존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유추해 보면 신중신앙이 유형의 정도도 짐작해 볼 수 있다. 신중탱이 숫자적으로는 많으나, 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그다지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

먼저 색채 면에서는 명도 높은 청색과 흰색, 金의 남용으로 작품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왔고, 형태상에 있어서도 4~5등신 밖에 안 되는 인체 비례와 신격을 느낄 수 없는 얼굴의 표현으로 불화의 고귀함과 엄격함을 떨어뜨려 불화같이 보이기보다는 욕도 같은 느낌을 많이 받는다.

또, 작품 크기 면에 있어서도, 이전의 시기들보다 많이 작아진 모습을 볼 수 있고 재료 면에 있어서도 이전에는 絹이나 麻같은 고급 바탕천이 주로 쓰였는데, 이 시기에는 거의 대부분의 작품이 線에 그려지는 추세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 이유는 조선후기 신중 신앙이 너무 성행해서 신중 신앙의 폐단이 논의될 정도의 과열된 사회 분위기 때문이고, 서민들에게 불교가 대중화되면서 佛事의 의지보다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신중탱은 불교의 모든 호법신들을 그림 도상화 한 것으로서 그 범위 또한 매우 넓은 것이 사실이다. 고려시대까지는 각각의 개별 도상을 그린 신중탱이 유행한 반면에 조선시대에는 그 모든 신중들을 한데 모아 재구성한 神衆幀畫가 유행하였고 급기야 104위 신중탱처럼 인도의 재래신중에 중국, 한국의 토속 신까지 포함된 새로운 신중의 개념을 만들어 낸 것은 우리나라 불교가 고유 신앙을 불교의 카테고리 안에 광범위 하게 포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신중들이 호국선신으로 강조되었던 고려시대에는 국난의 극복과 외세로부터의 침략을 대장경을 조판하는 것으로 문제를 타개하고자 했다. 따라서 지금 전해지고 있는 고려시대의 神衆幀은 경판화의 금니로 사경한 經의 표지에 표지화로서 들어간 것이 많다. 그 종류는 인왕이나 역사를 하나의 도상을 조성한 것과 부처님이 설법하는데 보살들과 다른 외호신중들과 무리 지어 있는 것의 두 종류로 그 종류가 구별 지워진다.

조선시대 초기에도 신중 하나의 도상으로 조성된 것과 주된 신중 주위

에 작은 무리를 짓고 있는 그림이 있었으나, 조선시대 후기로 가면 갈수록 점점 그 무리들이 수를 더해 갔다. 또, 이 시대에는 사찰문의 천왕문에 사천왕탱을 그려 배치하거나 불경의 앞부분에 긴 장경을 가슴 앞에 받들고 공작 깃 투구에 갑옷을 입은 韋馱天(童眞菩薩)의 모습을 판각하여 배치한 예도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주류를 이룬 신중탱은 다수의 신중들을 하나의 도상으로 표현한 神衆幀이다. 현존하는 神衆幀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이 임진왜란 이후의 작품으로 보아 이와 같은 형식은 대체로 조선 후기 이르러 성립되었다고 생각된다.

### 3. 역사적 의의

불교를 국교로 삼았고, 왕실과 귀족의 보위를 받던 고려 시대의 불화의 수준은 과히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조선시대로 내려오며 따라 불교는 성리학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정치적 이념에 밀리고 고려의 패망의 이유에 불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세력들에 밀려 불화는 물론이고 佛事에 대한 관심이 덜했던 것 같다. 또한 당시 귀족 세력이었던 사대부들과 왕실의 지지를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심했으리라 추측된다. 하지만 왜란과 호란을 겪으면서 궁핍해 질 수 밖에 없었던 일반 서민들에게 불교는 가까워 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sup>187)</sup>

이전까지 外護的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신중 신앙은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가람의 수호와 消災降福이라는 현세 이익 적이고 內護的인 성격으로 바뀌었으며, 토속신앙을 불교에 융합함으로써 일반 서민층에 크게 유행하였다. 이러한 신중탱화는 크게 세 가지의 의의를 지닌다.<sup>188)</sup>

그 첫 번째는 신중탱이 繪畫史的으로 가지고 있는 의의는 표현의 자유

187) 한정섭, 『화엄신장』, 불교통신교육원, p.60-61.

188) 문명대, 「조선시대의 불화」, 『한국의 미 16』, pp. 182-186.

로움과 진보적인 수용 자세이다. 불화가 종교화이기 때문에 엄격한 神格을 보여줘야 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불·보살들과 일반 대중들 사이의 중간자 역할이었던 신중들은 불·보살의 上壇信仰을 표현함에 있어서 보다 훨씬 더 자유스러울 수 있었다. 즉 神格을 느끼기보다는 일반 대중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친밀감 있게 표현되었던 것이다. 또 등장인물이 어느 불화보다 많으므로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한편 조선후기에 어떠한 불화들보다 많이 제작되었던 신중탱<sup>189)</sup>은 인물들을 표현함에 있어서 서양의 채색 기법인 명암법을 수용했던 진보적인 불화의 양식이라고 생각한다. 서양의 명암 기법의 사용은 권속들에서 점차 주된 신중들까지 번지는 것을 알 수 있고, 구름의 표현들을 보면 사실적인 표현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보인다. 또 인물을 보다 사실감 있는 표현으로 초상화의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린 작품들도 찾아 볼 수 있었다.

두 번째로, 신중탱의 불교 회화사적인 의의는 고려 시대의 경제적인 뒷받침으로 성향을 이루었던 것에 비교해 볼 때 조선시대의 불교와 불사에 대한 경제적인 뒷받침은 미흡하기 짝이 없었다.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았을 때 좋은 작품이 나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조선시대의 불화가 색채감이나 구도상의 문제에서 고려 시대에 비해서 많이 뒤떨어지는 이유도 그러한 문제에서 연유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신중탱화는 색채상의 문제는 다른 불화와 다를 바 없으나, 도상적인 문제에서는 새로운 도상 양식을 만들어 냈다는 것에 주목할 만하다. 이전까지는 볼 수 없었던 인도와 중국과 우리나라의 토속신까지 함께 포섭된 104위 신중탱이라는 새로운 도상과 밀교적인 신앙 대예적금강을 도상에 포함한 금강탱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도상에 근거하여 그려야 하기 때문에 창작이라는 것이 어려운 불화에서 새로운 도상 구조를 만들어 낸 조선시대 인의 창작 정신을 엿볼 수 있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신중탱의 佛敎史的 의의는 이전의 시대에는 귀족들과 왕실

---

189) 실제로 경기 지방에 불화 제작의 숫자를 살펴보면, 영산회상도9점, 괘불 13점, 아미타 불화 22점, 지장보살도 20점, 감로왕도 12점, 신중도 40점으로 어떠한 도상들 보다 많이 제작되었다.

고혜숙, 「19세기 경기지방 불화의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pp. 57.

의 치마 품에 쌓여 있었던 불교가 대중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신중 신앙은 일반 대중들이 믿고 있었던 온갖 잡다한 신들을 불교에 포섭하고 그것을 도상화하고 또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신중을 찾으면 도와준다는 현세이익적인 신중 신앙의 한 부분을 끌어내어 왜란과 호란으로 어렵게 살아 왔었던 당시 일반 대중들에게 다가설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이전 시대보다 불화의 퇴화를 보였던 조선시대에 신중탱은 한국 회화사적으로, 불교회화사적으로, 또 불교사적으로 다방면으로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

## V. 결론

불교는 종교이며 철학이다. 그리고 고정된 물건도 아니며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불교가 넓은 지역으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각 민족별, 시기별로 불교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불교는 각 지역의 민속을 포용하면서 민속과는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게 된다. 이와 같이 불교 속에는 많은 민속이 흡수되었고, 불교 안에서 재해석되어 불교와 한 몸이 되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나라 불교에서도 나타난다. 특히 민간신앙이 어떠한 형태로 불교에 자리 잡았는가에 대한 답은 현재 사찰에서 신앙되고 있는 신중신앙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신중은 불보살을 수호하는 존재로 80『화엄경』에 나타난 39위 신중, 『석문의범』에서 나열하는 104위 신중의 명호를 확인 할 수 있다. 신중은 불보살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신들이므로 이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곳에 위치한다.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신중신앙은 통일신라시대부터 화엄신앙을 바탕으로 확산되었다. 그리고 고려시대에 확대되어 조선시대에 정착하게 되었다. 또한 신중신앙의 주체가 국가에서 사찰과 민간으로 확대되면서 신중은 왕실·국가·사찰·가정을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주기를 기원하는 대상이 되었다.

조선후기 신중탱은 화엄 신중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토속신과 밀교적인 신과 금강회상도에 나오는 신, 그리고 위태천 등의 신들이 하나의 화면에 도상화된 것이다.

신중탱의 중요 도상인 화엄 신중은 통일신라시대부터 신앙되었고, 고려 전기에는 토착적인 신앙과 결합하여 그 전통이 조선시대로 이어진다. 조선시대 신앙 되었던 신중은 신중 본래의 역할인 정법수호, 전각의 수호, 의식도량의 청정 등 본래의 기능에 충실하였다. 고려시대와는 달리 서민이 신앙의 주체가 되었고, 민간신앙과 결합하여 기복적인 측면이 더욱 강해졌다. 이러한 사실은 민간에서 널리 신앙되었던 산신과 조왕신이 신중탱의 중요도상으로 나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토착화된 화엄 신중과 수륙재 때 외호신중으로 등장하는 예

적금강, 금강회상에 나오는 8금강과 4보살, 그리고 사경의 첫머리에 나오는 호법선신인 위태천 등이 결합하여 복합적인 신중체계가 구성된다. 이를 표현한 신중탱의 형식은 18세기말에 정착되어 새로운 도상이 유입되고 형식의 변화를 일으키며 독창적으로 발전해간다. 특히 19세기 말에 성립한 104위 신중탱은 이러한 모든 신앙체계를 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중탱의 발달 단계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성립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신중탱은 조선시대의 불화 가운데서도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중단 신앙이면서도 신중탱이 가지는 가람 내의 청정, 정법의 수호, 소재강복의 현실적인 신앙 특성 때문에 사찰 내의 중요한 전각에 중단탱으로서 봉안되었다.

많은 신중들이 출현함으로써 도상학적으로도 복잡한 구조를 보이고 있는데 다른 어떠한 불화들보다도 도상 구조가 가장 다양했던 불화이다. 제석 탱·제석 천룡탱·금강탱·104위 신중탱 등 4형식으로 크게 분류될 수도 있고 또 그 안에서 세부적인 분류가 가능한 다양한 도상을 가진 불화이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금강탱이나 104위 신중탱처럼 새로운 도상을 창작했다는 것이 괄목할 만하다.

이와 같이 신중탱이 조선후기에 많이 제작되었던 이유는 당시 사회상을 잘 반영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왜란과 호란으로 어려운 생활을 했던 조선시대의 일반 백성들에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신앙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신중신앙의 이론적 배경, 신중탱의 형식 분류, 도상의 특성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조선후기 신중탱은 위로는 불법과 가람을 수호하고 아래로는 일반 대중들에게 康福을 기원하는 염원에서 많이 제작되었으며 그 상당수가 현존하고 있다. 지금도 그 전통이 계속 이어져 여러 사찰에서 신중탱을 지속적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그 연구도 더욱 많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많다는 것을 실감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보완해 나가고자 한다.

## 參考文獻

### 1. 사료·경전

『고려사』

『묘법연화경』, 백용성 번역, 대각사, 1991.

『석문의범』, 안진호, 법륜사, 1931.

『삼국유사』, 일연, 일신서적출판사, 1986.

『우리말 대방광불화엄경』, 백용성 번역, 흥법원, 1985.

『조선왕조실록』

『화엄경』, 한글대장경, 동국역경원, 1991.

실차난타역, 『80화엄경』 대정장 10.

淸涼澄觀 著, 釋盤山 譯, 『華嚴經淸涼疏』, 第1卷, 은혜사 승가대학원, 1998.

### 2. 단행본

巨璇, 『作法龜鑑』, 동국대학교 도서관 소장, 1826.

巨璇 著, 김두재 옮김, 『作法龜鑑』, 동국대학교출판부, 2010.

『高麗, 영원한 美』, 고려불화 특별전 호암갤러리, 1993.

고명석·고광영, 『100문100답-불·보살·신중편』 하, 대원정사, 1998.

권기현, 『백양사 삼광사』, 정우서적, 2012.

김영주, 『한국불교미술사』, 솔출판사, 1996.

김영태, 『한국불교사개설』, 경서원, 1986.

김의식, 『탱화』, 운주사, 2005.

김정희, 『신장상』, 대원사, 1989.

\_\_\_\_\_, 『한국의 불화1~19』, 성보문화연구원, 동국역경원.

\_\_\_\_\_, 『한국의 미⑦고려불화』, 중앙일보사 1984.

\_\_\_\_\_, 『한국의 미⑩조선불화』, 중앙일보사 1984.

- \_\_\_\_\_, 『고려시대의 불화』, 시고사, 1997.
- \_\_\_\_\_, 『한국불교미술대전(2)불교회화』, 한국색채문화사, 1994.
- 디트리힐 썬켈, 『불교미술』, 열화당, 1985.
- 馬書田, 『中國佛教諸神』, (園結出版社, 1994).
- 문명대, 『한국의 불화』, 열화당, 1997.
- \_\_\_\_\_, 『한국불교미술의 형식』, 한국언론자료간행회, 1997.
- 문진열, 「불교와 민속신앙에 관한 고찰」,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박상국, 『전국사찰소장목판집』, 문화재관리국, 도판 100.
- 박현수, 『불교미술』, 대한불교진흥원, 2005.
- 법회연구원 편역, 『常用 佛教儀式解説』, 정우서적, 2004.
- 서윤길, 『한국밀교사상사』, 운주사, 2006.
- 석식영암, 『동문선』권65, ‘선원사비로전단청기’
- 안계현, 『한국불교사연구』, 동화출판사, 1982.
- 안벨리제 저, 김재성 역, 『힌두교의 그림언어』, 동문선, 1994.
- 오세출, 『불교민속학의 세계』, 집문당, 1996.
- \_\_\_\_\_, 『한국민간신앙과 문학연구』, 동국대학교출판부, 2002.
- \_\_\_\_\_, 『한국불교민속문학연구』, 집문당. 2008
- 이희수, 『토착화과정에서본 한국불교』, 불서보급사, 1971.
- 일 연. 김영수역, 『삼국유사』, 일신서적출판사, 1996.
- 일 연, 김원중역, 『삼국유사』, 을유문화사, 2002.
- 장충식, 『고려 화엄판화의 세계』, 아세아 문화사, 1982.
- 전해주, 『화엄의 세계』 민족사, 1998.
- 眞野隆也, 이만옥 번역, 『도교의 신들』, 들녘, 2001.
- 최정희, 『한국불교전설』99, 우리출판사, 1990.
- 한정섭, 『불교기도영험설』, 범문사, 1975.
- \_\_\_\_\_, 『화엄경약찬계』, 불교통신교육원, 2000.
- 한정섭·안태희 공저, 『화엄신장』 불교통신교육원 이화문화출판사, 1994.
- \_\_\_\_\_, 『불교신장연구』, 이화문화출판사, 1992.
- 홍윤식, 『한국의 불화연구』, 원광대학교. 1980. 『불화』 대원사, 1989.

- \_\_\_\_\_, 『한국의 불교미술』, 대원정사, 1986.
- \_\_\_\_\_, 『불화』 대원사, 1989.
- \_\_\_\_\_, 『불교와 민속』, 동국대학교불전간행위원회, 1993.
- \_\_\_\_\_, 『한국불교사의 연구』, 교문사, 1998.
- 『한국의 불화』 권4·5, 해인사 본말사편(상·하), 정보문화재연구원, 1997.
- 『한국의 불화』 권6, 송광사 본말사편(상), 정보문화재연구원, 1998.
- 『한국의 불화』 권31, 대흥사 본말사편, 정보문화재연구원, 2004.
- 히인리히 침머 지음, 이숙중 옮김, 『인도의 신화와 예술』, 대원사, 1955.

### 3. 논문

- 구민실, 「고려불화에 있어서 탕화의 조형적 특성」,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 구자성, 「신라의 국가적 불교의식에 대한 고찰」, 공주사범대학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 고혜숙, 「19세기 경기지방 불화의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1994.
- 곽만연, 「최치원의 유·불·도 삼교관 연구」, 『불교연구』 24, 한국불교연구원, 2005.
- 김덕혜, 「19세기 華嚴神衆圖 研究 : 兜率山 禪雲寺 神衆圖를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김보형, 「朝鮮 後期 104위 神衆圖 考察」, 동국대 미술사학과 대학원, 2006.
- 김연희, 『한국의 불화』 「조선시대 신중탱화의 연구」
- 김정희, 「朝鮮時代 神衆幀畵의 研究(1)」, 『한국의 불화』 4권, 해인사본말사편(상), 정보문화재연구원, 동국역경원, 1997.
- \_\_\_\_\_, 「朝鮮時代 神衆幀畵의 研究(2)」, 『한국의 불화』 5권, 해인사본말사편(하), 정보문화재연구원, 동국역경원, 1997.
- 김형우, 「고려시대 국가적 불교행사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 남동신, 「나말여초 화엄종단의 대응과 화엄신중경의 성립」, 『외대사학』 5,

- 1993.
- 문명대, 「묘법연화경 사경변상도의 한 고찰-사경변상도의 연구2」, 『한국 불교학』, 3, 1977.
- \_\_\_\_\_, 「조선불화의 양식적 특징과 변천, 조선불화」, 『한국의 미 16, 조선 불화』, 중앙일보사, 1984.
- \_\_\_\_\_, 「조선시대의 불화」, 『한국의 미 16』
- 문진열, 「불교와 민속신앙에 관한 고찰-한국불교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_\_\_\_\_, 「불교와 민속신앙에 관한 고찰」,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박계선, 「조선불화양식의 제인식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박도화, 「조선시대 금강경 관화의 도상」, 『불교미술연구』3·4,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1997
- \_\_\_\_\_, 「조선전기반 불공관화의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 박상국, 『전국사찰소장목판집』, 문화재관리국.
- 박해당, 「己和의삼교론」, 『泰東古典研究』 12, 한림대학교부설태동고전연구소, 1995.
- 석정심, 「中國에 있어서의 儒·佛·道 三敎의 交涉」, 『원불교사상』 20,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1996.
- 송석구, 「西山의 三敎會通研究」, 『한국종교』 18, 원광대학교종교문제연구소, 1993.
- 윤선자, 「신라중기 화엄종의 성립과 발전」,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 이계련, 「한국의 불교회화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이승희, 「朝鮮後期 神衆幀畫 圖像研究」,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_\_\_\_\_, 「조선후기 신중탱화 도상의 연구」, 『미술사학연구』, 미술사학회, 2001

- 이유희, 「조선왕조 후기의 불화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4.
- 李智冠, 「韓國佛敎에 있어 華嚴經의 位置-刻板流通을 中心으로-」, 『佛敎學報』20, 1983.
- 장충식, 「불화의 기원과 전개」, 『한국의 불화』① 통도사 본사편(상), 정보문화재 연구원, 동국역경원, 1996.
- \_\_\_\_\_, 「통일신라시대 석탑의 부조상의 연구」, 『고고미술』 154·155, 1982.
- \_\_\_\_\_, 「韓國 佛敎版畫의 研究(I)」, 『佛敎學報』제19집, 1982.
- 전해주, 『삼국유사』에 보이는 ‘神衆’에 대한 考察, 『佛敎學報』제37집, 2000.
- 정병국, 「朝鮮後期 神衆幀畫의 研究」,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 조남두, 「화엄경을 통해 본 화엄사찰의 배치형식 연구-화엄십찰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조윤실, 「국보196호 신라 백지묵서 대방광불화엄경의 일연구,(표지화 변상도를 중심으로)」,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8.
- 최성희, 「한국의 불화와 무속화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0.
- 한정섭, 「佛敎土着信仰考」, 한국불교학회, 1977.

# ABSTRACT

**A study on the Guardian painting of late Joseon  
dynasty and the faith of Guardians in Buddhism**

Kim, Tae Eun(Hae Min)

Department of Buddhism

Graduate School

Joong-Ang Sangha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ang, So Yon

In Buddhism, Bodhisattva of the Protection of Buddhist Doctrine is the existence who protects Buddha and its 104th name and pen name can be identified from No.39 Bodhisattva of the Protection of Buddhist Doctrine and 『Seokmooneuibeom』 appeared in 80 『Hwa-um Buddhism』. Bodhisattva of the Protection of Buddhist Doctrine are a group of gods that exist between Buddha and humans and they existed based on Hwa-um Faith from the unified Silla Dynasty, existed throughout the Koryo Dynasty, and settled during the Joseon Dynasty.

This study examined how the Bodhisattva of the Protection of Buddhist Doctrine Faith was formed and existed at Buddhist

temples and looked into the meaning of Bodhisattva of the Protection of Buddhist Doctrine in Buddhism by clarifying the form classification during the late Joseon Dynasty and its religious and ritual meaning from a different level compared to the existing studies based on analysis of work through art history method.

First of all, Chapter 2 studied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composition of the Bodhisattva of the Protection of Buddhist Doctrine Faith. Chapter 3 classified the late Joseon Dynasty Bodhisattva of the Protection of Buddhist Doctrine's iconography classification into Jaeseoktaeng, Indra-Brama-Heavenly Dragon, Geumgangtaeng, and No.104 Bodhisattva of the Protection of Buddhist Doctrine. As a result, Bodhisattva of the Protection of Buddhist Doctrine had a unique characteristic among the Vajrapani paintings of the Joseon Dynasty. The characteristic implies that Buddha Dharma protection and faith are included. Along with the protective function which guards purification and Jeongbeop within the Buddhist temple possessed by Bodhisattva of the Protection of Buddhist Doctrine, it is the Middle Altar which combines the realistic faith of Hyeonsaegubok and Sojaekangbok. Lastly, Chapter 4 studied the overall progress and flow of Bodhisattva of the Protection of Buddhist Doctrine in the late Joseon Dynasty and the historical significance based on the study so far.

With the beginning of the Joseon Dynasty, the Bodhisattva of the Protection of Buddhist Doctrine Faith, which used to play the role of state protection from a nationwide level, turned into

the character of protecting Buddhist temples and internal protection and was very popular among the ordinary people since traditional faith was merged with Buddhism. As studied so far, Buddhist paintings were in a situation of decline compared to previous ages. However, Bodhisattva of the Protection of Buddhist Doctrine has a significant meaning in the Korean Buddhist ideology and art in the sense that it displayed another creative development in the late Joseon Dynasty.

---

key words : Hwa-um Buddhism, the Faith of guardian, guardian painting, Sakra Devānām Indra, Indra-Brama, Indra-Heavenl Dragon, Indra- Brama-Heavenly Dragon, Bajrapanis painting, 104 Guardians